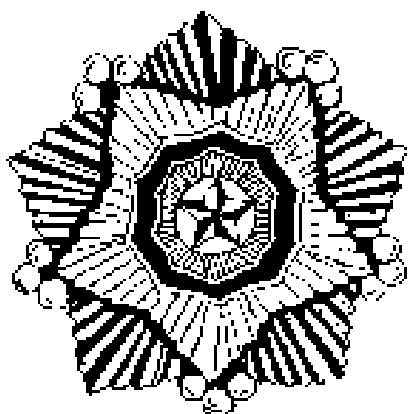


1

주체92(2003)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2(2003)년 제1호

(루계 제 663 호)

◇◇◇◇◇◇◇◇◇◇

## 차 례

◇◇◇◇◇◇◇◇◇◇

조국해방전쟁승리 50돐을 맞는 올해를 선군혁명문학의 성과로 빛내이자.....	4
설날 .....	6
전승의 그 나날처럼 .....	7
독특한 향기, 생신한 매력.....	7
시대가 요구하는 새것을!.....	8
평론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8
축복 받은 새해에.....	9
장군님과 작가.....	10
두번째 보고서 .....	11
조선 .....	19
우리의 행복을 두고... ..	20
수령님 추억속에(1).....	21
설날의 축복 .....	22
보름달이 왔소.....	23
펜을 들기전의 고심 .....	24

수령님 추억속에(2).....	27
위대한 령장, 위대한 계승에 대한 전설적인 송가 .....	28
찬물이 끓어요.....	30
하람산의 범 .....	31
수령님 추억속에(3).....	38
푸른 산악에 메아리치는 인생철학의 교향곡 .....	39
명언해설 .....	42
이 땅의 재부.....	43
지혜와 총명 .....	54
전호없이 싸운 전사들(외1편) .....	54
나는 공병대대의 로병 .....	54
시인은 누구나 시를 쓰고 있다. 그러나… (3).....	55
통일에 살고 싶다.....	62
상봉과 결별 .....	63
총이여 너와 나 .....	65
문학의 선도자는 작가를 알아야 한다.....	66
단편소설에서 성격형상과 창작적기교.....	72
나는 병사가 되였네 .....	73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악부시의 발전에서 찾아 보는 몇가지 특성 . .....	74
첨단과학기술의 특징.....	77
우리 나라에서 군담과 군담소설의 창작 .....	78
설날풍경 .....	79
설명절 .....	79

## 조국해방전쟁승리 50돐을 맞는 올해를 선군혁명문학의 성과로 빛내이자

위대한 선군령장의 평도를 따라 세기에 빛나는 업적을 이룩한 이 땅우에 새해가 왔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선군의 기치밑에 거창한 변혁과 혁신으로 수 놓아 온 지난해의 빛나는 성과를 감회깊이 돌이켜 보며 새해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 일념에 충만되어 있다.

지난해 우리 선군혁명문학은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문예로선을 받들고 힘차게 전진하였으며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우리 문학은 주체문학의 근본책인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였으며 문학의 주체성과 그 본색을 더욱 강화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이 많이 창작되었으며 그 사상에 예술수준이 더욱 높아 졌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푸른 산악》, 《개선》, 《변영의 길》,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강계정신》, 《총검을 들고》, 《비약의 나래》, 《계승자》 등 총서작품들은 그 높은 사상에 예술성으로 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힘 있게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문학은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을 비롯하여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전설을 수집 정리하는데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수령의 위대성교양을 전설화하여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하였다.

우리 문학은 수많은 명작들을 창작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최대의 행운을 누렸다.

특히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비롯하여 중요한 력사적기념일들을 맞으며 서사시 《우리의 만복》, 《력사의 숫눈길》, 《만대에 빛나라 태양찬가여!》 등 큰 형식의 다양한 작품들이 훌륭하게 창작되었으며 많은 시가작품들이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되어 선군시가문학을 찬란히 빛내었다.

지난해 우리 문학의 전반수준이 높아 졌으며 문학의 모든 형태, 모든 형식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소설, 시, 아동문학, 평론 등에서 자기 고유의 특성에 맞게 특색 있는 작품들이 창작되었으며 그 형상수준이 훨씬 높아 졌다.

지난해 문학작품창작의 성과를 두고 말할 때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하는 장편소설들이 기운차게 창작된것은 특별히 이채로운것이다. 장편소설들인 《인생항로》,

《지리산의 갈범》(1, 2부), 《의리》, 《최후의 한 사람》, 《나의 추억 40년》, 《조국의 아들》 등이 창작발표되었으며 련이어 다른 작품들도 완성되어 가고있다.

지난해에 특히 군중문학창작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 문학통신원 열성자회의에 보내주신 서한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자》** 발표 20돐을 맞으며 군중문학창작운동이 활력 있게 벌어 졌다.

실로 지난 한해에 우리 문학은 중요한 력사적 사변들과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선군혁명문학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고 다채롭게 장식하였다.

지난해에 창작된 모든 작품들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현실이 배출하는 새로운 인간성격들을 창조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문학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걸출한 문예사상리론가이시며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평도와 자애로운 사랑이 가져다 준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평도로 것처럼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는 긴장한 가운데서도 우리 작가들이 쓴 수많은 작품들을 지도하시여 명작으로 완성하여 주시였으며 작가들의 창작생활조건을 더 훌륭하게 마련하여 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거듭거듭 안겨 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50돐이 되는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한 이 시각, 우리 작가들의 심장마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 같은 충정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새해에도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 선군정치를 문학으로 보좌할 불 타는 결의에 가득차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으며 문학예술에 대한 인민의 요구도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문학예술은 마땅히 시대와 함께 전진하여야 하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여야 한다.》**

위대한 선군시대의 전진에 앞장서 나가며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는 문학이라야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선군평도를 받들어 나가는 투쟁의 기수로



되게 하는데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조국해방전쟁승리 50돐이 되는 뜻 깊은 올해를 선군혁명문학의 일대 양양으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선군정치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총적사명으로 힘 있게 틀어 쥐고 나가야 하며 이것이 바로 문학의 문제성으로 되어야 한다.

선군혁명문학창작에서 올해에 특별히 창작적 관심을 돌리고 화력을 집중해야 할 주제분야는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었고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어버이수령님의 형상을 더욱 완벽하게 창조하는 것이며 수령님의 뜻을 이으시여 위대한 선군정치를 펴시고 제국주의자들과의 총포성 없는 전쟁에서 류레 없는 승리를 이룩하시니 고적들을 위락시켜주며 세계정치를 주도해 나가시는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형상을 최상의 높이에서 창조하는 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를 비롯한 장편소설들에서 위대한 령장의 모습을 더욱 훌륭하게 창조하여야 하며 문학의 모든 형태, 모든 형식에서 회세의 군사전략가의 웅심 깊은 형상을 더욱 힘 있게 창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올해 선군혁명문학에서 수령형상의 대화원을 더욱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선군혁명문학창작에서 형상을 집중해야 할 미학적문제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새로운 성격을 더욱 다양하고 풍만하게 창조하는 것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시대의 성격을 모든 문학작품에서 훌륭히 창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 부과된 조미의 형상과제이다. 우리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적군인정신은 우리 시대 혁명가들이 도달하여야 할 사상정신세계의 높이를 보여 주고 있다. 사람들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면 절해고도에서도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가 되고 당의 부름이라면 산악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영웅적인 결사관철투사가 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비판과 우울을 모르는 락천가가 되게 된다. 우리는 문학형상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민군대가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며 그것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혁명실천에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힘 있게 고무해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우리 문학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새로운 성격의 창조는 비단 소설문학과 같은 어느 한 형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작가들은 소설, 시, 아동문학, 극문학, 예술산문 등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자기의 특성에 맞게 내용과 형식을

깊이 탐구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주인공의 성격을 다양하고 생동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새해 문학작품창작에서 힘을 넣어야 할 문제는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성을 한계단 훨씬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문학작품들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상적대를 더욱 튼튼히 세우면서 형상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문학작품에서도 사상을 위주로 하여 문학의 사상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창작적관심을 돌리며 그와 함께 문학의 형상성을 높이는 데도 탐구와 사색을 깊이 하여야 한다. 문학의 형상성은 그것이 문학작품으로 되게 하는 본질적 특성이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의 형상성을 높임에 있어서 소설, 시, 아동문학, 극문학 등 해당 형태의 고유한 특성과 형상수법들을 적극 살리고 개척하는 방향에서 탐구적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미학실천적인 문제는 문학작품의 철학성과 지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새 세기를 맞이한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 세계는 매우 높으며 생활정서도 고상하고 풍부하다. 사람들은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생활의 깊은 세계가 뜨겁게 안겨 오며 두고두고 삶의 참뜻을 되새겨 보게 하는 훌륭한 작품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의 미학적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우리 시대 사람들이 올바른 혁명관과 인생관을 가지도록 하자면 작품의 철학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제기하는 인간의 운명문제가 심각하고 그에 해답을 주는 사상이 심원하게 하여야 하며 형상이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릴 수 있게 하는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문학작품은 작가의 지적창조물이다. 같은 하나의 현실을 놓고도 작가가 그것을 어떤 수준에서 평가하고 그리는가 하는데 따라 작품의 질이 좌우된다. 문학의 지성세계를 높이는 것은 창조와 변혁의 세기, 정보산업의 시대인 새 세기 사람들의 절실한 미학적요구이다. 인간의 지성도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는 문학의 지성세계를 더욱 높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모든 요소에서 지성세계를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한다. 모든 문학작품들에 작가에 의하여 발견된 새로운 생활철학이 있어야 하며 아름답고 고상한 미의 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문학의 철학성과 지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가의 미학적리상이 높아야 한다. 문학작품에 반영되는 작가의 미학적리상은 읽는 사람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결하고 숭고한 것으로 되어야 하며 선군시대의 미학적요구에 만족을 줄 만큼 높은 수준에 올라 서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철학가가 되어야 하고 생활의 정력적인 탐구

자가 되어야 하며 언어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 높은 정치적식견과 안목을 지닌 작가라야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삶과 운명개척의 길을 두고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 진실하고 철학적깊이가 있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또한 생활의 박식가로, 뜻이 높고 수양 있는 문화인으로 되어야 하며 생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철학적인 안목과 지성적인 사고력, 높은 형상능력을 지니고 우리 문학의 지성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조국해방전쟁승리 50돛이 되는 올해를 선군혁명문학의 풍만한 결실로 장식하기 위해서는 실력전을 벌려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지금은 실력전의 시대이다.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작가는 높은 창작능력을 가진 실력 있는 작가이다. 높은 실력, 문학창작실적으로 당을 받드는 작가만이 참다운 선군혁명문학을 창조할수 있으며 시대의 명작을 내놓을수 있다. 모든 작가들은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언제나 공부도 많이 하고 사색을 깊이 하여야 하며 탐구하고 또 탐구하여야

한다. 실력전의 된바람속에서만이 당이 바라는 시대의 명작을 창작할수 있다.

선군령장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하는것은 선군혁명문학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며 근본비결이다. 우리는 선군혁명문학창조와 건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 방침들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기준으로 깊이 간직하고 오직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창작하고 생활하는 선군시대의 작가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과 영원한 선군혁명동지로 되는것, 바로 여기에 선군혁명문학의 빛나는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요인이 있다. 우리모두 위대한 스승, 위대한 아버지의 참된 동지, 참된 작가가 되어 선군혁명문학을 자랑스레 건설해 나가자.

작가들이여, 우리모두 선군혁명문학의 필봉을 더욱 높이 추켜 들고 조국해방전쟁승리 50돛이 되는 올해를 전례 없는 창작성과로 빛내이자.

## 설날

김일규

설날은  
소원의 첫 기슭이더라

인생의 또 한해  
누구나 성공의 기쁨이 있기를  
아이들은 더 씩씩해 지고  
녀인들은 더 예뻐 지기를  
부모님들은 더 건강하시고  
생활엔 웃는 날만 있기를...

누구나의 마음속에 아롱지는  
간절한 꿈망울들 다 터치여  
이 땅의 모든 숨결 다 합쳐  
아버이장군님의 건강만을 바라는  
소원의 꽃바구니가 엮여 지는 날

세배절 뚫어 앓는  
아이들의 눈망울에도  
운명처럼 비끼는 그 간절한  
내리는 눈송이에도 실려  
이 땅 이 하늘아래 가득찬 축원의 메아리-

천리방선 전호가 총대의 번뜩임에  
새해의 첫 노을이 내려 앉아  
흐르는 세월의 새 아침을 의탁할 때  
정히 쓸고 쓴 전선길 고지우에

피로 새긴 글발인가  
결사옹위의 구호여

설날은  
약속의 첫 기슭이더라

숫눈길 걷어 차며  
서둘러 다그치는 걸음걸음에  
다시한번 채찍을 엮는 마음이어  
못 다한 일 해야 할 일도 많아  
한살 더 먹는 인생길에  
부디 어깨가 무겁기를

그 소원  
그 약속의 기슭을 떠나는  
이 땅의 충직한 마음들에 떠받들려  
조국은 이 해의 하루하루  
얼마나 더 높이 빛나오를것인가

오 설날은  
이 시대에 간절한  
하나의 신념을  
흐르는 세월속에 또 한년륜 새기는  
소원의 첫 기슭이더라  
약속의 첫 기슭이더라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김정일

새해결의

## 전승의 그 나날처럼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생각이 깊어진다. 지난해에 잘한것은 무엇이고 못한것은 무엇이었는가? 새해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반성과 굳어 지는 결심이 엿갈린다. 60나이를 넘기고 네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저로서는 먼거리를 달려 온 장거리선수가 결승선을 눈앞에 바라보는 심정이라고 할가? 인생을 장거리경기에 비한다면 머리에 백발을 엮은 나이는 결승선을 바라보는 계선에 이르렀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이 계선에서는 최대의 마력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늦잡으면 만회할 시간이 없다. 예로부터 로당익장해야 한다는것은 그래서 하는 말일것이다.

올해 우리 인민은 전승 50돐을 맞이한다. 청소했던 우리 조국이 미제침략자들을 때려 눕힌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세계전쟁사에 있어 보지 못한 기적이였다.

저는 이 경사롭고 뜻 깊은 명절에로 달리는 마음을 안고 창작을 다그치겠다. 지금 쓰고 있는 장편소설의 주인공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정치공작대로 고향인 전남도에 나갔다가 지리산에서 빨찌산으로 싸운 경력을 가진 비전향장기수이다. 붓을 들면 저의 마음은 주인공과 함께 반세기의 세

월을 거슬러 포화의 그날에로 내려쳐 간다. 우리 인민과 군대, 남녘의 빨찌산들이 강적을 타승하던 50년대의 정신으로 창작의 붓을 달리여서 기여이 이 소설을 끝낸 기쁨을 안고 전승절의 축포를 바라보겠다.

돌이켜 보면 멀리 흘러간 병사시절이 저를 문학의 길에로 이끌어주었다. 그래서 세상에 내놓은 첫 단편소설 《척후병》도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히 싸운 영웅전사를 형상한 작품이였다. 몸은 비록 늙어도 마음만은 병사시절에 살려는 자각, 선군시대의 공민적자각이 깊어 지는 가운데 새해의 첫 아침을 맞이한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50년전에 전승의 소식을 듣고 만세의 환호를 올리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참말이지 미제를 타승한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비길데 없었다. 되새겨 지는 그 기억은 이제 또다시 놈들이 덤벼든다면 몇배로 더 섬멸적타격을 안겨줄수 있다는 신심과 용기를 깨우쳐 준다. 승리자의 자부심이 넘쳐 나던 전승의 그 나날처럼 열정에 넘쳐서, 력사의 그날이 안겨준 신심에 넘쳐서 새해의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련다.

### 4. 15문화창작단 소설가 리동구

## 독특한 향기, 생신한 매력

위대한 전설로 날과 날을 가득 채우며 새 세기의 또 한해가 밝아 왔다.

거룩한 선군령도의 찬란한 해빛아래 끝없이 변모되는 조국강산의 새 아침을 맞이한 첫 걸음부터 류다르다.

어찌 이 가슴 벅차오르지 않겠는가?

전승 50돐을 맞는 뜻 깊은 해의 첫 진군길에 나선 사람들의 발걸음부터가 나를 흥분시켰고 저 멀리 금전강의 대인공호수가 나를 부르며 흘러흘러와 가슴을 치는듯 싶고 개천-태성호의 푸른 물결은 100리옥담을 적시며 벌써 난알이 무르익은 풍요한 전야를 눈가에 펼치는듯 싶다.

보는것 듣는것이 거창하고 황홀한 천지전변의

모습우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노래의 꽃, 시의 꽃을 피워 그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겠는가 하는 열렬한 충동이 크기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도 대흥단을 찾으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무산지구전투승리의 불멸의 대기념비에 새겨진 가요 《대흥단 삼천리》를 몸소 자자구구 읽어 보시고 높은 평가의 말씀을 주신 그 믿음으로 하여 결심도 더 굳어 지게 하는 해입니다.

노래가 처음 불리워 질 때도 그렇게 높이 평가해주시고 이제는 그 노래가 울려 퍼진 때로부터 여러해가 흘렀지만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에 사랑을 주시었으니 보답으로 시작된 이해

가 어찌 류다르지 않을수 있는가?

대해 같은 그 은정을 가슴 벅차게 받아 안으며  
저는 더 좋은 명작을 창작하여 이해에는 하루의  
휴식도 없이 전선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한 충성의 날과 달로 줄달음쳐  
꼭 제2의 《대흥단 삼천리》를 창작하겠다.

그리고 지금 창작중에 있는 선군시대의 너인들  
을 노래한 시뭇음을 시문학의 화원에 독특한 향  
기, 생신한 매력을 가진 꽃으로 피워 놓기 위해  
있는 정력을 다 바치겠다.

시인 박정애

## 시대가 요구하는 새것을!

또다시 한해가 흘렀다. 승리와 영광,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한해가 이 땅우에 흘렀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조국과 인민은 준마를 타  
고 구보로 질풍같이 내달려 사회주의강성대국건  
설에서 또 한걸음을 크게 내짚었다.

황해남도도지정리, 개천-태성호물길공사...

모든것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변모  
되어 가고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 투  
쟁기풍과 생활방식, 모든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되어 가고있다.

우리 작가들의 창작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나야 할것이다.

새 세기는 새것을 요구한다.

새것은 결코 저절로 생겨 나지 않는다. 새것을  
창작하자면 고심어린 탐구와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것이다.

새것은 언제나 현실속에 있는 법이다. 책상머  
리에서는 결코 새것이 나올수 없다.

현실속에 들어 가 새것을 찾자! 이것이 나의  
목표이다.

당면하여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를  
원형으로 하는 장편소설 《하얀 모래불》(가제)을  
높은 사상에술적수준에서 창작해 내어 독자들의  
기대에 적으나마 보답하겠다는것을 결의한다.

소설가 김용한

## 평론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승리와 영  
광으로 빛난 주체91(2002)년을 보내고 희망한 새  
해를 맞이한 나의 가슴은 끝 없는 환희와 새로운  
결의로 들끓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세인을 경탄시킨 변  
혁의 나날들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씨야편방 원동지역방문과 조일국교정상화를 위  
한 기틀의 마련, 온 나라에 차고 넘치는 북남인  
민들의 뜨거운 통일열기...

이 모든 성과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  
군령도가 안아 온 빛나는 결실이었고 그 길우에  
서 강성대국건설의 밝은 전망을 약속케 하는 홀  
룡한 터전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날로 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우리의 주체문학  
의 대화원도 명작대풍의 창작적성과로 활짝 꽃  
피어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평론가로서 우리 문학의 발전에  
참다운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여러편의 평론을  
발표하였다고는 하지만 창작을 선도하고 창작실  
천에 크게 도움을 주는 높은 수준의 평론을 써내  
지 못한 자책으로 마음이 무거워 진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평론도 창작이

라는 철저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한편의 평론  
을 써도 창작실천에 긴요한 문제를 틀어 쥐고 그  
에 대한 깊이 있는 해명을 주는 명작-평론을 창  
작하지 못한데 있다.

새해를 맞고 보니 평론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마음이 더욱 굳어진다. 새해는 말보다 실  
천을 요구한다. 시대의 요구를 명심하고 평론에  
서 작품창작을 선도할 새로운 문제가 탐구되고  
그 형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 쓰겠다.  
특히 조국해방전쟁승리 50돐을 맞으며 선군혁명  
문학에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는 주체성과 민족  
성구현문제, 장편소설에서의 전형화의 요구와 묘  
사기법문제 등에 대한 평론을 문학평론답게 써내  
려고 한다.

계획은 방대하고 아름답다. 욕망은 크지만 실  
천만이 나의 이 결의가 빈 말에 그치지 않음을  
실증해 줄것이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미학적문제를  
풀기 위해 탐구와 사색을 거듭할 때 평론에서 도  
식적인 틀을 깨칠수 있을것이다.

평론가 방형찬



# 축복 받은 새해에

김형준

인간의 석별만이  
살뜰한줄 알았건만  
한해 세월 바래워 주는 나의 마음속에  
어느사이 찾아와  
이 한해 함께 보내자 약속하는 새해여

통성을 하자 새해여  
나는 이 나라의 공민  
너는 이 땅에 찾아 온 2003년  
한해 세월 함께 살 약속을  
한생 세월 함께 살 인연을 맺고 살자

네가 나의 손을 잡던 순간  
나는 너에 벌써 정들었다  
우리 너를 이 세상에서  
또다시 뜻 깊은 해로 빛내이리라  
우리 너의 마지막날과도 약속하자

레사롭고 평범한 나날이  
이 땅에 흐르지 않으리라  
이 해의 첫날과 마지막날을  
총대의 구성과 조문과 같이 세우고  
너의 하루하루를 총알같이 보내리라

달리는 총알엔 녹이 못쓸듯  
너의 해와 달 순간순간을  
선군으로 지키여 빛내며  
너의 삼백예순닷새를  
탄창속 총탄처럼 차곡차곡 재워 빛내리

너도 지난해 보았겠지  
온 세상에 파몰아 치던 《아리랑열풍》  
너도 들었겠지  
온 인류를 격동시킨  
장군님의 로씨야원동지역방문소식

할 일이 많은 올해다  
나락은 들에 더욱 무거우리  
언제의 산악으로 지도는 달라 지리

총창의 숲우에 세월은 평화로이 흐르리  
컴퓨터건반은 강성대국 펼치리

너는 참으로 행복한 해로 되리  
온 남녘땅을 뒤흔든  
평양의 꽃응원단의 노래속에  
하늘가에 나뭇기던 공화국기가  
내리지 않을 세월로 너는 되리

이 나라의 모든 천만 길들은  
선군의 길로 열려 지고  
이 나라의 모든 마음들이  
원군으로 떨쳐 나선 길에  
너도 함께 흐르려니

하여 너의 한해를  
나는 총구로 내다보며 확신하나니  
총구 가득 비껴 오는  
강성대국건설의 힘찬 모습속에  
너는 영원히 남아 빛을 뿌리리

너의 그 하루하루를 빛내이시려  
우리 장군님 낮도 없이 밤도 없이  
백두의 축지법으로 온 나라를 돌보시는  
그 선군령도의 나날로 빛날  
너는 축복 받은 해, 행운의 해!

아 축복 받은 해, 행운의 해여  
너는 력사에 길이 남아 빛나리라  
선군으로 빛나고 원군으로 튼튼한  
총대의 총신강 돌기가 되고  
총대의 총가목 년륜이 되어 남아 빛나리

새해 2003년이여  
너와 우리 굳게 약속하자  
무궁세월의 영원한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안녕의 세월만이  
이 땅에 영원히 흐르게 하자!

## 장군님과 작가

어느해 1월 3일 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새해축하공연이 있었다.

그날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느 한 작가를 부르시었다. 그는 장군님의 부르심에 크나큰 걱정으로 울렁이는 마음을 안고 달려가 새해인사를 정중히 올리였다.

그러자 장군님께서 함께 있던 일군들에게 그가 바로 혁명영화 《조선의 별》을 쓴 작가동무라고 소개해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작가동무, 새해에도 좋은 작품을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시며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 주시었다.

과분한 치하와 고무에 몸둘바를 몰라 하는 그를 미덥게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그전에는 좋은 영화문학을 써내면서도 매년 영화주제가 가사는 다른 작가의 손을 빌려 하였다고, 그래서 이번에 쓴 혁명영화 《조선의 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작가가 직접 가사를 쓰는것이 좋겠다고 하였던니 작가동무는 본때 있는 가사를 썼다고,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 《동지애의 노래》는 생활이 있고 철학이 있고 정서가 있는 명가사이기때문에 부를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으시었다.

작가는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그가 몹시 어쭈어하자 그이께서는 몇해전에는 시라고는 읊을념도 못하던 작가동무가 어떻게 《동지애의 노래》같은 훌륭한 가사를 썼는지 정말 엉뚱하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시 아닌 시를 읊다가 중도에서 그만 둔 10년전의 일을 회고하시며 명가사를 써낸 그를 엉뚱하다는 유모아로 알려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작가는 그만 눈굽을 적시였다.

그의 격해 진 심정을 헤아리신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돌려 보시며 어떻게 그런 명가사를 쓸수 있었는지 작가동무의 경험담을 들어 보는것이 어떤가고 하시었다.

일군들모두가 기쁨을 금치 못하며 동의를 표시하였다. 그는 한동안 말머리를 찾지 못하였다. 순간 그는 《동지애의 노래》를 창작할 때의 격동된 심정에 또다시 사로잡히였다.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나 불우한 운명을 겪었던 자기를 혁명영화창작가로 키워 주시던 일, 엄중한 파오를 범할 때면 아픈 《매》도 드시고 보호자가 되시였고 명작을 창조하도록 이끌어 주시고도 공민의 최고영예도 다 안겨 주시던 장군님의 사랑이 가슴에 마쳐 왔다. 어느해 그가 외국출장중에 있을 때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의 안해를 위해 솟눈길도 헤치시고 벼랑도 뚫아 그 병에 좋

다는 산짐승을 잡으셨던 뜨거운 사랑, 혁명동지의 안해에게 그 귀한 약재를 미쳐 가져다 주지 못한 일군들을 꾸짖으시면서 어서 빨리 가져다 주라고 중요회의 마저 뒤로 미루게 하신 장군님.

그날 다시 회의를 여시고 옛날 속담에 팔백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산다고 했지만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혁명동지이다, 한가할 때는 처자이지만 어려울 때는 동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편안히 잘 살 때는 처자가 제일 살뜰한것 같지만 시련의 시기에 생사운명을 같이 할 사람은 혁명동지밖에 없는것이다라고 하시던 장군님의 그 말씀.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로 원고지에 달필로 써나가지 않았던가.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자꾸만 솟아 올랐다.

그는 가사창작에 달라붙어 막상 쓰자고 했을 때 항일혁명투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였기때문에 그때의 열혈청년들의 정신세계, 말하자면 혁명적수령관의 깊이를 알수 없는것이 제일 큰 고충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때 피땀 떠오르는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모시고 있으며 지도자동지와 우리들의 관계, 수령과 전사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동지들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 졌는가 하는것들이였습니다. 저는 특히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위대한 품모, 끝 없는 인간애와 동지애를 근 20년간 받아 안으며 지나온 력사의 갈피들을 더듬으면서 제가 직접 체험하였거나 보고 들은것들을 속속들이 파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옥같은 사실들을 1920년대와 30년대로 옮겨여 당시 우리 혁명의 첫 세대들이 한별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모실 때 바로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상상하면서 쓰니 저절로 흥분되고 열정이 솟아 <동지애의 노래>를 짧은 기간에 쓸수 있었습니다.》

장내에서 박수갈채가 일었다. 소박한 작가가 담담하게 하는 이야기였으나 자기의 심중을 그대로 터친것이였기때문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격해 지시여 박수를 쳐주시면서 말씀하시었다.

**《동무들,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작가를 축하합니다.》**

박수는 오래도록 계속되였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의 박수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새해 첫 아침에 우리 작가들을 영원한 당의 동행자로 믿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지애의 노래》로 혁명의 길을 끝까지 헤쳐 가시려는 우리 장군님과 작가들사이 오가는 심장의 언약이기도 하였다.

## 두번째 보고서

오광철

## 1

하늘이 높이 들리고 말이 살 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1950년 9월이었다.

무심한 자연은 전쟁의 하늘가에 아이들의 하얀 연을 불러 널만큼 유정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펼쳐 놓았다. 마을앞 느티나무아래 세운 조선지도에 점점 넓어져 가는 해방지역들을 빨간 기발로 표시하고난 산골마을아이들이 그 맑고 높으며 푸른 하늘에 끌려 끝내 연을 띄우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연이 높이 떠오른 산골마을 하늘가로 미군폭격기들이 떼 지어 날아 들었다.

미군은 9월 7일 하루만 해도 제2차세계대전시기 노르망디상륙작전에서 감행한 폭격이후 처음으로 되는 대폭격이라고 공공연히 떠들며 수많은 《B-29》 폭격기로 《주단식폭격》을 감행하였다.

놀란 어느 애의 손에서 놓여 난 하얀 연이 폭연이 그물거리는 하늘가로 너울너울 날아 갈 때도 사람들은 그 9월의 하늘밑에서 얼마나 준엄한 시련이 닥쳐 오고 있는가를 다 알지 못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

이 시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작전대 앞에 서계시었다.

지금 미제는 전 전선에 걸쳐 우리의 최고사령부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위한 이상하고도 광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서 량해안에 대한 미친듯 한 폭격과 함께 사방에서 허위기동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 병력들은 종적을 감추었다.

방금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적을 감추어 버린 미 제5해병사단의 행치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놈들이 인천알바다쪽에 있을수 있다는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원수들은 최고사령부의 작전지휘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 제놈들의 병력들을 배에 실어 공해상에까지 끌어 가고 있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조국앞에 더욱더 준엄한 시련이 닥쳐오고 있음을 판단하시었다.

미제는 두번에 걸쳐 《불하트계획》과 《크롭마이트계획》이라는 인천상륙작전안을 짜놓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인민군대의 드센 타격에 《스미스륙군대》와 미제24사단을 비롯한 침략군집단들이 련속 피멸되고 인민군대가 방어선들을 가차없이 짓몽개며 노도와 같이 진격하는 바람에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 갔다.

그런데도 지금 미제는 세번째로 되는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한 허위작전을 발광적으로 벌리고 있는것이였다. 미국과 그 추종국군대들이 조선반도로 쓸어들고 있다.

그것은 미구하여 닥쳐 올 준엄한 전국의 예고였다.

그 모든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즈음 참으로 분망하신 시간을 보내고 계시었다.

각 전선에서 수시로 변화되는 정황들이 그이께 보고되었고 분초를 다투는 새 전략전술적문제들이 그이의 결론을 기다렸다. 백전로장들인 유능한 군사지휘관들이 그이의 명령을 기다려 대기상태에 있었다.

바로 그러한 시각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방금전 서기가 망설이듯 들고 와 한쪽옆에 놓은 문건에 시선을 멈추시었다.

그것은 개성시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 드린 참으로 이례적인 내용의 보고서였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 있었다.

지금 개성시에서는 해주시의 해운인민학교 학생들이 소년선전대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그들의 선동과 예술공연은 개성시인민들속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그 소년선전대에 어른이나 교원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 아이들만의 대화를 조직하자고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제안자가 바로 개성시인민위원회 교육시학 림경찬이다. 스쳐 지날수 없는것은 림경찬이 이미 개성의 20여명의 학생들을 따로 모아 놓고 질문할 내용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 질문할 내용들은 대체로 아이들이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운 오묘하고 까다로운것들이며 지어는 적대적인 색깔도 농후한것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년선전대를 책임진 교원이나 아이들은 그러한것은 전혀 모르고있는 상태이다.

...

《림경찬.》

수령님께서서는 그 류다른 제안자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 보시었다. 그 순간 왜서인지 그 이름이 몹시 낯 익으신것만 같은 느낌이 드시었다.

분명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는 인물이지만 이름만은 어디선가 귀에 익히셨던 이름이다.

어디서였을까?

그이께서는 곰곰히 기억을 더듬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보고서에 눈길을 주시었다.

거기에는 림경찬의 경력과 동향자료들도 구체

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림정찬은 해방전 서울에서 고학을 하던 당시에 벌써 조선아동의 녀를 지켜 자기를 바치자고 결심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집안가산을 다 털어 아이들을 위한 신문과 잡지를 찍어 내는 출판사를 설립하고 아이들의 계몽과 교육에 힘 썼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여 일제에게 《불량지식인》이라는 요시찰인으로 등록되어 빈번히 감옥으로 끌려 가 폭행을 당하곤 하였다. 끝내는 모진 박해와 압력 끝에 출판사를 폐쇄 당하고 안해 마저 잃은 채 고향 개성으로 내려 왔으며 자기 집 울타리를 높이 쌓고 일체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개성시내에 《천상천하 가장 훌륭한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 주고 싶은 부모는 다 오라.》는 광고를 내고 찾아 오는 부모들에게 조선식의 훌륭한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개성 시내 많은 아동들의 이름이 그가 지어 준 이름이라고 한다.

일제의 《창씨개명》이 시퍼렇게 독을 쓰던 때 반항하듯 별린 이 이름짓기때문에 그는 곤욕도 많이 겪었다고 했다.

8.15후 미군정이 폐지자 그는 다시 교육계에 나섰으나 끝내는 남조선 정치체제에 침을 뱉고 다시 담 높은 옛집에 들어 앉았다고 했다.

그때 그는 진정한 교육이란 북이나 남이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그런 정치체제를 떠나야만이 가능한것이라고 하면서 정치밖의 그 어떤 《섬에서의 교육》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런 《섬》이 어디에 있느냐고, 나에게 그런 《섬》을 달라고 웨쳤다고 한다.

개성이 해방되고 새 인민정권이 수립될 때 우리 일군들이 다시 교육계에 나와 줄것을 요청했으나 그는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군들이 여러번 집을 방문하고 인민을 위해 다시 교육사업에 나서줄것을 호소하자 그 요청을 수락하고 인민위원회 교육시학의 직책을 받아 들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는 이런 류다르고도 심각한 대화를 제안해 온것이다.

보고서에는 그가 정치일반에 대한 항거정신이 체질화된 이지러진 인간이라는 평가가 주도적이며 따라서 그가 준비하는 대화를 단호히 중지시키고 그를 파면시키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고 써여 저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 서시여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였다.

정치에 대한 반항정신이 체질화된 이지러진 인간. 보고서에 써여 진 그 표현을 다시금 음미해 보시였다. 나에게 교육의 《섬》을 달라고 호소했다는 그 한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 떠오르시였다.

그러한 인간이 조직했다는 아이들만의 대화가 어떤 성격을 띠었는지 그이께서는 어렵지 않게

집착해 내실수 있으시였다.

그이의 시선이 자신의 결론을 기다리는 수많은 군사문건들에 가닿았다.

누가 누구를 하는 침예한 대결의 시기이다.

모든 사유와 론리가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의 편이라는 그것으로 일관되고 있다.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그것은 더더욱 준엄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새 제도에 대한 반항감을 표시하고 있는 그 인간의 속된 행위를 단호히 저지시키고 그 인간과 결별하는것은 그리 힘겨운 일이 아니며 또 지금의 준엄한 전쟁상황에서는 너무도 웅당한 일이다.

《림정찬.》

그이께서는 다시금 불러 보시였다. 그 순간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생각키우는것이 있으시여 그 자리에 멈춰 서시였다.

바로 그 순간에 수령님께서서는 림정찬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대하시던 때를 회억해 내신것이였다. 그것은 인민군대의 진격으로 서울이 해방되자마자 서대문형무소를 나서는 길로 수령님을 찾아왔던 남조선의 교육자 현정학을 만나시던 자리에 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곧 교육성에서 일하고 있는 현정학을 부르시였다. 키가 훗칠하고 얼굴이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50대 초엽의 교육자가 그이의 방에 들어 섰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마주 앉으시였다.

《현선생, 언젠가 나에게 림정찬이라는 한 친구에 대해서 말해 준적이 있었지요?》

《예.》

현정학은 대답 올렸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을 스쳐 가는 피로운 그림자를 수령님께서서는 보시였다.

그의 아픈 상처를 다시 헤집는것만 같으시여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을 못하시였다. 이윽고 개성시당에서 올린 그 보고서를 현정학의 앞으로 조용히 밀어 놓으시였다.

그 보고서를 읽어 내려 가는 현정학의 얼굴이 험상하게 굳어 저 갔다. 그 보고서를 끝까지 읽지 못한채 그는 얼굴을 들었다.

《장군님! 그는 정말 몸쓸 인간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얼굴을 마주 보시였다.

《세상에 그 사람처럼 남의 가슴을 잡아 뜯는 사람이 또 어데 있겠습니까?》

저도 그 사람때문에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겪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젠 장군님 정치하에서까지 감히 이런짓을...》

그는 격분의 덩어리를 힘들게 꿀꺽 삼켰다.

《언젠가두 말씀 드렸지만 전 전쟁전에 장군님을 찾아 북으로 오던 길에 그의 집에 들렀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라구 그를 장군님께 함께 데리고 오고 싶어 애 써 들렸댔는

데 오히려 날보고 후회하러 가는 길이라느입니다. 그래서 그와 대판 싸웠는데 그 집을 뛰쳐나와서 보니 놈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은 그가 밀고를 했다고 믿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시었다.

현정학은 잠시 대답을 못한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가 얼굴을 들었을 때 수령님께서는 피로움에 지친듯 한 그의 얼굴을 톡톡히 알아 보시었다.

《하나의 론리가 저를 괴롭힙니다. 전 인민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주신 장군님께 우리 남조선교육자들의 감사의 마음 담아 마련해 올리는 귀중품들을 지니고 있어서 저의 행적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직 북녘땅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개성땅이어서 제가 그만 마음을 놓고 내가 가는 통로를 립경찬에게만...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 진다구... 이 론리를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수 없는게 저의 비극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론리학의 범주를 빌면 그는 오랜 세월의 몸부림끝에 이제는 인간의 온정마저 메달라 버린 이지러진 인간이 돼버리고 만가 봅니다.》

수령님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도 못하시었다.

그러니 결국 오랜 지우도 그를 저버리고 만것이다. 친구가 자기를 밀고했으리라는 그 가슴 아픈 론리는 립경찬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질시와 소외감이 낳은 어쩔수 없는 감정이라.

그러나 이 순간 수령님께서도 그 론리를 부정 하실수 없는것이였다.

그렇다! 모든 론리는 그가 준비하는 대화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그야말로 담을 둘러 친 제집을 자기의 《섬》으로 여기고 거기서 살아야 마땅한 인간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무섭고도 가슴 아픈 론리였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론리였다. 누구인들 이 형편에서 그를 리해할수 있겠는가?

결국 그는 끝내 자기의 《섬》을 찾지 못한채 새 제도에 반항하는 인간으로 남게 될것이다.

그 순간 수령님께서는 진리를 찾아 피투성이가 되어 방황하고 있는 한 인간의 이지러진 넋을 보는듯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 서시여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구름 한점 없이 푸르른 남쪽하늘가를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그러자 문득 그 하늘가에 사랑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우뚝이 떠 오르더니 원무라도 하듯 하나로 어우러 지며 온 하늘가를 꽉 채운다.

《장군님!-》 하는 그 애되고 쟁쟁한 합창소리도 들리는듯 싶으시었다.

그 남쪽하늘밑에 가 있을 아이들의 모습이다.

북조선소년예술선전대로 남녘땅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그 아이들을 수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 해주시에서도 별로 크지 않은 학교인 해운 인민학교(소학교) 학생들의 공연을 수령님께서도

보셨던것이였다.

제2차 당대회를 경축하는 연회에서 이 학교 학생들은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하였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이 학교 학생들의 합창이 아주 멋있다고 치하해 주시고 그중 나이가 어린 한 학생 아이를 품에 안으신채 그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던것이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5년도 채 공부하지 못한 아이들이다. 아직은 제도와 사상의 첨예한 대결을 말로써도 글로써도 리해하지 못할 철 없는 동심들이다. 너무도 어린 아이들이다. 너무도...

《중지시켜야 합니다.》

문득 그이께서는 귀결에 올리는 이런 거친 목소리를 들으신듯 싶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부지중 주위를 둘러 보시었다.

누구의 목소리였을가? 현정학의 목소리였을가? 아니면 개성시당에서 보내온 저 보고서에서 올려 나오는 목소리였을가? 혹은 준엄한 전국을 예고하는 저 각종 군사문건들에서 느낀 엄혹한 정세의 요구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현정학의 온몸에서 그리고 방안에 서린 엄숙하고 긴박한 분위기에서 그이께 와닿는 무언의 론리였다.

하다면 중지시켜야 하는가?

그러나 다음순간 그이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 저으시었다.

진리가 매 인간들의 심장에 가닿는 길은 각이하다. 진정으로 우리의 혁명이 인민을 위한 혁명이라면 저 남녘땅에 결코 적다고는 할수 없는 립경찬과 같은 인간들의 운명을 쉽게 저버려서는 안된다. 혁명은 그 어느 때나 재판관과도 같은 엄정성으로만이 아니라 스승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하는것이다.

이것은 론리보다 강한 그이의 정과 애의 신조였다. 문득 뇌리에 아이들을 인솔하고 개성에 나갔던 올해 갓 스무살이라는 그 애어린 처녀교원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시었다.

그 처녀교원의 이름이 김현주라고 했던가?

어째서인지 지금 이 시각에 그 학교 교장으로 부터 처녀교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귀결에 익혔던 저주로운 일본말 한마디가 먼저 떠오르시었다.

《빈보니 나리마스.》

그것은 조선어로는 《가난뱅이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이다.

《가난뱅이가 되겠다.-》

그이께서는 가슴 아프게 되뇌여 보시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못 보고 자랐다는 그 유복녀가 홀어머니의 그 피땀에 젖은 품전으로 겨우 다니던 보통학교나마 쫓겨 나게 되던 날 했다는 말이다. 그때 소녀는 그렇게 악을 쓰며 공부하는 네 희망은 무엇인가고 묻는 일본인교원에게 바로 가난뱅이가 되겠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그 마치

막수업시간에 절규하듯 웨친 소녀의 말에 채찍질밖에 몰랐다는 일본인교원도 기가 질려 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너스레를 떨듯 이제 혹시 너희 집이 돈을 잘 벌어서 네가 중학교도 졸업할지 아느냐고, 그땐 어찌겠는가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 소녀는 그렇게 된다면 나는 월사금 안 받는다 선생님이 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배움에 주려 무엇을 저주해야 할지 몰라 하던 그 가엾은 소녀가 해방이 되어 정말 나라의 혜택으로 애들을 공부시키는 선생님이 되었다.

《김현주.》

그이께서는 조용히 불러 보시었다.

그러시자 어느덧 마음이 든든해 지는것을 느끼시었다.

오로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정으로 펼친 공화국의 정치하에서 그늘없이 배우며 자라난 아이들이고 교원이다. 그이께서는 북조선로동신문위원회의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토의하셨고 배낭 하나 메고 조국에 개선했신 어려운 나라살림에서도 교육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었다. 조건과 환경이 적합해서가 아니였고 앞뒤를 쟀 그 어떤 타산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오로지 낮 설은 남의 나라 땅에 가셔도 우물을 파고 학교부터 먼저 세우는 민족이라고 소문난 우리 인민들의 그 간절한 념원을 풀어 주고 싶으신 마음에서였다.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란 학문에서만 찾는 물리도 아니고 그 어떤 조건반사적인 평감이나 계산도 아니다.

이제 개성땅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교원은 우리 혁명의 현실 그대로를 펼쳐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하여 밝힐것이다.

그이께서는 현정학에게로 돌아 서시었다.

《현선생, 내 생각은 그가 제기하는 아이들만의 대화를 하도록 하자는겁니다.》

《예?!》

현정학은 놀라 그이를 우려했다.

《물고 싶은것, 알고 싶은것을 다 물어 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숨길것, 두려워 할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대가 너무 어린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난 그런 어린 학생들을 통해 우리는 진리의 목소리가 감화력, 공감력이 더 크리라 믿습니다.》

현정학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이를 우려했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어 보이시었다.

《장군님, 그럼 제가 개성으로 나가겠습니다. 가서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키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만류하시었다.

《대신 거기에 기자들을 보내도록 합시다.》

《예?!》

《내외의 신문기자들을 거기로 보내여 모든것을 공정하게 보고 평가하도록 합시다.》

커다란 충격속에 현정학은 굳어졌다. 자기와 같은 범속한 인간의 세계로서는 가닿을수도 리해

할수도 없는 그이의 세계가 놀랍기만 한것이였다.

그는 더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한채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수령님방을 나섰다.

그러나 가슴속에는 림경찬에 대한 불신의 얼음덩이와 함께 이제 개성땅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위구와 불안감이 그냥 웅크리고 있었다.

현정학을 보내고나서 그이께서는 다시 작전대 앞에 다가가시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 어마어마한 대병력과 함선들의 집단이며 종적없이 사라진 침략군집단의 행처며 하는것들이 종전처럼 잘 눈에 들어 오지 않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시각 자신의 심중에 세계가 우려하는 그 어마어마한 병력에 대한 생각보다도 림경찬이라는 한 인간을 지켜 주시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것을 똑똑히 느끼시었다.

그렇다! 그이께서는 지금 미제의 대규모 상륙작전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지켜 내셔야 하는 그 엄숙한 사명감의 구체적인 표현을 바로 림경찬이라는 한 인간을 지켜 주는데서 찾고계시는 것이었다.

수많은 림경찬과 같은 인간들의 가슴에 진리의 뜨거운 열을 안겨 주고 그 운명들을 민족을 위한 귀중하고 보람 있는 생으로 이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 혁명의 진리성이 더욱 명백해지며 우리의 승리도 더욱 필연적인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이께서는 작전도에 근엄한 시선을 보내시었다.

원썬들의 이 발악적인 공세를 기어이 짓부셔 버려야 한다. 그와 함께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림경찬이라는 한 인간의 운명도 기어이 구원해 주어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곧 해당 부문 일군을 부르시여 림경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더우기는 그가 정말 친구를 밀고한 내용이 있는가를 꼭 알아 보도록 하시었다. 개성과 서울에 사람을 보내서라도 꼭 알아 봐야 한다고 당부하시었다.

그로부터 이틀후 개성시에서는 일명 《아이들만의 대화》가 진행되였다.

그 대화의 제안자인 림경찬도 그리고 거기에 참가한 아이들과 김현주도 자기들의 이 자리가 수령님의 각별한 관심속에 있는 자리라는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 2

(서울의 ××신문사 기자의 취재록)

북과 남이라는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띤 더우기는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는 그 심원한 철리를 쫓은 북과 남 아이들만의 대화가 개성땅에서 진행되였다.



동심의 인터뷰! 이것은 제도와 제도의 인터뷰이고 교육과 교육의 인터뷰였다. 이에 대한 결론을 나 혼자 내림은 다분한 편견이라 하겠다.

하여 나는 여기에 《이런것에 대하여 함께 압시다.》하는 식의 북녘의 학생들의 말보다 《똑똑히 밝혀 주세요.》하는 식의 남녘의 학생들의 물음과 그에 대한 북녘의 학생들의 대답을 주로 적게 된다.

문: 조국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우리가 안겨 사는 품이라고 생각한다.

문: 그럼 너희들의 조국은 어딘가?

답: 우리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문: 그럼 우리 조국은 어딘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공부했다. 정치적개념을 떠난 지역의 개념을 조국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레하면 조선이 조국이라고.

이것은 순수한 동심의 물음이 아니라 그 무엇에 의하여 강요되고 준비된 물음이라는것이 명백해졌다. 북녘의 아이들이 술렁거렸다. 그러나 인차 한 아이가 일어 섰다.

답: 그럼 왜놈들이 우리 나라를 빼앗았을 때 태어나고 공부했으면 왜놈들의 나라가 우리 조국인가?

아이들을 둘러 싸고 있던 사람들의 감탄인지 비명인지 모를 탄성, 그 와중에 일어 난 북녘의 처녀 애의 대답이 또한 백지에 쓴 글 같다.

답: 우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는 물론 남쪽에 사는 너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도 선거표를 보내서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었다는걸 안다. 조선사람들이 다 손들어 세운 나라가 조국이다. 그런걸 너희들에게 다 알려 주지 않아서 모르는것 같다. 그러구 오늘 개성의 너희들이 하나의 조국에서 살지 못하게 하던 미국놈들이 쫓겨가 장군님품에 안겼다. 그러니 너희들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때 본 북녘의 처녀선생의 얼굴은 감탄하리만큼 아름다웠다. 그는 웃고 있었던것이다.

사실 그는 미인이었다. 다시 진행된 문답.

문: 너희들은 모두 조직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조직생활이 좋은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품이 더 좋은가?

답: 아버지, 어머니품이 더 좋다.

여불없이 솔직한 북녘학생들의 대답이지만 둘러 선 사람들의 얼굴빛은 긴장하다. 만약 조직생활이 더 좋다고 했으면 그 얼굴빛들은 어떠했을까?

문: 그럼 강요에 의하여 조직생활을 하는가?

답: 아니다. 우린 지금 모두 배우는 학생들이다.

왜 배우는가 하면 내 나라의 쓸모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다. 우린 모두 《어머니 젖 오래 먹는 아이 인재가 못된다.》하고 말한다.

인재가 되자면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우린 조직생활을 통해 지식도 배우고 로동도 배우고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사회활동도 배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가 소년단조직에 들어 연설도 고 파철수집도 하는걸 보면 대견해서 더 사랑해 주신다.

인사도 소년단인사를 하여야 더 대견해하신다. 조직생활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날 사랑해 주시고 나라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걸 더 잘 알았다.

얼마나 훌륭한 대답인가? 그런데 문득 개성의 한 아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방금 대답한 북녘아이에게 슬그머니 《조직이라는게 뭐니?》하고 묻는 바람에 아이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같은 나이건만 사물과 사회를 대하는 그 안목과 지적능력의 차이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다. 북녘의 아이들이 조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무어 주신 자기들의 소년단조직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말해준다. 남녘의 아이들의 얼굴에 부러운 빛이 흘렀다. 개성시의 명망 있는 교육자라는 림경찬교육시학의 얼굴에 피로움인지 불안인지 알수 없는 어두운것이 스친다.

문: 여기 개성에는 스스로 왔는가 누가 보냈는가?

답: 우리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서 왔다.

문: **김일성**장군님을 아는가?

답: 안다. 우리 학생들모두가 **김일성**장군님을 다 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 우리만이 아니라 조선의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남녘땅사람들이 물이 없어 고생할 때 북반부 저수지물도 보내주시고 전기도 보내주셨다. 땅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다 아시고 여기에도 토지개혁 실시해 주셨다. 우리는 장군님의 품에 함께 안긴 기쁨을 같이 나누자고 여기로 온 것이다.

문: 모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솔직하게 말해 줄수 있는가?

한 아이씩 차례로 일어 나 자기 아버지, 어머

니의 직업을 말해 주자 앉지도 않고 대답을 기다리고 섰던 그 아이는 다시 물었다.

문: 정말 아버지가 상점을 운영하는가? 어머니가 음식점을 한다는게 사실인가?

생각하면 우습기 짝이 없는 물음이다. 아마도 북조선에서 개인상공업을 탄압한다는 그 악선전의 확인일것이다.

개성은 오랜 상업도시로서 장사꾼이나 개인상공업자들이 다수를 이룬다. 그들의 최대관심사는 공화국이 자기들을 수탈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다.

결국 이 자리는 아이들만의 자리가 아니라 악선전에 속아 공화국의 정치를 반신반의하는 그 사람들의 의문과 불신의 자리였다.

북녘의 학생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상점과 음식점의 위치와 꾸밈새까지 말해 주며 놀러 오라고들 한다.

바로 그런 속에서 또 튀어 나온 묻는것인지 질책하는것인지 모를 개성시학생의 물음.

문: 너희들은 왜 그렇게 도덕이 없는가?

답: 무엇을 보고 그러는가?

문: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그랬는데 왜 남녀가 그렇게 떼절없이 섞이어 웃고 떠들고 손잡고 하는가?

웃지 못할 일이다. 고루한 유교관념이 집요하게 남아 있는 남조선의 교육실태-어린 남녀도 엄격히 사이 두고 앉은 그 앉음새.

대답은-문득 한 아이가 책상을 후닥닥 뛰어 넘어 남녘아이들과 북녘아이들사이에 난 공간에 나선다. 떼절이 없다는 편잔인데 이 무슨 행동인가? 그러나 소년은 자기 동무들 쪽으로 돌아 서더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자 자그마한 소녀애 하나가 《예,》하며 책상밑을 살짝 빠져 나온다. 와하는 웃음.

《나하고 춤을 추자. 다른 동무들은 합창 <꼭꼭 숨어라>》

소년과 소녀의 즐거운 율무, 처음에는 의아하고 어리둥절했던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다. 춤을 다 추고나서 남녘아이들앞에 가 서로의 손을 활짝 펴보인다. 이것이 대답.

《아무리 손 잡고 춤을 춰도 우리 손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깨끗해. 우린 공부 두시간이 끝나면 꼭꼭 전축을 틀어 놓고 춤을 추거든.

남녀칠세부동석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하구 여자하구 마주 서지도 못하게 하는건 봉건이야. 그래서 우리 나라엔 남녀평등권법이 있거든.》

그 천진한 동심의 토로에 누군들 웃음을 머금지 않겠나? 고슴도치 털마냥 곤두섰던 남녘아이들의 긴장과 경계심도 한결 풀리는 감. 깎아 세

운 인형 같던 자세들을 허물고 제 마음 내키는대로 불쑥 불쑥 묻는다.

선생님이 때리지 않는가? 월사금은 얼마나 내는가? 안낸다면 대신 일이라도 좀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지어는 수학공식까지...

마감무렵 개성의 한 소년이 불쑥 묻는 말.

우리도 소년단조직에 들수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소년단넥타이와 휘장을 달라고 하면 줄수 있는가?

당장 주겠다고 하기 어려운 일이고 못 준다고도 할수 없는 일이라 사람들마저 조용해 졌다. 그러나 그것은 어른들의 생각일따름이고 아이들의 생각은 너무도 명백하고 단순했다.

《우리는 아무나 들어 가고 싶을 때 소년단에 입단하는게 아니라 소년단기발앞에서 장군님과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고 입단하거든. 그땐 간부 선생님들과 형님누나들이 박수랑 치며 축하해 줘.》

다른 한 아이의 대답.

《우린 입단할 때 꽃대문을 열한개나 강당에 세우고 다 모여 와서 축하를 하는데 여긴 어디 꽃대문이 있니? 피아노도 꽃보라도 없지 않니. 그러니 안돼.》

그제야 자기들이 아이라는것을 깨달은듯 남녘의 아이들은 다투어 소년단입단을 청원하였다.

《그럼 우린 언제 소년단에 들수 있니?》

《이제 우리처럼 소년단에 입단할수 있어.》

《고마워. 꼭 도와 줘.》

《너희들이 돌아 갈 때 우리도 함께 가서 소년단에 입단하면 좋겠어.》

《너희 선생님에게 그렇게 부탁 드려 봐.》

이 청원열기로 아이들의 대화는 끝났다.

이 모임을 조직한 사람들의 초기의도는 어떤것이였는지 모르겠으나 오늘의 이 모임이 명백히 편견과 오해, 모순에 찬 남조선사람들의 심장에 밝은 해빛이 비쳐 들어 오는 첫 파열구를 냈다는 것만은 명백하다. 그런 면에서 북녘의 아이들도 남녘의 아이들도 다 고맙고 사랑스러운 오늘이였다.

그런데 이 일을 어이하랴? 내가 북녘의 아이들과 선생을 찾아 그들의 숙소로 갔을 때 나를 맞이한것은 아이들의 가슴 찢는듯 한 울음소리였다.

《우리 선생님이 총에 맞았어요.》

나를 붙들고 왕왕 우는 어린 아이들, 방안에 점점한 피자욱, 머리속에 처참한 환영이 날아 지나 갔다.

아! 누가 쏘았는가? 그 아름다운 처녀, 순진하고 깨끗하며 재능 있는 교원을 향해...

사연은 이러했다. 아이들이 방에 들어 서는 순간 밖에 숨어 있던 정체 모를 피한이 아이들방에 다 대고 자동총사격을 가했다. 그때 그 탄우속에서 아이들을 막아나섰던 처녀교원이 그만 왼쪽

팔에 부상을 당했다.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가.

병원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모여와있었다. 그속에는 침통한 얼굴의 림경찬교육시학도 보였다.

아! 가슴 아픈 마당이였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호수동녀자중학교에서 진행되는 개성시 교육자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북녘 아이들의 공연의 막이 올랐을 때 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피아노앞에 앉아 있는 그 북녘의 처녀교원을 본것이었다.

그 처녀교원이 부상 당하여 호수동녀고중 음악 선생이 대신 피아노연주를 한다고 모두들 알고있었다. 그 선생의 피아노 솜씨가 그리 능하지 못하여 더우기는 북녘의 아이들이 그 반주에 맞추기 서먹해 한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퍼졌다.

그러나 공연시간이 되자 그 처녀선생의 손끝에서 피아노는 어느 때처럼 장중하고 힘 있는 선율을 울렸고 아이들의 합창소리도 우렁차게 터져올랐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였다.

사람들은 그때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타는 처녀 선생의 팔목에 붕대가 감겨 있으며 얼마후에는 그 붕대를 슬배여 나온 피가 옷자락을 물 들이고 피아노건반까지 점점이 물 들이는것을 톡톡히 보았다.

아이들도 울며 노래를 부르고 개성시민들도 울었다.

《우리의 <**김일성**장군의 노래>에 자그마한 흠이라도 같가 봐 무서웠어요. 그이를 노래하는 선율에 그이를 노래하는 아이들의 얼굴에 열렬하고 숭고한 감정만을 실지 못한다면 민족이 날 욕할거예요.》

그 처녀교원의 말이였다.

그는 당년 스무살이였다.

아! 진리의 모습, 진리는 이렇듯 **김일성**장군 그분의 존함과 그분의 노래로 매 인간에게 와 닿고 있다.

###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금 현정학을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못내 기쁘시였다.

현정학이 도착하자 수령님께서서는 손수 문가까지 나가 그를 마중하셨고 친절히 자리를 권하시였다.

《현선생, 한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리고 싶어 불렀습니다.》

《예?!》

현정학은 수령님을 우려했다.

개성에서 무슨 소식이 온것일까? 그는 지금 이

생각뿐이였다.

《우리가 알아 본데 의하면 현선생을 밀고한것은 림경찬이 아닙니다.》

《예?!》

《그때 북에 보낼 귀중품을 마련하던 한 선생의 우연한 실수로 놈들은 사전에 현선생이 북으로 간다는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을 서울서부터 뒤따랐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당 경로를 통하여 입수한 놈들의 당시 문건에서 확인된 자료입니다.》

그이께서는 한통의 알팍한 문건을 현정학의 앞으로 밀어 놓으시였다. 그것을 읽어 본 현정학의 가슴은 뜨거웠다.

(그러니 장군님께서 이 문제때문에?!...)

《인간을 믿을수 있다는것이 얼마나 기쁜일입니까? 현선생, 사실 우리가 믿었던 그대로였습니다. 우리에게 현선생과 림경찬선생의 우정을 다시금 이을수 있는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개성시당위원회에서 수령님께 올린 한통의 보고서를 현정학의 앞으로 밀어 주시였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써여져 있었다.

며칠전 림경찬이 개성시당위원회로 찾아 왔다.

그때 그는 자기가 조직했던 아이들만의 대화자기 같은 인간에게 인생보람의 새길을 준 고마운 품을 욕되게 한 치졸하고 속된 행위였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때 묻지 않은 동심을 통해 공화국의 정치실태, 교육실태를 해부해 보자는 생각이 었다고, 그러나 이제 자기가 조직하는 그 대화자 필경 중지 당하거나 혹은 진행된 다음 무서운 보복을 당하리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오히려 그 자리에 기자들까지 보내셨다는것을 알았을 때 그의 놀라움은 참으로 컸다. 그러나 북녘의 아이들과 처녀교원의 모습에서 장군님의 그 확신, 그 믿음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를 톡톡히 알았으며 가장할수도 꾸며 낼수도 없는 진리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그는 자기는 이제야 비로소 한생을 찾고 찾던 자기의 《섬》을 찾았다고, **김일성**장군님 정치야말로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위인도 주지 못한 자기 삶의 《섬》이고 우리 민족번영의 참된 《오아시스》이라고 진정을 담아 이야기 했다고 한다.

《태양에 샅대질한 어리석은 인간이지마는 메말랐던 이 가슴의 <섬>에도 샘이 솟구 초목이 자라기 시작하며... 어린 새들두 날아 들기 시작한다구 장군님께 꼭 말씀 드려 주십시오.》

림경찬이 눈물이 구렁하여 했다는 말이다.

...

《장군님!》

현정학은 뜨거워진 가슴으로 수령님을 우려했다.

《이젠 우리 림경찬이두... 사람답게 살 길을 찾았습니다. 담 높이 친 제 집에서 무엇때문에 피

로운지도 잘 모르면서 몸부림만 치던 그 생활을 끝장내구 이젠 이 넓구 시원한 하늘아래 머리 쳐들구 태양을 마음껏 보면서 활보하게 됐습니다. 장군님!》

그는 수령님을 우러러 목 메어 부르짖었다.

수령님께서도 환하게 웃으시었다. 그것은 미소였다기보다 빛이었다. 거대한 광원이 그이의 심중에서 빛을 뿜어 온몸이 해살에 싸여 빛을 내는 듯 한 그런 미소였다.

참으로 기쁘신듯 그렇게 만시름을 놓으시고 웃으시는 그이를 보는 순간 현정학은 불쑥 눈가에 펴고 서려 도는 뜨거운것을 어쩔수 없었다.

《사람두… 참! 세상리치를 다 쟁겨 넣었다는 그 머리루 지지리 계속 남의 속 다 태우구야… 50이 훨씬 지나서… 장군님! 진리의 길을 찾기는 이렇게두 힘든겁니까?》

그는 눈물이 빙빙한채 웃었다.

《그래서 <조문도석사가>라는 고사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이진 진리가 귀중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보다는 찾기 또한 어렵다는 의미일겁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선 한번도 만나보시지 못한 그를 한순간에 진리의 길로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한생토록 방황하구 반항하다 끝날번 한 그 인생을 …장군님! 전 이 비결을 알고 전하고 싶습니다.》

수령님께서선 잠시 말쑥이 없으시었다.

이윽고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스다듬으시는듯 한 그 미소를 지으신채 말씀하시었다.

《현선생의 말을 듣고보니 언젠가 내가 본 의인화된 이런 글이 떠오릅니다.》

《?!》

《어느 날 옛이야기가 길을 가다가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 옛이야기의 눈으로 본 진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진리가 온통 상처투성이였습니다. 때로는 진리가 오히려 당하고 랭대도 받다나니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된겁니다. 그래서 옛이야기는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다니자.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옛이야기와 진리가 함께 다니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겁니다. 허공에 뜬감이 없지 않으나 뭔가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신채 현정학을 마주 보시었다.

《진리가 인간들에게 사랑으로 정으로 감수되지 못한다면 그 양상한 론리가 누구에게 통하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것이 가장 순

결하고 뜨겁게 끓는 곳에 만사람을 공감시키는 진리가였습니다. 나는 고전이나 리론으로 혁명을 하는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믿음으로 혁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나를 믿습니다. 이 혈연의 룰리가 우리의 진리입니다.》

《장군님!》

현정학은 목 메어 그이를 우러렀다.

《지금 맥아더가 술한 병력을 끌고 인천상륙작전을 벌리려 합니다. 우린 이제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이의 안광에 근엄한 빛이 흘렀다.

《예?!》

현정학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 섰다.

그럼 그토록 엄혹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도 죄 많고 보잘것 없는 한 인간때문에 그토록 마음 쓰셨단 말인가?

《하지만 난 믿습니다. 미국놈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우린 기어이 승리할겁니다. 우리 혁명의 진리를 부정할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현정학은 넋없이 그이를 우러렀다. 그이의 그 목소리가 마치도 하늘에서 우렁우렁 들려오는듯 싶었고 그분께서 그 하늘 아득한 높이에 거인으로 서 계시는듯 싶었다.

아! 하늘이 낸분, 그렇게밖에는 더 표현하지 못할 지이의 저 위대한 세계.

현정학은 뜨거운 가슴으로 그이를 우러렀다.

《현선생, 난 현정학선생과 림정찬선생에게 한가지 어렵고도 중요한 과업을 맡기자고 합니다.》

《?!》

《난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의 교육을 보다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자고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교과서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동심에도 맞으며 인민대중을 위한 우리의 혁명에 절실히 필요한 내용과 형식의 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이 새 교과서 편찬사업을 맡아 주었으면 합니다. 필요한 모든 대책을 다 세워 주겠습니다.》

한 없는 격정으로 현정학은 몸을 떨었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 오늘 비록 전략적으로 일시적인 후퇴를 한다고 해도 승리는 확정적이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혁명의 진리성과 승리를 굳게 확신하시는 우리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거창한 산악을 안은듯 든든해 지는 마음으로 현정학은 그이를 우러렀다.

미제의 대규모적인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기 바로 이틀전이었다.…

## 추억에 남는 시

## 조선

정서춘

너의 가슴엔 칼날이 꽃혀 있었고  
너의 몸에선 더운 피가 흘러 내렸다  
해도 달도 별도 뜨지 않고  
철이 되어도 꽃은 피지 않았다

숨 막히던 삼천리강산  
반만년력사에서 가장 암담하던  
그 수난의 날에  
조선아 너는  
위대한 아들을 세상에 낳았다

설한풍 사나운 밤이면  
가난한 아래목에 잠을 재우며  
가물거리는 등잔밑에서  
구슬픈 조선의 노래를 너는 불렀다

열네살에 아들은 집을 떠나  
두렵게 얼어 붙은 압록강을 건넜다  
너무도 일찌기, 빼앗긴 조국의 아픔을 안고...  
그때 너는 두컬레의 짙신을 보집에 싸며  
피 같은 눈물로 아들의 손등을 적시었다

그 손에 무거운 총을 쥐고  
그 짙신에 든든히 감발을 하고  
세상에 아직 그 누구도 걸어 보지 않은  
하늘땅 울부짖는 만고의 밀림속으로  
장군님께서서는 대렬을 이끌고 걸어 가셨다

쓰러지며 부축하며 다시 일어 서  
바위돌에 칼을 갈아 날을 세워  
원쑤의 정수리에 번개를 칠 때  
조선아, 너의 심장엔 피가 뛰었고  
너의 머리우엔 려명이 비껴 왔다  
  
너의 땅밑엔 생명의 씨앗이 자랐고  
너의 모든 강줄기와 사나운 여울물은  
두터운 얼음장을 깨뜨리며 들부시며  
광광 바다를 향해 도도히 굽이쳐 흘렀다

아, 너는 뜨거운 눈물을 씻으며  
장강을 건너 다시 돌아 온 아들을 맞이했거니  
오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러 보는  
가장 영광스러운 땅에  
너는 솟아 있구나, 금빛웃자락 너울거리며

조선아, 자유의 강산아  
준엄한 수난을 겪던 암담하던 그날  
가난한 초가집 낮은 지붕아래  
네가 낳은 위대한 아들은  
폭풍을 안고 백두령봉에 거연히 서서  
밝은 해와 아름다운 별을 너의 머리우에 얹어  
주었다

(1965)

## 우리의 행복을 두고...

리정옥

새해를 맞을 때마다 나의 가슴속에는 느닷없이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있다. 날이 갈수록 덧쌓여 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심장깊이 미쳐오는 하나의 생각...

불바다를 이룬 거리의 밤풍경도 때 맞추어 내린 흰 눈도 나의 이 생각을 더해 주는듯 하다. 주단처럼 포근히 깔린 흰 눈을 가벼이 밟으며 거리를 걷느라니 어쩐지 마음이 서슴어 지며 선뜻 걸음이 옮겨 지지 않는다.

어디를 둘러 보나 소담하게 눈이 쌓였다.

흰 눈, 흰 눈... 역시 눈이 있어야 설맛이 나는 것이다.

이제 시간이 흐르느라 설을 장식했던 이 눈도 녹아 없어 지리라.

허나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생각은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도 녹지도 바람에 날려 가지도 않는다. 오히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심장속에 더욱 굳건히 자리를 잡는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저녁 나에게는 아버지께 대한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이었다. 그때 나의 습작학습장을 들쳐 보던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얘야, 의미가 큰 말들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런 말은 쉽게 하는것이 아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하는 말의 뜻을 다는 리해하지 못하였다. 하기는 그 말 뜻을 다 리해하기에는 나이가 너무도 어렸었다.

평소에 우리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과묵했다. 자식들 일에 일일이 간참하는 성미가 아니였고 자식들의 장래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훈시하지 않았다. 다만 제자신이 자기가 갈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끝까지 가기를 바랐을뿐이었다.

그때로 말하면 내가 한창 문학에 미쳐 있던 때인지라 잠만 있으면 학습장을 펼쳐 놓고 무엇이든 쓰고 또 쓰던 때였다.

사회현상에 갓 눈 뜨기 시작하고 희망과 포부로 한창 고무풍선마냥 부풀어 있던 철부지 문학소녀시절, 그 시절 나의 학습장에는 행복이 어떻고 리상이 어떻다는 현란한 말들이 가득 올라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무엇을 보고 하는 말인지 알수 없어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다.

아버지는 나의 학습장을 굽다란 손가락으로 툭

툭 두드리며 한대목을 꼬집었다.

《레하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말이다. 이 말은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쓸수 있는 말이 아니다.》

《?!...》

나의 마음속에는 더더욱 의문이 서려 올랐다. 행복한것을 행복하다고 표현했는데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행복》이라는 말이야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흔한 말이 아닌가. 누구나가 쓰는 말이고 어느 때나 들을수 있는 너무도 친숙하고 익숙된 우리의 말...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뒤집을 지고 창밖만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행복이라, 행복하단 말이지...》

아니... 그 말은 그렇게 쉽게 쓸수 있는 말이 아니다. 자기자신의 체험이 안받침될 때에만 그 말이 진실하게 들릴수 있는거란다.

너도 이제 한생을 살아 가느라면 이 아버지의 말을 리해하게 될거다.》

아버지는 이 말로 딸과의 대화를 끝내버렸다.

한생!... 길기도 했다. 한생이라는것이 얼마나 까마득하고 멀게만 느껴 지던지, 나에게는 그 한생이 나와 전혀 인연이 없는것처럼 생각되었다.

혹시 그때 아버지는 이 딸에게 무슨 말인가 더 하려고 했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오직 행복박에 모르는 행복동으로 희망의 문어구에 들어 서고 있었다.

철 없을 때의 일이지만 나의 머리속에는 그때의 일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표정이며 자세까지도... 앞으로 작가가 되려는 내편의 욕망이 그때의 일을 새겨 두게 했는지.

세월이 흘렀다. 나도 이제는 남편과 아이를 가진 한가정의 주부가 되었다. 저녁마다 집에 들어 서면 서투르게 부르는 아이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즐거워 하고 두번 세번 《재청》해 들어도 본다. 그리고는 나에게 차려진 가정의 행복과 요람속에 꼭 잠겨 래일의 일, 래일의 행복을 꿈 꾸기도 한다.

나는 나를 둘러 싸고 있는 이 모든것, 마음의 안정을 주는 이 생활속에서 때때로 아버지가 하던 말을 생각해 보곤 한다.

과연 아버지는 그때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가. 아버지가 말하고자 한 《행복》이란 과연 어떤것이였으며 그 근처에는 무엇이 놓여 있었



을가. 내 나름의 생각이 여기저기로 아지를 치기 시작 한다.

행복이란 별다른것이겠는가. 바로 이것이 아닐가. 포근히 안아 주는 품이 있고 불안과 동요를 모르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이 마음...

나는 책상우에 놓인 한 소녀의 일기를 또다시 펼쳐 들었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 살았으면 세계를 놀래울 대작가가 되었을지도 모를 열다섯살의 어린 소녀가 전쟁의 참화에 묻혀 아까운 생을 무참히 잃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을 바라며 산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희망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꿈을 받아 줄 품이 없었다. 그 꿈을 실현시켜 주고 지켜 줄 조국이 없었다. 소녀는 결국 행복에 대한 소박하고도 열렬한 갈망을 창틈으로 내다보이는 한조각의 하늘, 허공중에 뿌려 던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믿을데가 있다는것,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모두 맡기고 살 크나큰 품이 있는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행복이 아니겠는가.

행복이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다. 행복이란 느끼는것이다. 하다면...

사람은 물질적욕구의 만족만으로는 결코 행복을 느낄수 없다. 보다 큰것, 정신적인 마음의 기둥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되는것이다. 더더욱 깊어만 지는 나의 생각...

돌이켜 보면 지나온 한해는 우리의 행복을 꽃피우시고 지켜 주시기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쳐 오신 크나큰 헌신과 로고의 한해였다.

끊임없이 이어 지는 현지지도의 길, 평안북도 와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그뿐이라. 고

지의 병사들을 찾아 쉬임없이 달리고 달리신 길은 또 얼마였던가. 7천여리 로씨야 원동지역에 대한 방문의 길...

수천수만리 그 길에 깃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를 생각하면 절로 눈굽이 뜨거워 지고 가슴이 젖어 든다.

순간의 휴식도 모르시는 그 길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이 마련된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순간순간의 행복, 그 행복을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혹시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가.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행복을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것을, 량심으로 우리 장군님을 받들어야 한다는것을...

나는 오늘만이 아닌 래일의 미래가 그대로 비껴 있는 수도의 거리를 오래도록 거닐었다. 밤이 깊을수록 더 휘황한 빛을 뿌리는 설맞이장식등들...

눈이 밝힌다. 포근한 그 촉감...

앞서 걸던 젊은 청춘남녀가 웃음을 터친다.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모르긴 해도 그 웃음은 분명 오늘의 행복과 래일의 희망,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오르는 우리 생활에 대한 만족과 긍지로 하여 터치는 웃음이라.

어찌 알랴. 그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며 새해의 결의를 다지고 있는지...

하얀 눈이 푸르스름한 가로등불빛아래 더욱 눈부시게 안겨 들었다.

나는 또다시 아버지가 하던 말을 되새겨 본다...

## 수령님 추억속에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경대를 떠나 열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는 포평에 도착하였다. 나는 나루터에 다달은 다음에도 인차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둑에서 서성거리였다. 팔도구로 건너가자니 지나온 조국산천이 자꾸만 발목을 잡아 당기였다.

내가 고향을 떠날 때 사립문밖까지 따라나오면서 내 손을 쏙어 주고 옷깃을 여며 주고 눈보라를 걱정에 주며 눈물 짓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떠 올라 발걸음을 옮길수가 없었다. 이제 뚝을 넘고 강만 건지면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나와 견디지 못할것 같았다.

찬바람이 불어 대는 두 나라지경에서 신음하는 조국산천을 돌아보니 사랑하는 고향으로, 고향집으로 다시 달려 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 설날의 축복

리동후

어서 가자  
푸름히 새날의 려명이 비껴 오는  
새해에도 이른 새벽  
안해와 나란히 집문을 나서니  
춤 추며 반기며 하냥 즐거이  
함박눈 송이송이 속삭이며 내리누나  
환희로운 이 마음을 축복해  
애뜻한 정을 담아  
머리우에 어깨우에 꽃보라로 내리누나  
청신한 대기를 한껏 들이키니  
가슴은 메여 질듯 이리히도 상쾌한가  
기쁨에 싸인 온몸에 젊음은 되살아  
활기찬 발걸음도 나는듯 가벼워라  
포근히 내리는 눈발사이로  
은빛해살 아롱지는 하늘층천 어데선가  
풍만하고 아름다운 행복이  
나를 향해 마주 오는듯  
걸을수록 어깨는 으쓱거리고  
걸을수록 가슴은 더더욱 끓어 솟아  
생각도 깊어 저라 할 일도 많은 이해  
붓대를 총창인양 버려 천 기수  
당의 동행자 미더운 나의 벗들아  
랑만과 사색으로 시상을 가다듬고  
또 얼마나 명작의 구슬깨미로  
이채롭게 화원을 꽃 피워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것이나  
경사로운 7월의 축전장으로 들어 서는  
전승의 이해에는...  
아무렴 달아 오른 흥분을 어이 식히랴  
간밤에 축배를 높이 들며  
우리 서로 다짐한 그 열정 그대로  
가슴은 하나같이  
불 같은 신심과 락관에 차넘치나니  
아름답고 황홀한 환상의 세계에도  
온몸이 동등- 떠실려 가는듯  
벽차오르는 이 가슴을 격동으로 휘저어 놓아라

×

잘 가라  
구내길 향해 가는  
다정한 안해를 바래우며  
내 발걸음 절로 빨라 지는데  
등뒤에서 서로 찾고 부르는 목소리들  
반가이 설인사를 주고 받으며  
떠들썩 련달렸구나  
새해 새 진군길에 앞을 다투며  
신심 드높이 기세찬 발걸음 발걸음  
열정에 넘친 그대들 이야기에서  
나의 눈앞엔 벌써 안겨 왔네  
장군님 선군의 길 새겨 가시는 이해에도  
이 땅 이르는 곳마다  
웅장화려한 창조의 기념비들

또 얼마나 높이 솟아 빛날것이나  
나는 본다  
저 우람한 제철기지 지붕아래  
황황- 불노을 타오르는 쇠물의 화광  
눈뿌리 아슬한 저 쌍굴쪽에  
동력전사들의 후더운 숨결인양  
늑실늑실 타래쳐 오르는 흰 연기  
산촌의 푸릿한 새벽  
간밤 어느 간이역을 떠났으리  
흰 눈 덮인 원목과 철강재 가득히  
밤새도록 꼬리 긴 차량들을 끌고  
이 아침 역구내에 들어 서는 기적소리  
얼마나 정다운 노래처럼 들려 오는가  
생각하면 지난 날의 모진 역경을 헤쳐  
락원의 행군길에 들어 섰기에  
우리의 삶은 갑절로 빛나고  
우리의 피땀으로 가꾼 행복이여서  
미국놈들의 오만한 압력과 대결앞에서  
조선사람의 기질과 의지를  
세상에 당할자 없음을 보여 주었나니  
오,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치른  
준엄한 《전쟁》이 아니었던가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가다듬고  
결사전을 벌려 온 승리한 인민이기에  
어제처럼 또다시 새해에도  
강성번영 하는 새 모습으로  
태양조선의 기상을 우주만리에 빛내가려니  
위대하고 숭고한 그 위업  
영웅서사시로 노래 불러 길이 전할  
시인의 사명감은 무겁고도 영예로워  
이러히도 뜨겁게 부풀어 오르는 걱정이어

×

하많은 사연을 안고  
못 잊을 추억을 불러  
하염없이 내리고 내리는  
흰 눈꽃 송이송이  
우리 장군님 걷고 걸으신 선군의 길  
칼벼랑 아슬한 산정의 초소에  
먼 북방의 험한 령 굽이굽이  
공장의 구내길과 농장의 포전길우에  
두만강 건너 머나먼 로정우에  
성스러운 자욱 새겨 진 모든 곳에  
꽃잎처럼 뿌려 주는 뜨거운 눈송이  
출근길에 오른 인민의 마음속에  
그리움은 더욱 간절해  
금수산기념궁전 총계를 내리시여  
설날의 첫 새벽 내짚으신 걸음으로  
지금은 어디에 계시려나  
따라 서고 따라 서는 우리의 마음이어  
찬 바람 찬 눈을 다 맞으시며  
가시는 곳 이르는 고장마다

인민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것이  
 나의 필생의 좌우명이라고  
 뜨겁게 이르신 심중의 깊은 뜻  
 언제면 우리 그 언제면 다 헤아리라  
 선군의 길 그 자욱자욱우에  
 락원의 봄 행복의 봄이 오고  
 예지로운 지략과 령도의 손길아래  
 무적필승의 강군이 자라고  
 이 땅은 불패의 성새로 더 높이 솟아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을 세기우에 떨치려니  
 한 없는 공지와 자부로 가슴 벅찬  
 새해 첫 출근길의 아침  
 선군의 길우에 펼쳐 주신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을 안고  
 우리 가리라, 순간도 지체없이  
 천만의 발걸음 하나같이  
 붉은기를 진두에 휘날리며  
 하나의 지향으로 굽이치는 진군길우에  
 격랑처럼 굽이치는 도도한 대하여  
 가슴은 한없이 설레이여라

장군님 다녀 가신 영광의 일터마다  
 감격과 격동으로 목 메이는  
 위대한 사랑의 전설들이  
 또 얼마나 아름답게 꽃 피여  
 조국땅에 수 놓아 질것이나  
 인민을 하늘처럼 믿으시고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 주시려  
 불철주야 바치시는 장군님의 로고  
 생각할수록 눈시울 젖어 들어  
 죄스러움이 갈마드는 이 마음  
 오로지 변심 없을 내 한생의 운명  
 장군님 옹위하는 한길에서 빛내이리니  
 강성대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통일조국의 밝은 전망 열어 주신 그 위업  
 세계자주위업의 승리를 밝혀 주시는  
 장군님 안녕 위해  
 송이송이 흰 눈꽃 설경을 펼쳐 안고  
 축복의 꽃보라로 내려 다오  
 인민의 다함 없는 소원을 담아  
 인류의 진정 넘친 축원을 담아

## 보름달이 왔소

김정철

하늘나라 계수나무 동산에서  
 이해도 잊지 않고 우릴 찾아 왔구나  
 정월도 보름날 내 집 추녀아래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 서는 둥근 달  
 《잘 있었소 친구들, 내 왔소》

반갑다 반가워라 성실한 벗아  
 강성하는 조국의 흥하는 집집들이  
 즐거운 좌석에 너를 맞아 들이나니  
 둥근 달이 없이야 밝은 달이 없이야  
 그 어찌 보름이고 그 어찌 명절일가

인심 좋고 풍속 좋은 내 나라 내 민족  
 사귀어 긴 세월 정을 나뉘 긴긴 세월  
 그 누가 너처럼 함빡 잠겨 보았더냐  
 슬기롭고 근면하고 용감한 인민의  
 그 희로애락속에

보름날에 일찍 자면 눈섭이 센다고  
 들판에 얼음판에 오구작작 저 사람들  
 천하를 비치는 너의 그 거울속에  
 이 밤도 고조선의 쥐불이 타고 있다  
 이 밤도 고구려의 그 팽이가 돌고 있다

달 같은 님을 보자 님 같은 달을 보자  
 울 넘어 담 넘어 널 뒀던 녀인네들  
 너는 오늘도 그네들의 정을 담아  
 저 하늘에 휘영청 밝은 초롱불을 켜들었는가

어찌 보면 이해의 정월보름달은  
 우리 군대 그 걸음에 발 맞추자 등등  
 온 나라를 부르는 선군의 쇄북인가  
 발차의 푸른 등이 그앞에 켜진  
 통일의 렬차의 둥그런 쇄바퀴가

아 어버이장군님 그 품속에서  
 만월로 가득찬 우리의 행복  
 둥근 달은 우리의것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시 봐도  
 밝은 달 보름달은 조선의 달

해마다 커만 가는 우리의 만복을  
 싣누런 정반에 가득히 채겨 들고  
 너는 오리라 정월도 보름이면  
 싱글벙글 웃으며 멀리서부터  
 《내가 왔소, 보름달이 왔소》

## 펜을 들기전의 고심

정영종

또다시 새해를 맞고보니 절로 생각이 깊어 진다. 매양 펜을 들 때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작품을 써내리라 버르지만 정작 발표되면 아쉬움과 불만, 후회에 속을 썩이곤 한 나였다. 더구나 지난 기간 꽤 오랜 군사복무의 체험으로부터 《청춘 시절과의 상봉》이나 《사랑의 메아리》와 같은 전쟁물주제의 단편소설들을 주로 써오다가 얼마 전부터 현실물로 전환한 터여서 미흡하고 불충분한 점들은 더 많아 졌다. 단순히 체험의 부족 때문만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독자들의 기억에 남는 성과작을 쓸수 있겠는지?… 마음속의 이런 고충을 지난 기간의 단편소설창작에서 겪은 교훈과 비교하여 탐색해 보게 된다.

### 1. 제목과의 《씨름》

멋진 상표를 단 물건은 구매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법이다. 문학작품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눈길을 끄는 인상적인 제목으로 독자들을 반하게 만들곤 하였는가. 나에게서는 그들이 모두 작품이라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는 어떤 《상표》를 달아야 구미를 더 돋굴가 하고 여유작작하게 궁리했었던듯이 여겨 졌다.

그런데 나는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면 펜을 들지 못하는것은 물론 아예 작품의 기초적인 구성조차 세우지 못한다. 그것은 어떤 소재에 기초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웨치고저 하는 제판의 문학적주장을 먼저 찾아 내야 그에 준하여 이야기를 꾸미곤 하는 나의 창작습벽때문 일것이다. 부연한다면 내가 여태 달아 온 제목들은 그 주장을 함축하여 직선적으로 옮겨 놓은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조선문학》 6호에 발표된 단편소설 《거리의 미소》가 단적인 실례로서 처음의 제목은 《조건반사》였다.

원형인물을 만나 취재할 때 나는 그의 입에서 몇번 튀어 나온 《조건반사》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 졌다. 생물체들의 《생리적조건반사》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사회적존재인 인간에게도 《사회적조건반사》가 비유적으로 나타난다. 바람 따라 돛을 단다는 식으로… 처음 취재내용을 구성하면서 형상적으로 《조건반사》라는 제목을 초고에 달았다.

그런데 가까운 동무들은 제목에서 무슨 학술적

인 냄새가 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더 나아가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혹심한 비판도 했다.

처음엔 약이 바짝 올랐으나 후에 곰곰히 따져 보니 그들의 지적이 전적으로 수긍되었다. 《학술적 냄새》로 말하면 제목의 요구에 맞추겠다는 주관적 의도가 앞선타으로 다분히 기술실무적론증에 치우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또 제목에 옴하여 《사회적조건반사》속에 사는 인물과 《동물적 조건반사》로 자기보신만을 아는 비렬한파의 대결에 신경을 쓰던 나머지 주인공에게 응당 부여하여야 할 몫을 간과해 버렸었다.

하여 급급히 도시경영성 부국장과 주인공의 정면충돌장면이며 피아노세부 등을 새로 보태고 제목도 주인공이 해놓은 일을 강조하는 의미로 《거리의 미소》라는, 내판에는 좀 형상적으로 울린다 고 여겨 지는 말마디로 바꾸었던것이다.

그 결과가 물론 신통할리 없었다. 제목을 달리 한다는것은 이야기자체도,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나 감정조직, 양상 등 작품전반도 새로울것을 전제로 할것이다.

《봄》비누를 생산하던 공장이 《은하수》라는 새 상표를 달 때에는 첨가하는 향료나 제조공정, 형태 등이 달라 졌기때문인것과 비슷한 원리라 할가. 만약 같은 비누에 상표만 요란하고 화려하게 바꾼다면 구매자들을 기만하는것으로 될것이고 나중에는 비난과 배척을 면할수 없을것이다. 그런데 내 경우 이 부위, 저 부위를 손질하는, 즉 형태만 좀 바꾸는 식의 작업으로 그쳤으니 질적인 변화가 없을수밖에!

이미전에 간 단편소설 《후사경》도 사정은 엇비슷했다.

구상단계에서의 제목은 요란하게도 《사랑은 무겁다》였다. 풋녇이나 아는 어느 한 운수사업소의 애젊은 현장기사를 주인공으로 하고 그의 형상속에 조국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라에 없힌 집을 스스로 무겁게 옮겨 질줄 아는 사람만이 입에 올릴수 있다는 주장을 펴 생각이였던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비틀어 보아도 진실감이 나지 않았고 시대적미감이 잘 안겨 오지 않았다. 기술혁신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인공의 의기가 지난 세기 90년대나 80년대 젊은 대학졸업생과 크게 다를바 없었던것이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일할데 대한 시대적 요구를 체현한 주인공으로 형상하는 가장 손쉬운

길은 어차피 제대군인이라는 표징을 갖춘 인물을 내세우는것뿐이었다. 또 당의 새로운 구호가 나온 시대적요구를 고려할 때 대학은 거칠 사이가 없는 제대군인운전사가 적합하였다. 운전사라면 그 직업을 뜻하는 상징적제목도 붙여 저야 한다!

결국 어딘가 들뜬듯이 여겨 지던 초기제목은 철회되고 복무시절을 돌이켜 보며 그때처럼 살려고 애 쓴다는 의미에서 《후사경》이라는 제목이 선택 될수 있었다.

그 작품 역시 두 제목을 가졌던 경력으로 하여 이야기가 두서 없어 졌음은 물론이다.

굳이 이런 뻔한 소리를 늘어 놓는것은 일부 신인들, 지어는 창작년조가 적잖게 있는 작가들속에서도 제목없이 글을 쓰고는 《한번 읽어 보고 제목을 생각해 주게!》하고 방조를 청하거나 수정작업이 제기될 때마다 새라새로운 제목을 연방 갈아 대는것으로 작품의 인상을 돌궈 보려고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하기때문이다.

작품을 다 써놓고 제목을 달건 처음부터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건 또는 형상적인 제목이건 직선적인 제목이건 그것은 작가의 창작방식이고 취미이며 권리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제목이 작품전반을 관통하는 주제를 암시하거나 직접 표현한다는것, 제목속에서 작품의 양상이며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뉘, 감정정서까지도 기초지어 진다는것을 명심하고 고심하여 신중히 탐구선택하자는것을 말하고 싶다. 사람에게 이름이 하나이듯이 그 작품에는 오직 그 하나뿐의 제목만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혹여 애명이나 별명이 덧붙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것이야말로 그 인간의 이름이상으로 성격을, 본질을 정확히 규정짓는것임을!

## 2. 힘겹게 얼굴을 드러낸 인물들

최근년간 발표된 나의 단편소설들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은 대체로 이러루 했다.

《그 처녀병사는 인상에 남더구만.》

《대담한 설정이긴 한데... 그런 인물이 실지 있긴 있었나?》

린색하긴 해도 굳이 칭찬이라고 믿고 싶은것이 내 심정이었다. 왜냐면 재미 있게 읽었다거나 좋은 글을 써줘서 고맙다거나 하는 인사를 받는 행운은 지니지 못했어도 그럭저럭 입에 오른 인물 하나라도 내세웠다면 아주 론의없이 사라지는 실패작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자체위안때문이었다.

기실 사람들이 언급한 그 인물들을 찾은 덕에 소설의 시작을 뻔수 있었음을 고백해야 하겠다. 《거리의 미소》만 봐도 구성작업을 다 해놓았었지만 무려 반년이나 펜을 못들고 끙끙 갇잡랐다.

중편소설을 구상해 볼 욕심을 낼만치 많은 취재를 했었고 연구성과에 대한 구구한 라벌로 떨어질가 보아 경계하면서 성격을 돌구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몰아 가자고 애 썼으며 제탄의 새로운 종자도 《발견》해 냈는데 왜 자꾸 실화문학이상은 안될것 같은 우려와 불안이 덜미를 잡고 놓지 않는것인지?...

그리하여 《소설답게》극성을 강화할 시도밑에 주인공을 상대인물인 구역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괜히 충돌시켜 보기도 하고 과학기술상의 난관을 인위적으로 조성시켜 놓기도 했으나 역시 시작은 떼여 지지 않았다. 주인공에게 강한 운명적체험이 주어 지지 않았던것이다.

하도 답답하여 작가동맹강습에 나타난 《조선문학》 편집원에게 하소해 보았다. 그는 내 구성안을 끝까지 듣고 나서 대번에 핀잔했다.

《아니 <조건반사>라는 문제를 설정했으면 그것을 해명해 줄 상대인물이 있어야 할게 아닌가. 상대인물이!》

나는 어리둥절해 졌다. 《생리적조건반사》에 대칭되는 《사회적조건반사》의 체현자- 차원경부 위원장이 있으면 됐지 무슨 상대인물이 또 필요하단 말인가?

《답답하구만!》 나의 반박에 약이 오른 편집원은 금시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차부위원장인가 하는 <량반>에게 《조건반사》에 예민한 인간을 대치시켰으니 그가 주인공에게 자극을 주었으면 얼마나 주겠나?!》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잘 아는 한 의학연구사의 실패를 들었다. 그 연구사는 다년간의 고심끝에 새로운 장수약물을 개발했는데 그 동안 연구조건의 보장은커녕 공명심이요 재정량비요 하면서 뒤 다리를 걸어 왔던 자가 돌연 적극적인 지지자, 협조자로 둔갑해 나서며 자기와의 공동연구성과로 웃기판에 제출하자고 은근히 회유와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는것이였다.

《<고난의 행군>기간에 살 구멍을 찾기 시작한 패배주의취새끼들이 생겨 나 과학을 쏴아 먹은 실패가 한둘인줄 아나? 당신도 그런 너절한 행위들을 때리자고 이 작품을 시도하는것 같은데!...》

비로소 나는 아차 하고 혀를 깨물었다. 내가 취재한 이야기속에도 그런 인간-도시경영성 부국장이 있었었다. 그럼에도 나는 여태 그를 차요시해 왔다. 아니, 내심 사회의 《폐단》을 부정적으로 강조하는것 같은 두려움때문에 슬며시 피해 버렸었다.

그런 현상이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실패였다면 나의 우려가 정당했을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둘... 셋...으로 표현되는것이라면 벌써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서 무자비한 투쟁의 불을 걸 대상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주인공에게 보다 심각한 극적체험을 주자면 마땅히 《사회적조건반사》속에 사는 참인간에 대한 열렬한 공정과 함께 《동물적조건반사》밖에 모르는 비렬한에 대한 격렬한 혐오감을 대치시켜야 할것이다!

이렇게 되어 취재수첩의 갈피속에 영영 묻혀 버릴번 한 부국장이 전면에 뛰쳐 나와 추악한 얼굴을 보였고 결국 《소설 비슷이 되겠구나!》하는 흥분속에 펜을 들수 있는것이다.

물론 이 난데 없는 《배우》의 파격적인 출연에 도취된탓으로 억지스럽게 씌여 졌다는 소리를 들을만치 작품을 설치고 말았지만 어쨌든 단편소설의 경우엔 특히 별치 않은 방계인물 하나라도 주제해명을 떠밀수 있는 똑똑한 자기 몫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방향에서 인물설정자체를 따지고 들지 않는다면 작품을 죽여 버릴수 있다는 교훈은 찾은셈이었다.

단편소설 《노을》은 인간관계조직이 인위적인 조작감이 난다는 의견이 제기될만치 너무 《썰여》서 쉽게 씌여 졌지만 그 이전에 나간 《후사경》도 앞서의 그런 고충을 거쳐서야 겨우 완성할수 있었다.

그 소설은 마음에 드는 제목까지도 다 정해 두었 었으나 역시 오래동안 시작을 떼지 못하였다. 분명 후사경속에 비쳐 지는 복무시절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떠밀것만은 틀림 없는데 군사복무의 그 많은 체험과 인상들속에서 어떤 사건을 실례로 들어야응당한 효과를 볼것인가가 골치거리였다. 눈비 쏟아 지는 한밤중의 힘겨운 강행군, 방어공사장에서의 생사를 다투는 전투, 혹은 흔히들 형상하군하는 전우의 비장한 죽음... 그 모두가 한생 잊혀지지 않을 것들이긴 하지만 왜선지 나는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갖가지 과일무지앞에 서서 어느것을 주어야 어린 애가 채하지 않고 끝까지 다 먹을가 하고 괜히 이것저것 고르는 때처럼 선택을 못하고 전전공공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모임때였다. 나는 갑자기 눈섭어방이 몹시 가려워 손거울을 꺼내들었다가 얼굴이 벌개졌다. 먼 등뒤에 앉은 한 녀성직원이 그 거울속에 뛰어 든것이었다. 눈길이 마주치자 그는 내가 장난을 치는줄 알고 밉지 않게 눈을 흘기며 웃었다.

흥분이 온것은 그 찰나였다. 나의 《후사경》속에 늘 비추이군 하는것이 저렇게 웃고 있는 녀성이라면, 그것도 군복 입은 녀병사의 모습이라면!... 우연이 나를 도운셈이었다. 하긴 결코 우연만은 아니였다고 믿고 싶다. 오랜 탐색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에서 사건보다 성격에 근본적인 의의를 부여하는것은 문학의 발전과 인민대중의 무의식 발전의 합법칙적인 요구이다.》**

지금껏 어이 없는 고심을 해왔다는것이 이제는 명백해 졌다. 소설이 성격창조문학이라는 말은 곧 잘 외워 왔지만 구체적인 인간을 그릴 궁리는 하지 않고 어떤 특이하고 비상한 사건만을 찾아 헤맸던것이다.

문학을 갓 시작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흔히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 문학연구토론회장에서나 지상들에서 거듭 강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작가들조차 왕왕 멋진 소재자체에 혹은 나머지 서둘러 펜을 들으로써 미담의 전달이나 생산소설을 《제조》하여 독자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독자가 사건보다 그 사건의 담당자인 인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는것을 망각한때문이다.

결국 소설집필 이전의 최대의 준비공정은 뚜렷한 성격을 가진 인물을 먼저 찾아 쥐는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 3. 후회

때 늦은 후회는 하지 말아야겠는데... 하고 버르곤 하지만 매번 작품이 활자로 찍혀 나간 다음에는 이마를 찡그리면서 《그때 그 부분을 괜히 다쳤어.》 혹은 《너무 서둘렀거든.》하는 분함과 안타까움에 속을 앓게 된다.

우선 앞서 언급한 《인상에 남는》 인물들에 대한 론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결론이 얻어진다. 소설은 주인공문학인데 상대인물들이 두드러져 주인공을 《죽였다》는 점이다.

왜 그렇게 되였는가? 어떤 소재건 소설로 구상할 때에는 주인공부터 먼저 설정해 놓는것이 상례일것이다. 그래서 지금껏 나도 처음부터 주어진 인물인 긍정적주인공에게는 한두가지 기질적인 특징을 덧붙이는 정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성격탐구 단계를 거치지 않은 했다. 대신 그에 맞세울 인물은 누구로 하겠는가 하는 탐색이 자연되따르기 마련이어서 우에서 말한것과 같은 적지 않은 품과 고심을 들일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결국 주인공이 약해 질것은 당연했다.

다음은 펜을 놓은후 즉 작품을 탈고한뒤 편집부와의 작업을 매우 경솔하게 대했었다는 후회와 가책이다.

누구나 편집부의 문턱을 넘을 때에는 자기로서의 완성을 기했다고 자부한다. 하여 이런 저런 의견이 제기되면 (내 작품의 생리를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내리먹이는군. 할수 없지. 통과되자면 우는척이라도 해야 하나까.) 하는 립장으로 기계적인 수정-땀때기를 한다. 결과 일껏 끌어 오던



감정조직이 끊기거나 인물성격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며 주제분렬을 초래하는 일까지 생긴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다. 《거리의 미소》에 차원정부위원장이 주인공인듯이 돌구어 진것, 《후사경》의 뒤부분이 잡다한 이야기들로 채지고 만것 등을 들수 있을것이다.

벽을 치면 집전체가 울리기 마련이듯 한 세부에 대한 수술요구를 받았으면 작품전반의 조화를 새롭게 맞추어 놓아야 할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편집자들의 무리한 강박때문에 작품이 찌그러졌다고 불만을 토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마감으로 멋진 문장으로 한몫 보려고 한 결과 오히려 독자들의 이해에 혼란을 주었다는 후회이다.

단순한 리치로서 문장을 팔것이 아니라 성격을 파고 감정조직을 파고 드는게 소설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문장의 세련미를 둔군다는 미명하에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 놓음으로써 그것을 음미해 보는 사이 독자는 감정이 끊기여 신경질을 부리게 되는것이다.

단번에 리해되는 명백한 문장을! 이것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요구이다.

×

써놓고 보니 《고심》과정보다 혼시가 더 많아진듯 싶어 쑥스럽다. 단지 펜을 들기 전에 이미 작품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어렴풋한 리해만이라도 주지 않았을가 하는 위안으로 만족해 버린다. 그리고 이 기회에 자신의 결심도 피력하고자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어 새해를 맞으며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고 선도하는 좋은 작품을 꼭 써내리라고.

## 수령님 추억속에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에서 보낸 세월은 비록 두해밖에 안되었으나 그 기간에 나는 많은것을 배우고 체험하였다.

가장 귀중한 체험은 우리 인민이 어떤 인민인가를 깊이 리해하게 된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소박하고 근면하면서도 용감하고 강毅한 인민이였다. 어떤 곤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억센 인민, 계절이 바르고 인정이 풍부하면서도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비타협적인 인민이였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연정회의의 간판을 가지고 반동적인 <자치>운동을 벌리고 있었으나 로동자와 농민, 청년학생들을 포함한 광범한 인민대중은 피를 흘리면서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 어떤 힘으로써도 훼손시킬수 없는 민족의 존엄과 강철 같은 독립의지를 뜨겁게 감수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런 인민을 잘 조직동원한다면 얼마든지 나라를 찾을수 있으리라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문화통치>의 간판뒤에서 나날이 늘어 나는 군대와 경찰과 감옥들을 보면서, 우리 조국의 재부를 끊임없이 약탈해 가는 화차들과 화물선들을 보면서 일제야말로 우리 인민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가장 흉악한 교살자이며 우리 인민에게 참을수 없는 가난과 굶주림을 강요하는 악독한 착취자, 약탈자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조국의 숨 막히는 현실은 나로 하여금 조선민족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일제를 몰아 내고 독립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건히 품게 해주었다.

조국을 한시바빠 되찾고 그 모든것을 영원한 우리의것, 조선의것으로 만들고 싶은 념원이 불길처럼 나의 가슴속에 라번지였다.》

# 위대한 령장, 위대한 계승에 대한 전설적인 송가

-가요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에 대하여-

조선화

위대한 인간이 위대한 노래를 낳는다.

수령의 노래 높이 부르며 수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며 우리 인민이 걸어 온 혁명의 년대기에는 얼마나 많은 수령송가들이 아로새겨져 있는가.

그가운데는 가요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도 있다.

노래가 나오지 벌써 여러해가 지났지만 오늘날도 선군시대의 메아리로 높이높이 울려 퍼지고있는 가요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가요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항일의 총포성을 들으며 성장하시고 오늘 백두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역세게 이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노래한 시대의 찬가이다. 가요가 달성한 특출한 성과는 위대한 계승철학문제를 제기하고 전설적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 열렬한 칭송의 가요로 창작 되었다는데 있다.

수령의 위대성에 대하는 작가적안목과 체험세계가 새롭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한편의 시를 써도 자기 얼굴과 자기 목소리가 뚜렷한 서정세계를 펼쳐놓아야 한다.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체험세계에서 노래하는것이 바로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가요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으로부터 성장과정, 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과 불패의 령도력에 대하여 이 세상 그 어떤 위인들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설적위인으로서의 비범성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천고밀림 흰 눈우에 첫 자욱 새기시며  
빨찌산일가의 뜻을 이은 장군님

우리의 눈앞에는 백두의 천고밀림이 펼쳐진다. 험준한 천만산악들을 거느리고 역센 장군의 기상인양 우뚝 솟아 천하를 굽어보는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 어느 시인이 노래한것처럼 사나운 짐승도 발길 돌리기 서슴어하고 날새도 고적에 태우다 떠나고야 말던 그런 곳이 백두의 천고밀림이다.

더우기 항일대전의 총성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하시는 조선의 빨

찌산 김대장의 존함과 더불어 일제 백만대군에게 공포와 전율을 주던 성스러운 혁명의 산 백두산! 바로 여기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시였다. 가요는 이렇게 우리 장군님의 비범한 탄생으로부터 시적형상을 펼쳐고 있다.

그러나 비단 장군님께서 어떤 곳에서 탄생하였는가 하는 지정학적의미만을 부여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고도로 승엄하고 무게있게 형상을 창조하려는 시인의 의도를 엿볼수 있다.

무릇 가요의 첫 머리가 가지는 의의는 자못 크다. 첫 시작을 어떻게 떼는가 하는데 따라 작품의 사상정서적색깔이 규정되며 사상정서적색깔은 곧 종자, 주제사상의 천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가요는 거센 소리가 주는 어감과 음향적효과를 리용하여 처음부터 기세차고 박력 있는 색채를 살려 주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설적위인으로서의 품모를 노래하는데 맞게 시작부터 폭이 있고 장중한 시형상을 펼칠수 있었다.

백두산의 흰 눈우에 새기신 그이의 자욱자욱, 그것은 불세출의 위인이신 빨찌산대장 **김일성**대원수님과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뜻을 이으시는 걸음걸음이었다.

가요는 두분의 위대한 빨찌산장군의 품에서 태어나 위대한 사상을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성장에 대하여 고도로 함축적압화된 하나의 시행을 통하여 감명 깊게 시화하였다.

이렇게 우리 장군님의 탄생과 성장을 노래한 가요는 오늘의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데로 시 형상을 이끌어 나갔다.

백두산 김대장의 붉은기 날리시는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빨찌산일가의 뜻은 곧 붉은기사상,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높이 드신 선군의 기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빨찌산 행군대오에 날리시던 혁명의 붉은기이다.

여기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그대로 이어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밝혀지고 있다.

항일전의 그 나날을 장군님 추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밀림의 눈이 내렸네

언제나 항일의 나날에 대한 추억을 가슴에 안고 혁명을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의 세계, 장군님과 뜻도 마음도 같이 하는 우리 인민들의 절대승배의 세계가 정서 깊게 펼쳐 지고 있다.

가요는 송가적형상에 우리-서정적주인공을 등장시킴으로써 장군님에 대한 사상감정을 피상적인 칭송의 정서에 그치지 않고 장군님만 믿고 따르며 한몸 다 바치는 우리 인민들의 신념과 의지의 세계에서 깊이 있게 천명하였다.

사회주의 지켜 서신 오늘의 김대장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가요는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굳히신 혁명적 신념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엄혹한 사회주의수호전의 진두에 서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열렬히 레찬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항일의 나날 해방성업에 한 몸 바쳐 싸우시던 빨찌산대장 **김일성** 장군님 그대로이신 **김정일** 장군님의 위인상을 보게 된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적진에 번개치며  
위대한 백두전법 전선길에 빛내시네

축지법을 쓰시여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시며 적들을 가랑잎처럼 쓸어 버리시던 수령님의 빨찌산 전법대로 천만대적을 위락파락하시며 그 어떤 강적도 무릎 꿇게 하시는 **김정일** 장군님의 전설적인 령도풍모가 얼마나 훌륭히 노래되었는가.

현실생활의 논리로써는 인식할수 없는 전설적 장군의 위인적풍모를 상징비유의 수법을 리용하여 환상적형식으로 펼쳐 나갔다.

특히 장군님의 천재적지략과 령군술을 번개가치는 자연현상에 비겨서 표현함으로써 타격에서 강력하고 추호의 용서도 없이 무자비한 특성을 박력있게 드러내주었다.

조국 위해 한평생 공격전에 계시는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얼마나 많은 의미를 새겨 주는 표현인가. 생의 첫 자욱을 찍으시던 그때로부터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은 조국을 위한 한평생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고 겪으신 두차례의 준엄한 혁명전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투쟁, 세상최악의 조건에서 험로역경을 헤쳐나가셔야 하는 사회주의수호전,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횡포한 도전을 맞받아 나가시는 선군혁명 천만리

길... 머나먼 그 길에 우리 장군님께서 언제 한번 쉬신적 있으며 자신을 위하신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던가.

아버이장군님의 끝 없는 로고의 걸음걸음을 마음속으로 따라 걸으며 격정에 목메이는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감정세계가 여기서 터쳐 지고 있다.

더우기 가요는 한평생 공격전에 계시는 장군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방식의 위대성과 본질적특성을 한마디로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공격전!

그것은 빨찌산식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맞받아 나가는 정신으로 혁명을 이끄시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백두령장의 슬기와 담력, 배짱을 그대로 이어 받으시여 한평생 공격전에 계신다.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앉아서 참을것이 아니라 맞받아 나가 이겨 내도록 하시였으며 적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과 악랄한 핵위협소동도 맞받아 나가는 정신으로 격파시키시였다.

백두의 천고밀림에 첫 자욱 새기시던 장군님의 탄생과 성장으로부터 시작된 가요의 서정은 여기에 와서 고도로 양양된 감정으로 자기의 종결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빨찌산장군의 피줄기를 이어 받으시여 사상도 신념도 기질도 백두령장 그대로이신 전설적위인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한 계승에 대한 작품의 문제성은 완전히 해명되었다.

전설적위인으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 풍모와 그 밀뿌리를 뚜렷이 밝힌 여기에 작품의 심오한 철학성이 있고 시인이 탐구한 형상의 새로운 몫이 있다.

시인은 한편의 짧은 가사에서 위대한 령장의 어제와 오늘, 전설적위인의 숭고한 풍모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시대의 영광을 높은 웅축력을 가지고 감명 깊게 시화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시적구성에서 기성관례에 따라 격식화된 틀에 매이지 않았다.

가요는 어제, 오늘, 래일의 시공간적의미를 1, 2, 3절에 구획 짓지 않고 폭 넓고 자유분방하게 서정을 펼치면서 기승전결의 매듭을 상대적으로 갖춘 매질의 마지막행에서 같은 구절을 후렴처럼 반복해 주었다. 매질에서 반복되는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이라는 맺음구는 전설적위인으로서의 장군님의 위대성을 함축하여 밝히고 그이의 인민적풍모, 장군님과 인민들사이의 혈연적련계를 천만마디 말보다 더 힘있게 정서적으로 강조하고있다. 장중하고 씩씩하게 흐르던 매질의 사상정서는 맺음구에 와서 힘있으면서도 밝고 친

근한 감정으로 채색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끝없는 환희에 잠기게 한다.

가요의 언어형상은 지극히 생동하고 회화적이며 폭이 있고 강렬하다.

특히 눈의 설정이 아주 인상 깊다.

정일봉이 솟아 있는 천고밀림에 쌓인 흰 눈, 장군님의 추억과 함께 인민의 마음속에 내리는 밀림의 눈.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에 첫 자욱 새기실 때부터 가고 가시는 험난한 길우에 끝없이 쏟아지는 눈, 그것은 장군님의 만고풍상을 다 말해주는 정서적이며 회화적인 표현이다.

눈의 형상- 그것은 모진 어려움을 강조하고 순결한 세계를 부각해 주는 얼마나 생동하고 감각적인 형상인가.

가요는 천고밀림, 흰 눈, 빨찌산일가, 백두전법, 한평생, 공격전 등 거창한 대상과 심원한 의미를 표현하는데 알맞은 어휘들을 잘 살려 쓰고 형

상적인 시적세부들을 통하여 정서적느낌을 간명하게 집약적으로 형상하였다.

이와 같이 가요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은 독창적인 안목과 형상기교로써 빨찌산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격찬하고 대를 이어 장군복을 누리는 민족의 크나큰 공지와 영광을 소리높이 노래한 전설적인 송가이다.

송가문학을 더 높이 발전시키는 근본담보는 시인들에게 있다.

중요한것은 창작적안목과 립장에 관한 문제이다.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닌 시인만이 자기령도자의 위대성을 참답게 체득할수 있으며 심장으로부터 전설적위인을 우러러 뚜렷한 자기의 목소리를 터칠수 있다.

시인들은 새로운 안목과 독창적인 형상기교로 천출명장이신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절절한 칭송의 감정을 특색 있게 형상한 수령송가를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 찬물이 끓어요

주경

잠을 깬 양어바다우에  
물안개 피여 오르는 아침  
내 줌줍이 먹이를 뿌려 가니  
물고기 물고기들이  
반가웁다 꼬리를 휘저어요

휘-휘 걷히는 안개발을 타고  
퍼져 오는 금빛해살에  
더더욱 좋아라  
물고기들이 춤을 추니  
온 양어장이 부글부글 끓어요

물거울인양 저의 모습이 비껴 오는  
양어못들을 돌아 볼 때면  
왜 자꾸만 물고기들이 절 따라 올라가요  
그러니 입담 센 양어반총각들  
물고기가 처녀에게 반했다고 놀려댈수밖에요

저도 몰래 귀뿌리 빨가니 달아 올라  
성난척 우뚝 멈추어 서니  
아이참 속상해...  
물고기들이 저저마다 키를 솟구치며  
엄마 엄마 부르는것만 같아요

머리에 쓴 수건조차 파아라니 물들것만 같아  
물속에 살며시 손을 잠그니

주둥이를 대이는 물고기 물고기들...  
이제는 응석을 부리는 아이들만 같아  
처녀의 솟겨운 사랑마저도  
아깽없이 바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툭 툭 가슴에 마쳐 와요  
기쁨의 물방울이 심장을 울려요  
봄내 여름내 키워 온 물고기들이  
물속의 풍년소식 땅우에 알리는듯  
옥실거리며 침병이니...

아  
덧없이 흐르던 산골 샘줄기에도  
인민들이 잘 살 앞날을 그려 보시며  
질척이는 감탕발을 헤쳐 가시던  
어버이장군님 그날의 자욱우에  
오늘은 은비늘 금비늘 번뜩이는  
물고기 물고기떼들로 넘쳐 나...

찬물이 끓어요  
내 고향 양어장의 물고기풍년소식  
우리 장군님께 아뢰이고 싶은  
오 간절한 마음을 흔들며  
찬물이 끓어요  
인민의 행복이 끓어요

## 하람산의 범

박웅전

하람산에 범이 천리허로 넘나든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 대등판에 들쭉이 펼쳐진 해발 1, 485미터의 이 산은 중부조선에서 높은 거봉이다.

힘준하기로 유명한 하람산은 일찌기 백두산에서 타오른 항일혁명의 봉화를 이어 받아 황해도 드넓은 땅에 해방의 불씨를 뿌려 온 1930년대 후반기 국내비밀근거지로서 백두산3대위인을 칭송하는 불멸의 글발을 반세기 세월의 광풍속에서도 말없이 지켜 온 산이었고 나라의 천연기념물인 열두꼭포가 장관인 명산이다.

최근 10여년간 이 산에서 범을 직접 만났던 사람은 갯목작업소 소장을 하던 황보호령감(지금은 하람산혁명전적지 관리원)이고 범에게 혼썰이 났던 사람은 냇고개밀 우산동의 두칠령감이었다.

그리고 범이 우는 소리를 들은것은 지난 봄까지 두번인데 그것은 다 의미심장한 사변들을 동반하고 있다.

### 1

지난해 8월 어느 날 황보호령감이 자기의 말손자를 데리고 군당선전일군인 내 방을 찾아 왔다.

작업소 소장을 할 때는 자주 만나지 못하였으나 이제에는 전적지관리원으로 나와 밀접한 관계는 물론 인간적으로도 가까와 진 사이가 되었다.

우람한 어깨와 가슴, 황초처럼 굵은 목덜미와 넓은 턱, 거기서부터 머리끝까지는 좁아져 삼각형의 모상이다. 진한 눈썹, 불이 이는듯 한 눈빛, 큰 입과 넉넉 들린 바위 같은 턱, 길죽한 귀와 웅글은 목소리가 유표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름과 생김새 그대로 《호령감》으로 불리워 왔는데 언제인가 그가 범과 맞서 담배를 피운 일이 있는 다음부터는 《호랑이령감》으로 호가 났다.

그가 년로보장나이가 지났으나 하람산의 구호문헌관리원이 된데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해방전부터 하람산포수였는데 아들처럼 대를 아니였어도 담찬 사나이로서 범은 못 잡았어도 곰은 여러마리 잡았다고 했다.

그는 하람산비밀근거지밀영과 관계를 가지고 해방전까지 전민항쟁준비에 기여한 조국광복회 회원이었다는것이 확증되었다. 그러니 황보호도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대를 이어 혁명전적지관리에 여생을 바칠 결심을 한것이였다.

호아버이가 관리원이 되자 나의 마음은 여간만

든든해 지는것이 아니였다. 전적지관리소에 크고 억센 기둥이 들어 박힌것이였으니까.

《구호나무들은 이상이 없수다. 다래굴 답사길은 더 넓히구 생비람골 세번째 개울다리두 보수했지요. 벌줄을 동진 쇠고리때문에 나무에 손상이 갈것 같아 다시 풀구 송진땀을 했수다.》

아버이는 선채로 사업보고를 하는것이였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앞상 맞은쪽 자리를 권하며 내가 먼저 앉자 아버이는 그 거쿨진 오금을 수월히 꺾고 앉아 담배쌈지부터 꺼냈다.

《이 학생은 누구니까?》

나는 로인이 데리고 온 화판 같은것을 옆에 낀 소년도 앉으라고 손짓하며 물었다.

《우리 말손자웨다. 몇해전 그 서해격전에서 전사한 말이의...》

《아, 그렇습니까. 정말 귀한 <손님>이구만요. 할아버지를 닮은게...》

암팡진 앞가슴, 까만 눈썹에 또릿한 눈동자, 고집스럽게 다문 입, 단단한 턱과 귀바퀴가 할아버지를 빼놓것 같았다.

《애 총이야, 그 그림을 여기 퍼놓아라.》

호령감이 긴 팔로 앞상을 가리키자 소년은 가방 두릅만 한 화판을 펼쳐서 상우에 퍼놓았다.

《손자를 데려다 키웁니까?》

《아니지요. 여름방학에 내게 와서 글씨 이 범그림을 완성하겠다는데 내가 뭐 그림을 볼줄 알아야지, 허 참. 아무튼 애들 키우는걸 모문 우리 말며느리가 용탄 말이우다.》

마라초연기를 날리는 아버이의 혼연한 기색을 보니 말이는 잃었어도 그후 일들은 여한이 없이 잘되는것 같았다.

나는 그림을 보았다.

아름드리수림우에 동실 뜬 달빛아래 솟아 있는 구호나무. 그렇다, 이것은 우리 하람산 수리바위의 3대장군구호문헌 그대로이다. 이 구호나무들을 호랑이가 앞발을 척 벌디디고 지켜서있다. 그리고 맨 아래엔 《하람산의 범》이라는 제목도 썼다.

첨경 기발한 착상이라는게 알렸다.

《참 기특합니다. 이걸 학생이 그렸단 말입니까?》

《이게 꺾꼬매서부터 그림이라문 오금을 못 썼지요. 작년에 와서 하람산에 올라가 봤으니까 구호나무와 주변산세는 비슷한데 범의 형상이 안돼

서 그러지 않소.》

《아 그거야 범과 맞대면한 아바이인데...》

《글쎄, 본대루야 다 대줬지만 이 애 말이 범의 눈빛이 잘 안된다는거veda.》

《그래요?》

나는 다시 그림을 보았다. 소년도 자기 그림에 집요한 눈길을 박고 까딱하지 않았다.

범의 눈빛이라, 시뻘건 두줄기 불이 몇십각으로 쪼개지는 맹수의 눈빛, 그 빛이 너무 진해서 구호나무글발과 범의 형체가 잘 부각되지 않는 것이었다. 소년의 고심, 로인의 막연한 생각이 어느 정도 리해되는것 같았다.

어둠과 달빛, 범의 눈빛의 대조에 맞는 채색의 묘리가 있어야 할 것이었다.

《범의 눈빛을 시퍼렇게 그렸던건 내가 고쳐 줘야. 야밤에 불을 비쳐 보문 초식동물의 눈빛은 린광처럼 시퍼렇구 맹수의 눈빛은 빨갛게 보인다는걸 이 애가 알턱이 있겠소.》

그건 나도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는 생각끝에 의견을 내놓았다.

《이건 어떻게 하나 꼭 성공시켜야 할 그림인데. 총이야, 우리 직관실화가들과 토론해 보는게 어떨가?》

소년은 나의 의견에 대답을 안했으나

《그게 좋겠수다.》하고 로인이 찬성해 주었다.

소년은 입을 꼭 다문채 그림을 화판에 맞추어 넣었다.

《구호문헌을 지키는 하람산의 범이라. 참 의미가 깊구 새롭습니다. 우리 호랑이인데 아바이, 힘껏 도와 줍시다.》

나는 소년의 그림이 환기시킨 흥분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 섰다.

## 2

원래 그 이름과 기상이 범 같다고 《호령감》이라 부르지만 그것만도 아닌것 같았다. 그는 워낙 범이야기를 잘했다.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구 꿈이 막걸리 거르던 시절에》하고는 범에게 홀려 간 처녀를 구원한 이야기며 포수가 범을 잡은 이야기며... 처음엔 그 이야기에 겁을 내던 작업소나 숙영소 녀인들도 나중엔 어지간히 숙달되고 만다고 했다.

《너자들두 후에 자식들을 호랑이처럼 키우려문 범이야길 알아야 해.》 이것이 아바이의 지론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범그림을 좋아 했다. 자기 집 아래방에 범을 그린 족자가 걸려 있고 숙영소 현관복도의 조선범도 호령감이 주장해서 그려 붙인 것이었다. 필경 손자의 범그림도 로인의 그 영향하에 생겨 났을 것이었다.

나도 한번 아바이의 범이야기를 직접 들어 본 적이 있었다.

몇해전 9월 말경이었다.

하람산의 대마루밑에 있는 칼석굴밀영자리까지 돌아보고 내려오니 날이 어두웠다. 숙영소에서는 우등불가에 식사를 차렸다.

우중충한 수림속에 지은 두채의 답사숙영소는 백두밀영처럼 귀틀집이지만 현관과 창문들이 정가로왔다. 인가와 떨어져있는데다 숙영소인원도 단출해서 이런 밤에 우등불가에 모여 앉곤 하였다.

산중호수처럼 좁아 진 하늘에 담긴 별들은 우등불과 속삭이는듯 했다.

물항철과 가래나무가 우거진 개울가에선 희디흰 화강암들을 안고 흘러 내리는 맑은 물소리가 정가롭게 들려왔다.

온갖 열매가 무르익어 떨어 지는 산촌의 가을이여서 돌배, 머루, 다래, 오미자향기, 송이버섯냄새도 물씬물씬 풍겨 오는듯 했다.

숙영소강사인 영희가 죽구릇을 날라왔다. 우유 빛잔죽과 자주빛이 도는 참나물김치가 시장하던 구미를 한껏 돋구었다.

《애들이라는게 또 순서를 헛갈려!》

호령감이 식당쪽에 대고 소리쳤다.

《예-이, 알았소이다.》

우정 옛스럽게 대답하는 청아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어 김이 문문 나는 고구마그릇을 들고 나왔다.

관리원들인 성격이 준수한 손동무는 시뻘이 웃고 암팡지게 생긴 안동무는 킬킬대며 웃었다.

저녁식사를 끝낸 우리는 담배연기를 날렸다.

우등불에 토막낸 자작나무삭정이를 덧세웠다. 불길은 신통히도 가운데로 곧추 솟구쳐 올랐다.

벌써 써늘해 진 고산의 밤대기가 우등불을 인심 좋은 좌상처럼 떠받들어 올리였다. 등산과 식후 담배맛이란 유별난 것이었고 버그려진 밤송이처럼 이야기주머니를 자연히 터놓게 했다.

《내 오늘 범애길 또 하나 하겠수다. 사실 이젠 친구지간에 말 못할 사연이 있어 우리 동무들에게 두 말하지 않은건데 비서동무가 왔으니 다 터놓겠수다.》

호아바이는 두툼한 마라초에 불을 붙여 한모금 빨아 후- 내불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 냇고개 오르다 우산동 마지막집이 바루 두칠령감네 집인데 고뿔두 남 주기 싫어 할 각쟁이였수다. 내 중학교동창인데 학생때두 저밖에 몰라 축에 못 들었지요. 산짐승잡이엔 이골이 들어 산토끼, 오소리사냥엔 펴 날았수다. 꿩알을 너무 들춰 내다가 산림감독원한테 잡혀서 전교생앞에서 체조도 받았지요.》

이깎나무판자울타리를 높이 두른 뒤뜰안엔 벌



통을 스무나문개 농구 사냥개까지 기르면서 잘 살았지요. 허지만 농장일은 건승하구 제 집일은 뼈 빠지게 해서 마을사람들은 <대진같이 고약한 령감>이라구 욕을 했수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해 산지합숙에 식량이 톱 떨어져서 이 령감을 찾아갔지요.

《여보게 두칠이, 산지합숙생들이 굶게 돼서 그러는데 강냉이 몇가마니만 꺾줄수 없겠나?》

에돌것 없이 직판 들이댔지요.

<지금이 어느 때라구 그 많은 낱알이... 우리 두 죽을 쑤어 먹는 판일세.>

눈이 화등잔 같아서 엄살을 부리더군요.

<뭐 죽을 쑤다구? 그럼 가마뚜껑 좀 열어 볼세.> 하며 내가 벌떡 일어 나려니까 령감이 얼굴이 해쓱해 저서 설레발을 놓더군요.

<아 글썤 점심이야 밥을 먹지. 일을 해야 하나까. 허지만 저녁엔 어김 없네.>

<그러지 말라구. 우리가 뭐 당대 이럴줄 아나. 어려운 때 도와 주는게 동무구 진짜 인간이야. 정 그러면 자네네 쌀창고만 보구 가겠네.> 이러면서 일어 나 웃칸 문앞에 다가섰지요.

<아니 자네 왜 우락부락 야단인가. 사정을 들어 보라구. 관개관리소 아들과 사리원 딸네가 다 퍼갔어 어찌겠나. 굶는다는데...>

<글썤 다치지 않을테니 창고구경만 하자니까.>

나는 우정 뺨대었수다.

<광열쇠야 로친네가 가지구 있지 내게 있나?>

<알만하네. 이 집에서 그 열쇠를 누가 전사하는지 내 모르는줄 아나. 꾸어 주기도 아까우면 난 가겠네.>하구 돌아서 나오구 말았지요.

그런데 후에 그 령감이 냇고개에서 범한테 혼쫓이 나서 아예 누워 앓는다는거요. 아무래도 안심잖아 한번 지나다가 들렸지요. 허연 얼굴에 눈이 십리 쭉 들어 갔습디다. 꿀이 쏘구 맥이 없구 입맛이 싹 떨어져 꼼짝 못하겠다는거요.

<그래 자네 범을 만나긴 만났다는건가?>하구 내가 물었지요.

<하 글썤 내 애길 들어 보게나.> 하면서 자초지종 늘어 놓더군요.

<읍장마당에 꿀을 한초롱 지구 가서 다 판김에 술까지 사서 마시다나니 날이 저물어 냇고개 지름길을 혼자 들어 서는 때였네. 인적도 없는데 뿔이 휘익-하는 소리가 머리우를 날아 지나더군.

무슨 돌개바람인가 하는데 노린내가 확 풍기는 게 아니겠나.

(이크! 큰 짐승이로구나.) 머리칼이 귀쪽까지 잡아 당기는것 같구 온몸이 오싹해 지더군. 그래 어찌겠나. 후들거리는 손으루 막대기 하나를 주어 가지구 거기에 힘을 주어 찍으면서 걸었지.

<이놈>, <이놈> 하면서. 날은 캄캄해 졌는데 무인산중에 소릴 쳐두 소용 없겠구. 또 지팽이에 힘

을 주어 <이놈>, <이놈> 하면서 울랐지.

아, 그런데 글썤 그놈이 오솔길턱우에서 내 얼굴과 앞자락에 석비레를 파서 냇다 뿌리지 않겠나. 무서워 쳐다볼수는 없었지만 그놈의 장난이 험동했네. 난 기겁해서 벌렁 나가자빠졌지. 당장 물어 메치지 않나 했는데 조용하더군. 범에게 물려 가두 정신만 차리문 산다는데 고개마루까지만 오르자 하구 또 일어나 지팽이를 찍었지. <이놈> 소리두 못치면서. 고개등에 올라 서는 너무 땀에 젖고 숨이 차서 돌배나무아래 풀썤 주저앉았지. 풀벌레마저 숨 죽인듯 괴괴한데 살아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아이쿠, 갑자기 큰 발통이 내 뒤통등을 톱 밀치는게 아니 겠나.>》

호아바이는 그 순간에 옆에 끼여 앉은 영희의 뒤통등을 슬쩍 다치는 바람에 《어마, 어마나!》 하는 기겁한 소리가 터졌다. 아바이는 빙그레 웃으며 영희의 등을 슬슬 쓸어 주었다.

처녀는 어깨를 웅송그리고 아바이곁에 더 바싹 끼여 들었다.

《그다음엔 어찌됐습니까?》

젊은 우리 운전사가 재촉했다.

《그다음엔 너픈 얹어 지면서 고개길을 내리다 덩굴면서 사람 살리라구 고래고래 소리쳤지요. 급살이 난 그 소리에 마을사람들이 놀라 불망치를 들구 달려 왔는데 냇 나간 령감은 사람을 만나자 이 담배재 떨어 지듯 풀썤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지. 그때부터 여직 달포째나 일어서지 못한다는거요. 그래서 내가 <자네 내게 솔직히 말하라구. 내 그 하람산범을 좀 아는데 뭐 죄지은게라두 없었나?>

우정 어찌나 보자구 진지한 어조로 위엄을 돋구어 물었지요. 했더니 그 령감이 중풍든 사람처럼 손을 후들거리면서 고백하더군요.

<내 자네에게 뭘 숨기겠나. 꿀을 비싸게 팔려고 장마당에 지고 갔었네. 아무래두 그 산신령 같은 놈이 그걸 안 모양이었거든.>》

《으하하하!》

우등불가에 웃음이 터졌다. 그 소리에 가운데 솟삭정이 주저앉으며 불꽃을 뿜겨 울렸다.

《<알겠네. 그러니 이젠 마음을 고쳐 먹구 좋은 일을 좀 하라구. 그 범이 생비람에서 나를 막아섰던것두 거기 나무를 찍지 못하게 하자는거였어. 하마트면 나두 역적죄를 지을번 했지.>

내 말에 령감은 머리를 푹 수그리더군요.

두칠령감은 그후 일어 나 농장일을 했는데 내가 여기 숙영소에 오자 강냉이 다섯가마니를 달구지에 실구 오지 않았겠소. 참말 반갑더군요. 그래서 그걸루 강냉이엿을 달여 겨울철 눈길답사행군을 해온 군인들에게 한판대기씩 안겨 준거라고요.》

《참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마 군속보, 방송에

두 소개했었지요.》

나도 비로소 오늘 그 내막을 알게 된 것이었다.  
《글쎄 어찌 그 령감의 소행이 놀랍다 했더니.》

손동무가 담배꽁초를 불담에 던지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 아바인 지금두 계시나요?》 강사가 물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지요. 범에게 혼쭐이 난때 문이란 소문도 있지만 원래 취장이 나빴으니까. 그레두 말년에 좋은 일을 해서 깍쟁이때를 벗었지요.》

호아바이가 결론 삼아 하는 말이였다.

우등불이 가운데가 우뚝이들며 불길의 넓게 퍼졌다. 손동무가 삭정이로막을 몇개 더 세워 불길 자체를 바로 잡아 주었다. 그 불빛에 익은 화기로온 얼굴들을 둘러 보며 나는 호아바이의 이야기를 보다 뜻 깊은것으로 귀결시켜 주고 싶어 입을 열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하람산호랑인 분명 정의를롭고 슬기로운 맹수 같습니다. 어딘가 동화적인 얘기 같지만 그전에 못된짓을 많이 했다는 승냥이, 여우와 같은 짐승은 하람산에서 다 없어졌다지 않습니다.》

아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대성통곡을 할 때 하람산범도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그건 여기 황보아바이와 안동무랑 다 알고 있는 일 이지요.

처음엔 저 창바위꼭대기에서 울고 그다음엔 리소재지가 내려다 보이는 저 로고산에 달려가 울고 그 다음날부터는 며칠동안 읍바닥이 내려다 보이는 곤천산에 달려 가서 <으허형!>, <으허형!> 하고 울었답니다.

곤천동사람들은 그 소리가 하두 이상해서 여든살 나는 마을좌상인 원덕량로인을 찾아갔지요. 그 로인은 자기도 그 울음소리를 새겨 듣는중인데 저 소리는 분명 호곡소리라는겁니다. 그것이 군당에 보고되었지요. 추모설화집 <하늘땅의 조화>에 수록된 <범이 울음을 터치다>가 바로 이 하람산범이란 말입니다.》

《아하, 그렇구만요.》

운전사가 크게 감탄하였다.

《정말 전설 같은 이야깁니다.》

그 이야기가 소중한듯 두손으로 가슴을 포개는 영희였다.

《그러니 강사동무, 답사자들에게 여담 삼아 하람산범이야기도 해주는게 어떻겠소.》

《알았습니다.》

나의 말에 처녀는 선뜻 대답했다.

《하 우리 강사야 해설을 참 재미나게 하지요.》

호아바이가 처녀를 보며 말했다.

### 3

세명의 직관원들이 소년의 미술작품에 대한 합평이 있었다. 평양미술대학출신인 책임직관원이 좋은 의견을 내놓았다.

《작품의 종자와 구도가 기발합니다. 누구도 쉽게 이런 생각을 못할겁니다. 제 생각엔 이 작품의 채색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달밤풍경 이다보니 그림이 전반적으로 어두워 질수밖에 없어 구호문헌과 범의 형상을 살리기 힘들게 되었습니

다. 차라리 동 트는 새벽에 노을빛으로 화면을 밝게 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겁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밤 새워 구호나무를 지켰다는 의미도 주고 3대위인칭송의 글발이 빛나게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고집스런 소년의 얼굴에 밝은 빛이 어리기 시작 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소년은 책임직관원에게 꾸벅 절까지 했다.

나는 박수라도 쳐주고 싶었다.

《하 이런, 내가 인사를 해야겠군. 우리 숙영소에 호랑이를 그려 준것두 감사한데.》

《아바이, 그러지 마십시오. 학생의 그림이 우리에게 준 충격만 해도 만족합니다.》

다른 직관원들도 소년이 기특하다고, 훌륭한 미술가가 될수 있겠다고 한마디씩 했다.

몇해전 서해해상격전에서 희생된 영웅전사들속엔 호아바이의 맏아들도 있었다. 그때 그곳 부대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가족을 데리러 왔을 때 나는 그 부대 선전원에게서 희생된 부함장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적들의 도발적인 사격에 우리 함이 위협에 처하자 한몸이 방패가 되어 3대위인상을 보위한 그는 갑판에서 기관총을 틀어 쥐고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기면서 육탄이 되어 달려 나갔다...

그때 호아바이와 함께 해군부대에 다녀 온 호아바이의 조카인 리농근맹위원장의 이야기를 나는 그후에야 하람리에 나가 자상히 들을수 있었다.

《저는 거기 가서 우리 큰아버지가 비록 산골령감이지만 얼마나 대범한 사람인가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아마 부대에서는 가족중에 누가 오겠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것 같았습니다.

름름한 해군지휘관들이 정중히 인사하며 담벽처럼 둘러 섰습니다.

<황보동무는 마지막까지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몸이 웅장한 장령이 근엄한 얼굴로 큰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으며 하는 말이였습니다.

<모두 싸움들을 본때 있게 잘했다니 장합니다. 우리 군대야 우리 장군님께서 키우신 맹호들이 아닙니까.>

장대한 체구, 기상이 범상치 않은 로인이 험한 목소리로 잘 싸워 장하다고까지 하니 모두 선망의 눈길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잠든듯 누워 있는 형님을 보니 눈앞이 젖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느새 총이가 소리치며 로인에게 와락 안겨 들었습니다. 만손자, 하얀 셔츠의 왼팔에 감은 검은 띠, 크나큰 상실을 당한 어린 만상제를 꼭 껴안는 로인의 눈도 그 순간만은 습백이었는데 알렸습니다.

큰아버지는 손자를 옆에 달구 형님의 시신에다가 가서 묵묵히 굵어 보며 호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타! 호랑이처럼 잘 싸웠다니 장하다. 장해!...>

호상을 쏜 장병들이 마치 구렁이라도 받은듯 가슴들을 짝 펴고 로인에게 일제히례의를 표했습니다.

어느 응접실 같은데 해군장령과 정치위원, 그밖의 지휘관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젊은 정치위원이 황보동무는 워낙 호남아여서 부대에서 인기가 있었고 대담무쌍한 지휘관이어서 온 부대가 더욱 가슴 아파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박색소파에 총이를 안고 장령과 나란히 앉은 큰아버지는 자못 험한 자세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쓸어 주며 말했습니다.

<내 이 녀석이 너무 보구과 땃살적에 우리집에 한 1년간 데려다 키운적이 있는데 장난이 얼마나 세찬지 날이 어둡도록 뒤산토장에서 놀면서 들어 오지 않으니 제 할미가 찾아 가 업포를 놓습니다.>

이녀석, 하람산범이 물어 간다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당장 로친네를 나무랐지요. 사내대장부가 될 애에게 무슨 소린가. 우리 총이 용타, 겁이 없다고 말지요.>

좌중의 군관동지들이 모두 미소를 짓더군요.

<할아버지가 지어 주었다는데 손자들이름이 걸작입니다. 황보총, 황보검.>

총이의 손에 파자를 들려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령동지의 목소리도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총이 아범이 언제인가 집에 들렸을 때 내가 하람산범을 만났던 얘기를 해주었었는데 오늘 다시 하리다.>

그러자 군관동지들의 눈엔 호기심이 돌았습니다.

다.

<경목작업소 소장을 할 때 하람산채벌림지를 확정하느라구 목정밭을 지나 소나무밭을 향하는데 하, 이런 깜짝이라구야. 난데없이 으리으리한 큰 범이 어슬렁어슬렁 쑥대밭을 마주 오는 게 아니겠소. 와플 놀라 섰는데 범은 이미 나를 보구 심리적타산도 한듯이 아주 여유작작한 걸음새더라 말지요. 내가 선것을 보구 그놈두 척 서면서 긴 꼬리를 휘감아 돌리더군요. 갇혀서 털바탕에까만 줄배기 갈범이었지요. 나는 어쩔수 없어 골짜기아래를 향해 비켜 서면서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들고 라이타불을 절걱 켜지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알립니다. 라이타불에 담배불을 붙이고는 퍽! 하고 쏘는 그 불을 그대로 들고 있었수다.

범은 불을 제일 무서워 한다는데 덤벼 들면 이 라이타불을 연방 켜서 기름기가 철철 흐르는 저 털부숭이에 확 불을 지르리라 하구 비장한 생각을 했지요.

헌데 그놈이 먼저 뒤발을 굽히구 나처럼 아래 골짜기를 향해 슬쩍 앉습디다. 얼마나 태연자약한지. 그래 어찌했습니까. 나두 까치다리로 앉아 담배연기를 풀썩풀썩 날렸지요.>

<아버님은 정말 담대하십니다.>

이쪽에 앉은 정치위원이 다 타들어 하얀 재가 누에처럼 붙어 있는 풍조를 재털이에 털며 감탄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또 한번 슬쩍 옆을 보는 순간 범도 나를 보더니 눈길이 마주쳤수다. 그 눈빛이라는 게 각난 유리방망이에 해빛이 부서지듯 몇십각으로 발산하는데 머리가 아찔해 집디다. 그래두 네놈이 짐승이겠지 귀신이겠나 하구 마주 눈총을 쏘았지요. 했더니 이놈이 먼저 눈길을 골짜기아래로 휙 돌리면서 머리를 숙이구 제 발등을 핏더군요.

흠사 우리 집 암고양이 같은 생각이 듭디다. 범도 고양이족속이니 큰 송아지만 한 고양이를 생각 하문 영락없수다.

그 순간에 갈범은 슬쩍 궁뎅이를 들구 까만 줄이 박힌 긴 꼬리를 휘두르고 어깨죽지를 솟구며 골짜기아래로 슬렁슬렁 내려 가는 게 아니겠소. 다행이구나 하는 순간에 뒤통수가 척척해 진게 알립니다.

그놈은 골짜기 흠타구까지 내려 가 훌쩍 저쪽 산협으로 나는듯이 건너 뛰더니 어느새 수림속에 자취를 감추었지요.

긴장에 몰리었던 물숨을 내쉬며 그 자리서 담배를 마저 피구 나도 일어 섰수다.

헌데 어느새 옆산 벼랑코숭이에서 <우르릉-땅> 하는 소리가 터지지 않겠소. 마치 거대한 가족채적으로 산벼랑들을 모조리 휘갈기는 것 같은 굉장한 메아리였습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골짜기아래루 내림다 뛰었지요. 뛰었다기보다 통나무처럼 데굴데굴 굴렀다구 해야 할거우다. 산지합숙에 와보니 옷이 땀물에 폭 절군듯 하구 손등이며 무릎이 온통 피자박이었으니까요.

이틀을 앓았수다. 참 이상하게 오룩이 매시시 해 지구 식은땀이 나는게 꿈쩍 못하겠더라 말이 우다.>

<참 다행이었군요.>

장령동지가 긴장을 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심중한 기색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뭘고 하니 범이란 힘이 센데두 있지만 내려 치는 발통의 힘이 700키로그램이나 된다니까. 문제는 아무래두 사람의 담과 신경이 범에 비기겠소.>

좌중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생각해 보니 당에서 사나운 맹호가 되라는건 그 어떤 천만대적과 맞서두 끄떡 없는 그런 호랑이 같은 담과 용맹을 키우라는게 아닌가 하는거우다. 위풍당당한 조선범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기상이 아닙니까.>

<아버님말씀이 참 옳습니다.>

머리를 연방 끄덕이며 정치위원이 말했습니다.

<헌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 그때 하람산호랑이가 나를 만났던 이유가 있더라 말이우다.>

로인의 의미심장한 말에 좌중의 군관들은 또다시 흥미가 동했습니다.

<이보십시오. 난 그 생비람골의 나무를 찍어낼 잡도리루 림지를 났더랬는데 하람산범이 막아섰단 말이우다. 후에 우린 여러가지 이유로 림지를 산너머 먹골로 옮겼지요. 그런데 한해후에 그 생비람소나무들에서 나라의 만년채보인 혁명적구 호문헌들이 발굴되었수다.

<독립후 조선대통령. 김일성>

<백두광명성 김대장 후계자>

하, 이런 큰 경사가 어디 있겠소. 그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구 우리 하람산은 온 나라에서 찾아오는 답사자들로 들썩하지요.>

잠시 말을 끊고 좌중을 둘러 본 큰아버지는 진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 말을 듣고 저 총이 아범도 심중해 지더군요. 그래 내 마음속에 없어 두었던 속심을 터놓았수다. 지난 날 내나 선친들은 산골막바지에서 토스레웃을 걸치고 죽지 못해 살아 왔는데 이렇게 어엿한 해군지휘관이 되었으니 얼마나 장하나. 우리 장군님께서 키워 주신 배짱을 가진 군대이니 싸움마당에선 언제나 앞장에서 용감해야 한다구요.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원쑤와의 싸움에서는 맹호가 되어 미국놈들을 모조리 바다의 고기밥으로 만들어야 한다구 일러

주었지요.

그랬더니 내 손을 꼭 잡으며 명심하겠노라고 합니다.

적들과의 싸움에서 맹호가 되라고 한 공동사설의 구절이 지금도 내 가슴을 칩니다.>

<신화적인 이야기 같은데 뜻이 깊습니다.>

<아버님, 좋은 말씀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해군장령과 정치위원은 몹시 감동된 어조였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엄숙히 거행된 장례식에 참가하고 형님네 집에서 이틀동안 지냈습니다.

상점책임자를 하는 형수는 정말 훌륭한 녀자였습니다. 산이 무너진것 같은 큰 슬픔을 안고도 오히려 시아버지를 위로해 주었으니까요. 호랑이령감 맡며느리로서는 저만한 녀자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구 생각했지요.

군관가족들이 하는 말이 들려 왔습니다.

<글쎄 모두 아버님을 위로하자구 하는데 그 아버님은 오히려 호랑이이야기로 지휘관들을 감동시켰다지 않아요.>

<범과마주 앉아 담배를 피운 호랑이아바이래요.>

<범같이 생긴 기품을 보라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지요 뭐.>

부대에서는 떠날 때 부대지휘관들이 다 나왔고 형수도 둘째 아들인 검을 안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아버님한테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해병들은 바로 이런 아버님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싸우겠습니다.>

정치위원이 정중한 자세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한이 없습니다. 우리 말의 복수자들은 참으로 많구 끝끝합니다. 그러구 내겐 이 두 해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총아, 검아, 할아버진 가야겠다. 어서 가서 호랑이와 함께 하람산의 3대장군구호문헌을 지켜야 하겠다.>

검이를 안아 올리고 총이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로인은 이런 말을 남기고 먼저 차에 올랐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들은 물론 해군장병들이 바다가도로까지 나와 모두 거수경례로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리농군맹위원장의 이야기가 가슴 뜨겁게 안겨왔다. 평범한 산골로인의 모습에서 자식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맹호로 키우고 있는 이 나라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제 와서 그 손자가 어찌하여 《하람산의 범》을 그리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 4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으나 심한 가물이 계속되어 나무잎마저 잘 피지 않던 지난 4월 초 나는 중학교 6학년 황보총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

《비서선생님, 기뻐 해주십시오. 저의 그림 <하람산의 봄>이 전국학생미술전람회에 입선하였습니다. 직관원아저씨들에게도 저의 고마운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편지를 함께 부칩니다.

저는 인민군대에 나갑니다. 제 소원대로 해군이 되었습니다. 저의 동생은 년초에 영광스럽게도 만경대혁명학원 학생이 되었습니다. 입대전에 비서선생님과 할아버지를 찾아 가 뵙겠습니다....

희소식이였다. 호아바이 손자들일도 기뻐하고 하람산호랑이가 그림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게 된것이 또한 기뻐다.

총이도 그의 할아버지도 서로 만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내가 출장 갔던 사이에 온 편지니 황보령감은 먼저 받았을지도 모른다.

사무실전화종소리가 울렸다. 하람리 리당비서의 목소리였다.

《비서동지, 생비람어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놀란 나는 다우쳐 물었다.

《뭐요? 어디바루, 어떻게 불이 났단 말ियो? 얼마나 번졌소?》

나의 다급한 물음에 리당비서는 몇달째 가물이 든데다가 인적 없는 곳에서 세찬 바람때문에 불이 일었으나 다행히도 인차 발견하고 모두 불끄기에 달라붙었다고 했다.

급히 방송차를 타고 내가 그곳에 달려 갔을 때는 이미 불길이크게 번지지 못하고 다 꺼버린 뒤였다.

수림이 버성긴 칙발에 오르니 불을 끈 사람들이 누가 상했는지 몰켜 서 있었다.

《누가 다쳤소?》

내 목소리를 알고 리당비서, 적위대장, 농근맹위원장들이 째파 검덩이에 매닥질한 열기 띤 얼굴로 나서며 호아바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길을 내주었다. 진료소장이 쓰러진 거인을 봉대로 칭칭 감고 있었다. 우람찬 가슴이 오르내리는걸 보니 그의 심장이 끄떡 없다는 믿음이 갔다.

타다 남은 옷자락, 팔과 다리에 감긴 봉대, 그보다 내의마저 벗겨진 상체와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입과 코만 내놓고 두눈까지 칭칭 감았다.

《담가를 빨리 만들라구.》

리당비서가 뒤통에다 소리쳤다.

안동무가 한팔을 봉대에 감은채 억이 막힌듯 갑자르며 말했다.

《비서동지, 산불은 호아바이가 발견했구 아바이가 결사적으로...》

그는 목이 타는듯 힘들게 마른 침을 삼키고 계속 했다.

《저아래 바위에서 <불이다!> 하는 아바이의 바람 같은 고함소리가 터져서 저와 손동무가 달려 올라 왔습니다.

불은 저아래 고개길가에서부터 번졌는데 견잡을새없이 퍼졌습니다. 아바이는 키 넘는 솔포기 하나를 뽑아서 그루터기를 비자루처럼 틀어 쥐고 불길을 조겨댔습니다. 그래두 불길이 바짝 마른 락엽무지로 번지는데 어쩔수 없었습니다.

<칙발으로 올라 저지선을 치구 맞불질을 하자!>고 아바이가 소리쳐서 우리는 여기 올라 저지선을 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지선이 못 나간 저쪽 왕싸리나무밭쪽에서 불길이 무섭게 황황기습해 오르자 아바이는 번개같이 그리로 몸을 날렸습니다. 삼단같은 푸른 솔포기비자루가 옥옥하는 불길을 퍽퍽 때려 눌렀습니다.

정말 성난호랑이처럼 아바이는 펄펄 뛰었습니다.

우리는 저지선을 넓혀 나갔습니다.

불길을 끄며 내려 가보니 아바이는 옷자락이 펄펄 타는것두 모르구 정신을 잃은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심한 화상을 당했습니다.

정말 아바이가 아니었다면...》

안동무는 마지막 말을 맺지 못하였다.

전장처럼 불에 탄 거대한 나무숲이 아직도 단김을 확확 풍기며 잔 연기를 날렸다.

불 탄 자리는 크지 않았다. 천만다행이었다.

호아바이의 불에 덴 입술이 힘겹게 실룩이였다.

《날 좀... 일으켜... 달라구.》

《조심하십시오, 아바이...》 진료소장이 그를 조심히 눌렀다.

호아바이의 부르튼 입이 가까스레 열렸다.

《비서동무... 불을... 제일 먼저... 발견한건저... 우리 하람산호랑이웨다.》

《뭐요?》

나는 이상하게도 백주에 머리칼이 쭈뼛해 짐을 느꼈다. 모두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 졌다.

《저두 분명 저 창바위꼭대기에서 몇번이나 <으하항!> 하는 범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동무의 말이였다.

락락장송속에 비파형단검처럼 치솟아 3대장군 칭송의 구호나무들이 있는 수리바위를 지켜 선 창바위, 그우에 호수처럼 열린 파란 하늘에 되찾은 두메의 평온을 상징하듯 메비돌기들이 떼 지어 날아 올랐다.

리당비서가 산림감독원과 이곳 작업반원들에게 뒤수습을 하게 하고 인원들을 철수시켰다.

고로쇠채목사이를 쫓아 그물처럼 엮은 담가가 떠받들려있다. 피해자가 대인이어서 10여명의 장정들이 어깨를 들이대었다.

나는 리일군들과 산림감독원들과 함께 산불방지 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불탄 자리에 잣나무를 심을 과업을 주었다.

방송차에 뒤좌석자리를 분해해서 비켜 놓은 가운데자리에 봉대투성이 아버지를 눕혔다. 지금 화상자리의 동통이 얼마나 빠근하겠는가. 군병원에 후송해야 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떠나자는 말이 나가지 않았다. 해줄 말은 다 해주었다. 그래도 무엇인가 못다해 준 말이 뇌리에 감돌면서 이상야릇하게도 딱 집혀지지 않았다.

그렇지, 호랑이가 불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신호해 줬다고 하지 않았는가.

문득 그 호랑이가 저 창바위꼭대기에서 앞발을 척 번디딘채 굽어 보는것만 같았다.

마을을 벗어 나니 불 끄러 왔던 사람들이 길 양쪽으로 비켜 주었다.

치너방송원의 침착하면서도 걱정이 있는 랑랑한 목소리가 앞뒤산을 울렸다.

《산불끄기에서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불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신호해 준것은 하람산호랑이였습니다.

하늘이 낸 절세의 위인들을 칭송하는 만년국보의 문헌을 하람산호랑이도 억세게 지켜 서 있는것입니다.

황보호아바이가 그 신호를 받고 한몫 바쳐 산불을 꺾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신화상을 당했으나 지금 속으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황보호아바이의 맏손자인 황보총이 그린 그림 <하람산의 범>이 전국학생미술전람회에서 1등으로 당선된 소식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울리며 손에 든 쟁기를 휘둘러 대는것이 랑쪽 차창밖에 보였다.

방송에서는 즉흥시가 울려 나왔다.

하람산을 지키는 호랑아 들어 다오

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날아 온

정의로운 맹호

우리는 잊지 않으리라

백두산3대장군을 우러러 받들어

투사들이 새긴 불멸의 글발 정히 지켜 온

너의 기특한 소행을

《거... 한번만 더... <그 랑반이>... 꼭 어디서 들을거요.》

아버지는 호랑이를 <그 랑반>이라고까지 하며 반복해 줄것을 요구했다.

## 수령님 추억속에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설움과 비분을 안고 조국산천을 몇번이고 돌아보았다.

조선아, 조선아, 나는 너를 떠난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는다. 압록강만 건느면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들 내 너를 잊을소냐.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다시 <압록강의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하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니 어린 마음에도 비감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 보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 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였다.》

## 푸른 산악에 메아리치는 인생철학의 교향곡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푸른 산악》에 대하여-

김학

조선은 산이 많은 나라  
(조기천의 《조선은 싸운다》중에서)

선군혁명의 불바람속에 수령형상문학의 면모도  
일신되어 가고 있다.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생애를  
품위있게 형상한 총서작품들이 련이어 창작되고  
있는 가운데 탁월한 군사전략가, 백전백승의 강  
철의 령장의 비범한 위인적풍모를 격조높이 노래  
한 또 하나의 시대의 력작이 세상에 나와 독자들  
을 기쁘게 하고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푸른 산악》  
은 주체적인 수령형상론의 요구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것으로 하여 문단과 독자들에게 주는 영향  
이 자못 크다.

### 심오한 종자미

높은 산은 골이 깊은 법이다. 총서 《불멸의 력  
사》중 장편소설 《푸른 산악》은 형상이 웅심 깊  
다. 그것은 종자가 심오하기때문이다. 그래서 우  
리는 무엇보다먼저 소설의 형상미를 종자미에서  
찾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도 종자를 깊이있게  
심고 주제를 바로세워야 한다.》**

장편소설 《푸른 산악》에는 참으로 심오한 생  
활철학이 종자로 심어 져 있다. 우리는 감히 그  
것을 한마디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다시말  
하여 소설은 인간은 물론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  
서 선택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운명적인 분기점  
이라는것을 밝히고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가장 준엄한 시기의 하  
나였던 조국해방전쟁 4계단, 그중에서 1211고지  
방위전을 전후한 시기는 정녕 우리 조국과 민족,  
매 사람들의 운명에 가장 심각한 선택을 요구한  
준엄한 나날이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운명, 아니  
민족의 생사존망이 일각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시기였다.

소설은 이 력사적시기에 내포되어 있는 심각한  
의미를 정확히 탐구, 포착하고 그것을 의의있는  
심오한 인간문제로 전환시켜 감동 깊은 형상을  
창조하였다.

소설의 표면에 올라 있는 사건은 적의 주타격  
방향이 전선동부냐 아니면 중서부냐, 작전전술적  
전투방식이 《기동전》이나 진지방어전이나 하는  
것이다. 어디를 결정하며 어느 방식을 취해야 전  
투에서 이기고 조국해방전쟁승리의 결정적극면을  
마련하겠는가 하는 군사적문제가 형상의 정면에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설은 선택에 관한 이 문제를 단순히  
전선동부를 결정하고 진지방어전을 취하는것과  
같은 작전전술적인 문제로만 다루지 않았다. 보  
다는 우리 식에 대한 선택으로, 자주적인 삶에  
대한 선택으로 형상을 심화시켜 나갔다. 즉 자주  
적인간의 운명문제에 대한 심오한 생활철학을 밝  
히는 각도에서 군사적인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  
건과 사실들을 전개하고 있다.

두말할것없이 형상의 중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서계시며 철학적으로 탐구된 종  
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해명된다. 조국해방전쟁의 운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 전사들과 인민들의 운명에 관한 문제는 수  
령님께 전적으로 체현되어 있고 수령님의 형상과  
제로 명백히 제시되어 있으며 수령님의 사색과  
활동으로 풀려 나가고 있다.

우리 수령님은 역시 탁월한 천재이시고 전략가  
이시며 령장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다.

고착상태의 전선, 위력정찰과 같은 소규모적인  
공격, 6월 중순부터 개시된 리치웨이의 《도나츠  
작전》이 계속됨에 따라 김화, 철원계선에서 벌어  
지고 있는 국부적인 공방전, 흑가이드의 와다루  
근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 16군단관하 비행대와  
함선들의 모의상륙작전훈련, 유엔주재 당시 쏘  
련대사의 평화호소연설과 그에 따르는 리치웨이  
의 《정전》담판제의...

적들은 무엇을 꿈 꾸고 어디를 노리는가?

민족보위상 최용건, 총참모장 남일, 군단장 최  
현, 정찰국장 강성찬, 전선사령부 참모 로병관을  
비롯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 팽덕회, 전 집  
단군사령관 무정 등 고위급군사지휘관들도 오리  
무중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한다.

오직 천리혜안의 군사적예지와 비범한 작전전  
술적안목, 풍부한 전투경험과 특출한 애국심과  
인간성을 지니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 동지께서만  
이 명철한 과학적판단과 단호한 결심을 내리실수  
있었다.

적의 주타격방향은 전선동부! 우리의 전투방식은 적극적인 산악진지방어전!...

《영예로운 정전》을 피하면서 《성공》의 돌파구를 찾는 적들은 반드시 적극적인 공세로 나올 것이며 그 파구를 전선동부 1211고지계선에서 찾을 것이다. 만약 적들이 전선동부를 포기하려 한다 해도 우리는 기어이 적들을 전선동부의 산악에 끌어 들여 결정적인 강타로 사똥뼉을 분지르고 더는 조선강점의 야망을 품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실로 조국해방전쟁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건 중대한 선택이 아닐수 없다. 소설은 이러한 중대 선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기정사실화, 단순화하지 않고 우리 수령님의 비범하고 자유분방하며 고심어린 사색과 활동의 세계를 폭 넓고 깊게 펼쳐 보임으로써 커다란 형상적감화력을 보장하였다.

정전담판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 적에 대한 해부학적파악, 우리 실정에 대한 전면적인 료해, 고전군사리론으로부터 현대전의 경험과 교훈에 대한 해박한 지식, 형제국가들의 동태와 침략연합세력들의 립장과 태도에 대한 폭 넓은 분석 그리고 여러 인민군지휘관들과 병사들,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평범한 각계층 인민들 등 각이한 인물들과의 관계에 대한 묘사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령장으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위인적품모를 친근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인생은 순간순간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선택의 갈림길과 부단히 맞다들면서 삶이 흘러 간다. 올바른 선택에 의하여 무궁한 번영과 영생을 얻기도 하며 잘못된 순간의 선택으로 하여 영원히 치욕과 멸망의 나락에 굴러 떨어 지기도 한다. 민족도 마찬가지로 조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참다운 선택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진정한 수령의 사상이 있고 령도가 있어야 인간도 민족도 자기 운명의 참된 길을 옳바로 선택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복잡다단한 혁명의 길에 민족의 운명, 인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수많은 선택의 계기에 맞다드셨지만 언제한번 탈선을 모르시였고 가장 옳바르고 정당한 선택을 단행하시여 민족번영의 곧바른 길을 열어 놓으시였다. 소설의 철학적심오성이 여기에 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물론 평범한 전사와 이름 없는 촌놈은이의 운명까지도 책임지셨기에 우리 수령님의 선택은 이처럼 중대하고 이처럼 고심참담하였다는것을 소설은 사실주의적필치로 깊이 있게 파헤치고 있다.

수령님께서 예견하신대로 적들이 전선동부로

달려 들고 수령님의 현명한 지략에 의하여 리치웨이의 《하기공세》가 비참한 종말을 고평하자는 많은 사람들이 적의 주타격방향이 전선서부로 될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실로 적들의 움직임과 내외의 믿음직한 정보들이 그것을 실증해 주고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전히 전선동부에 관심을 두시였고 산악방어전을 강화하도록 하신다. 지어 서부의 6군단을 동부로 진출시키며 기만작전으로 서부로 기동했던 4군단까지 되돌려 세우고 최고사령부예비대도 전선동부를 지원하게 하신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대응단이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천재적군사전략가의 비범한 지략과 담력이 낳은것이라는것을 실재한 력사적 사실의 예술적전형화를 통하여 진실하게 펼쳐보여주는 동시에 그 밑바탕에 깔린 중요한 선택의 기초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박일우에게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

《...지금까지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지역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며 밀치고 끄당기고 하는 식을 제일이라고 했는데 백번 양보해 지역을 무시한다 합시다. 그런데 그 밀치고 끄당기고 하는 사이에 희생되는 전사들을, 그럴 때마다 보집 조차 못 꾸리고 고향집을 떠나는 우리 인민들과 미처 떠나지 못한 인민들의 희생을 무엇으로 보상한단 말입니까.

내가 <한차의 땅도 적에게 내어 주지 말자>고 하는것은 조상대대의 우리 땅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바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희생을 최대한 막기 위한데서부터입니다.》

우리 수령님의 모든 작전적사색과 군사적행동의 기초에는 바로 이러한 불 타는 애국심, 군대와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깔려 있었다.

이 땅의 산악들이 알프스가 아니라 조선의 산악이고 이 땅의 인민과 군대가 패전의식에 차 있던 가르빠짜야의 도이첼란트군이나 마자르군대가 아니라 조선땅의 인민과 군대이라는 관점과 립장, 불리하고 어려운것을 안 이상 그것을 타개할줄 아는 지혜와 지략을 가진것이 우리 군대이고 인민이라는 크나큰 믿음이 바로 우리 수령님으로 하여금 주저없이 전선동부를 결심하게 하였고 산악전, 갱도전, 진지방어전, 습격전, 땅크사냥군조운동,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반포전, 야간전 등을 제시하게 하였으며 화선휴양소를 운영하게 하였고 로병관, 무정, 장천일 등 죄 많은 인간들에게도 재생의 길을 열어 주게 하였던것이다.

군사에서 우리 식이란 자기 인민, 자기 군대에 대한 믿음, 자기 땅, 자기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파악에서 출발한것이다. 때문에 내가 말하



는 우리 식, 우리 식 전범이란 자기를 믿고 자기 인민을 믿고 자기 군대를 믿고 사랑하라! 라는 호소이기도 하다....

이것이 탁월한 정치가, 군사전략가,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특출한 좌우명이고 승리와 영광의 절대적 비결이며 선택의 대명제이다.

참으로 수령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전략적이며 로선적인 무게 있는 형상과제를 제시하면서도 그것이 단순한 역사기록이 아니라 심오한 인간문제를 배태한 철학적인 형상으로 될수 있도록 문학적인 종자를 탐구한 여기에 소설이 거둔 특출한 성과가 있다.

소설은 탐구된 종자가 수령에 의하여 전적으로 해명되게 하면서도 측근인물들을 비롯하여 각이한 계급, 계층의 등장인물들에게도 뚜렷한 형상과제를 주어 선택의 철학이 더욱 풍부하게 해명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군단장 최현의 형상은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그는 작품에 등장하는 최용건, 남일을 비롯한 측근인물들의 일반화된 형상을 체현하면서도 개성이 뚜렷한 전형이다. 사실 최현의 형상은 총서 《불멸의 력사》 해방전편은 물론 해방후편의 소설들에서 적지 않게 취급되었지만 이 소설에서는 보다 완성에 가까운 경지를 보여 주었다고 말할수 있다.

무서운 싸움군이면서도 끝없이 순진한 인간, 자기 수령밖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혁명가들중의 참된 혁명가로서의 그의 성격적품모는 선택의 빛을 받아 더욱 인상 깊게 형상되었다. 한번 맺은 수령과의 동지적우정, 한번 택한 혁명의 길을 신념과 의리로 받아 들이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 한치라도 빛나갈가보아 순간순간을 량심의 저울에 꼭꼭 달아 보고야 집행을 결정하고 방향을 선택하는 최현의 모습은 눈물겹게 정이 간다.

선택의 철학은 전선사령부 참모 로병관이나 항영학련대장, 허가이나 김웅, 무정이나 장천일, 리수복 등 각이한 인물형상에 체현되어 제나름의 심오한 인생리치를 깨우치고 있다.

특히 소설은 주요한 적대적갈등대상으로 설정된 리치웨이나 밴플리트, 리승만이나 송우인을 비롯한 원썬들의 형상도 선택의 철학으로 풀어냄으로써 력사의 진리를 웅심 깊게 확인하고 있다.

적들의 형상을 통하여 선택의 권리는 침략자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며 자주성을 유린하는 그 어떤 선택도 정의의 총칼앞에서는 물거품이라는것, 또 한분의 **김일성** 동지이신 **김정일**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잘못 선택하고 또다시 덤벼든다면 침략자들은 1950년대 그때처럼 영영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하

리라는것을 보여 주는 여기에 또한 종자의 심오성과 시대성이 있다.

잘 여문 종자는 충실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 높은 지성도

산이 크면 그림자도 크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푸른 산악》은 높은 지성도로 하여 인식교양적 및 사상미학적반경이 크다. 즉 소설의 형상미는 지성미이기도 하다.

소설은 전쟁과 인간, 투쟁과 생활, 문학과 현실에 대한 상당히 폭 넓고 깊은 인식과 형상적기교를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의 짧은 한구간에서 자주시대의 전모를 보여 주고 있으며 거대한 력사의 진리를 파헤쳐 드러내고 있다.

불구름이 타래치고 폭음이 진동하지만 그보다 증오의 감정을 론증하는 목소리가 더 크고 사랑의 진리를 밝히는 탐조등이 더 밝으며 자주적인 삶을 찬양하는 교향곡은 더 우렁차다. 작가의 탐구어린 형상의 그 《목소리》, 《탐조등》, 《교향곡》을 타고 참으로 아름다운 미의 세계, 심오한 철학의 세계가 뚜렷이 밝혀 지고 있다.

· 《그런데 장군님부하가 되는것이 간단치 않아.

장군님의 진짜배기부하가 된다는건 장군님과 같이 진다는것이야...》(최현)

· 《최현동무, 이제 돌아 가서 장군님을 뵈거들랑 이 무정이 장군님께 큰 죄를 지었지만... 마음 상으로는 장군님 가까이 있고... 무릎 꿇어 용서를 빌더라고... 꼭 말씀 드려 주오.》(무정)

· 《저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 안은 전사에게는 배신과 변절이 없다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제가 알건대 깨끗하고 고지식한 인간은 절대로 원썬의 편에 설수 없습니다.》(황영숙)

이밖에도 소설에는 사람들이 두고두고 사색할수 있는 운명개척의 새로운 인생철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아름다운 생활세계에 대한 심오한 해명이 있으며 새롭고 풍만한 인식적내용과 함께 지성도가 높은 리치적인 성격들이 창조되어 있다.

독자는 리치웨이의 《하기 및 추기공세》작전을 둘러 싸고 벌어진 적아간의 치열한 심리전과 정보전, 외교전, 우리와 형제국가들과의 관계와 적들내부의 동향, 적아의 무력편성과 군사기술장비상태, 전선과 후방에 취해진 매 계기의 작전전술적조치와 대책적인 명령, 우리 당과 군대, 고위인물들의 사상적태도와 견해, 적우두머리들의 경력과 취미, 전술수법, 선행교전군사리론과 현대군

사리론, 1211고지를 비롯한 전선동부의 자연지리적 상태와 행정구역분포, 주민구성, 갯도전, 습격전, 반포전을 비롯한 우리 식 전투조법 등 실재한 역사적사건과 사실, 인물, 지명, 지형, 이론, 전법 등에 대해 참으로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 한마디로 소설은 《전쟁백과사전》이라고 말할수 있다.

특히 소설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무려 40여명의 적아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누구도 성격화되지 않은 인물이 없다.

자기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과 군사실력이 겸비된 최현, 최용건, 남일 등 고위군사지휘관들은 물론 조국과 인생, 사랑과 혁명에 대해 올바른 지론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참담게 개척해 나가는 로병관, 황영학, 황영숙, 강성찬, 김철규, 권석찬, 림운학, 성련화와 같은 젊은 지휘관들 그리고 리수복, 마정옥, 정미순, 장천일, 김만산을 비롯한 전사들과 촌놈은이까지도 모두 제 나름의 지성미를 갖추고 있다. 지어 김웅이나 허가이, 박일우 까지도 작가는 높은 지성세계에서 그려 냄으로써 소설의 무게를 한층 돋우고 있다.

소설이 리치웨이, 밴플리트, 브렛들리, 리승만, 리종찬, 백선엽, 송우인, 보튼, 송우식을 비롯한 미군과 피뢰군의 고위장성들과 사병들을 개성화한것은 주목할만 한 측면이다. 어느 독자가 말했듯이 《적의 성격을 매우 단수 있게 형상》하였다.

소설은 침략과 전쟁만을 일삼는 놈들이라고 하여 일면적으로 무모하고 무지하며 저속한 속물로만 그리지 않았다. 로회한 책략과 풍부한 실전경험을 가지고 빈틈없이 작전을 펴는 리치웨이, 밴플리트 등 아메리카의 《백전로장》들, 그들은 자기식의 인생관을 가지고 국가와 대통령의 신임에 《보답》하려 《용진분투》한다. 《우방국》의 《대통령》을 깎듯이 존대할줄도 알며 《벗》들에 대

해서는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관심》할줄도 안다. 필요하다면 전투토를 쓰고 일선격전장에 나가기도 하고 자기들의 가까운 《벗》을 《아쉬움》속에 없애 버리기도 하며 유치한 《전선위문단》을 제책 하면서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피뢰들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의 권력보다 늙은이의 하소와 《국부》의 《책임감》으로 자기의 전쟁확대계획을 력설할줄 아는 리승만, 미군고위 장성들앞에서도 자기의 작전전술적견해를 당당히 주장할줄 아는 리종찬, 자기 군단병사들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강경히 《항의》할줄 아는 백선엽, 《뜻》을 따르고 《뜻》에 살기 위해 애쓰는 송우인, 《꽃피는 산골》과 애인을 애모르게 사랑하는 송우식...

만만치 않은 적들이다.

적에 대한 이러한 성격형상이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승리의 무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부각에 얼마나 커다란 반증적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수령형상작품일수록 지성도가 높아야 한다. 그 래야 《사화산》에서도 《푸른 산악》을 볼수 있다.

×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푸른 산악》의 《산악미》를 겨우 한귀통이나 들춰 보고 펜을 놓자니 아쉬운감이 든다. 다양한 색깔로 채색된 풍만한 정서, 집약과 집중에 기초한 립체적구성, 생동한 묘사를 담보한 재치 있는 언어구사, 생활론리에 충실한 각종 형상수법... 다 못한 말은 다음기회로 미룬다.

《50년 여름》에 떠나 오늘은 《푸른 산악》에 올라 선 《전쟁작가》여, 그대가 다음에 타고 앉을 명작의 봉우리는 어디메냐!

## 명언해설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한 말을 할수 있고 진실한 작가만이 진실한 작품을 써낼수 있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에는 진실한 작품을 써내는가 못 써내는가 하는것이 전적으로 작가자신의 진실성에 달려 있다는 뜻이 담겨 져 있다.

작품은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그려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그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다. 작품에서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그려 내자면 작가자신이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지닌 진실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지니지 못한 작가는 현실에 진심으로 공감할수 없고 생활의 진실을 써낼수 없다. 작가가 진실한 작품을 써내는가 못 써내는가 하는것은 결국 예술적기교나 문필기량과 관련되는 기술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작가의 사상적수양정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 이 땅의 재부

손영복

가을이 왔다.

거친 들바람과 띄약별에 살을 익히우며 온 한해 땅을 걸고 난알을 키워 온 사람들이 남 모르는 궁지와 희열을 맛 보는 그런 계절- 오곡이 무르 익는 계절이 왔다...

한오복은 논둑우에 그린듯이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도 일망무제하게 펼쳐 진 누런 벼바다의 한복판에 뿌리박힌 자그마한 바위등 같았다.

키도 작고 몸집도 체소하지만 70객의 늙은이 같지 않게 허리는 꼳꼳했다.

한때는 한개 작업반의 농사일을 두어깨우에 짊어지고 온벌을 드달려 다니던 녀인이었건만 혈기에 넘쳐 있던 별에 찌든 얼굴에도 세월은 수십갈래의 얼기설기한 주름살들을 새겨 놓았고 머리에는 백발을 엮어 놓았다.

70년이라는 줄기찬 세월의 흐름도 어찌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의 얼굴에 배여 있는 천성적인 그 선량함과 온화함일것이다.

아직도 꿈처럼 생각되었다.

단발머리 조수처녀의 손에 이끌려 허둥지둥 논벌로 달려 나오던 일이며 담장처럼 둘러 선 술한 사람들앞에 웅색스레 나섰던 일... 안개속처럼 몽롱한 가운데서도 중앙에서 내려 왔다는 풍채 좋은 사람이 한 말만은 아직도 귀속에 깊숙이 박혀 한씨의 가슴을 뒤설레이게 했다.

《연구사동무가 없으니 어머니의 승인을 받아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 벼이삭을 뒤쭈정도 베퍼 가도 일 없겠습니까? 아버지수령님께 올리자고 합니다.

한평생 우리 인민들에게 흰 쌀밥을 먹이시기 위해 마음 쓰시는 우리 수령님께서 이 벼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관리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시험포전을 돌아 보았다고 했다.

벌에 가득 몰려 나왔던 사람들이 들어 간지도 인젠 퍼그나 되었다.

점심참이어서 인적 없는 벌은 조용했다.

통통 살이 오른 풀메뚜기들이 한씨의 무릎이며 어깨, 지어는 무엄하게도 백발의 머리우에까지 주저없이 훌쩍훌쩍 뛰어 올랐다.

가느다란 한줄기 바람이 불어 왔다. 알릴듯말듯한 그 바람결에도 무겁게 고개를 숙인 벼이삭들이 서로 머리를 맞비비며 정겨운 설레임을 일킨다.

시험포전의 벼는 볼수록 흐뭇하였다. 벼알들의

크기가 거의 팔알만 한데다 알수도 많아서 실한 벼대들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한열으로 기울기울한채 간신히 몸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앙에서 내려왔다는 그 사람들도 이 벼를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았던가.

한생 농사일로 늙어 온 한씨로서도 처음 보는 벼였다.

한씨는 아들과 자기의 소원, 아니 한생의 전부가 담겼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살찐 벼이삭들을 한아름되게 그러안고 주름진 볼에 가볍게 비비었다.

깔끔한 감촉마저도 더없이 사랑스러이 느껴졌다.

(진억이가... 내 아들이 성공했단 말이지? 그래서... 평양에...)

한씨는 눈굽에 서서히 고여 오르는 눈물을 훔칠 녀도 안했다.

보느니 없고 듣느니 없는 이 넓디넓은 들판의 난알향기속에 온 몸을 잠그고 진정할길 없는 가슴속 행복감을 조용히 마음껏 누리고 싶었다.

피로왔고 힘겨웠던 지난 날들의 일들이 따듯하고 즐거운 감회속에 눈앞으로 어롱어롱 비껴 든다...

교교한 달빛이 흐르는 여름 밤.

한오복은 아궁이에서 구워 낸 감자 몇알을 싸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찾아 벌로 나갔다.

무연히 펼쳐 진 논벌의 한끝, 그곳에 손바닥만 한 빈 땅을 제 손으로 일구어 자작 이름을 붙인 아들 진억이의 《시험포전》이 있다.

밤이고 낮이고 아들은 거기에 붙어 살았다.

그 《시험포전》에서는 키가 쨍쨍한 벼와 두뿔도 되나마나한 난쟁이 벼, 파랗고 노랗고 지어는 새빨강기도 한 각양각색의 처음 보는 벼모들이 푸르싱싱 자라고 있다.

논둑에 쭈그리고 앉은 아들은 그 벼포기들밖의 모든것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애야, 배 고프겠구나.》

한씨는 논둑우에 감자를 싼 종이꾸레미를 퍼놓았다.

아들은 한번 피긔 돌아 보았을뿐이다.

《어머니, 이 꺾다리를 좀 보세요. 하루사이에 키가 8센치미터 컸어요.》

벼포기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동자에서 달빛이 천만갈래로 부서졌다.

《원, 무슨 놀음인지.》

그 말에 아들이 몸을 이쪽으로 돌렸다.

《어머니두 그렇게 보시나요?》

아들의 서운해 하는 기색에 한씨는 당황해 갔다.

《제 자식은 나이가 60이 넘어도 어머니눈엔 아들로 보이는 법이란다. 하는 일두 그렇고… 자.》

한씨는 껌질 벗긴 감자를 아들의 입에 넣어 주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넓은 벌 멀리로 눈길을 준채 뭔가 깊은 생각을 쫓고 있었다.

《어머니, 제 말을 좀 들어 보겠어요?》

한씨는 대답의 뜻으로 달빛에 선명히 드러난 곱슬머리며 처너처럼 곱게 생긴 아들의 얼굴을 웃음 짓고 바라보았다.

아들은 여느때없이 심중한 기색이었다.

《어머니, 난 요즘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알곡소출을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지대적특성에 맞는 종자를 심어야 해요. 그렇기때문에 오래전부터 당에서도 종자혁명방침을 제시했다는거야 어머니도 잘 알지요. 그래서 전 이제부터 벼품종 연구를 해볼 결심이에요.》

《너석두, 이발두 없이 콩 깨물 생각을 한다더니…》

한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셔 졌다.

아들의 짙은 눈썹밑에서 이글이글 타번지는 불길을 보았던것이다. 그속에는 이미 움직일수 없는 고집스럽고 완강해 보이는 결심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

《너… 그게 진정으로 하는 말이나?》

《어머니, 난 제대된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농장의 필지별 토양분석표와 거기에 뿌려진 벼품종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았어요.》

그랬었구나. 그런 속 깊은 생각이 있어 매일같이 벌에 붙어 있는걸 한씨는 여직껏 갑갑증에 못이겨 바람을 쏘이러 나가 있는줄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니 이것은 하루이틀 생각한 일이 아니었다.

아들의 결심이 너무도 엄청나고 너무도 어별이 커서 한씨는 지지해야 할지 반대해야 할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나가 최전연분계선에서 경계군무를 수행하던 아들은 불의에 침입해 온 적들과의 싸움에서 허리와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고 군사복무 불가능으로 한달전에 제대되었다. 군의소치료를 몇달동안 받아 비교적 완쾌 되었다고는 하지만 한씨가 보기에는 아직 허리를 쓸 때면 몹시 불편해 하군 한다.

《애야, 어머니로선 네 생각이 기특하고 나무랄데 없다만… 넌 영예군인이다. 몸도 불편하고 또 아는것두 많지 못한데…》

아들이 가볍게 손바닥으로 한씨의 입을 막았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비껴 있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더 피로운거예요. 눈을 편

히 뜨고 어떻게 국가의 혜택만 받고 있겠나요. 그렇다고 육체적으로는 남들만큼 할수 없고… 그래서 농장대학에서 배우면서 연구사업을 할 결심이에요. 군사복무를 한다는 심정으로 달라붙으면 못 할 일이 있겠나요 뭐.》

진억이의 눈은 저 멀리 아득한 벌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두손만은 한씨의 꺼칠한 손잔등을 하염없이 쓸어 만지고 있었다.

《어머니, 전 한생 농사일을 해온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알곡소출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아글타글 애써왔는지도… 그래서… 꼭 성공시켜 우리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시려는 우리 수령님께 조그마한 기쁨이라도 드리고 싶은것이 저의 소원이예요.》

한씨는 흥분을 건잡지 못해 웅이처럼 마디진 두 손으로 아들의 땅땅한 근육이 배긴 두팔을 꼭 그러 잡았다.

《진억아, 네가 다 자랐구나.》

자식의 훌륭한 성장에서 느끼는 어머니들의 기쁨을 그 무엇에 비길수 있랴.

정열적으로 번쩍이는 두눈, 짙 벌어진 어깨, 아들의 모습이 거인으로 안겨 왔다. 사랑스러웠다. 모든것을 의지하고 싶도록 믿음이 갔다.

《진억아, 힘껏 해보자꾸나, 이 어머니가 너의 팔다리가 되겠다. 그래서… 꼭 성공하여 우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꾸나.》

《고마워요, 어머니.》

《윈, 너석두, 어머니한텐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단다.》

조용한 밤, 푸른 벼포기들만이 훈풍에 가벼이 설레이는 넓은 들 한끝에서 한씨는 이렇듯 조용히 아들의 희망우에 이루지 못한 자기의 소원을 덧씌었다.

…

치마를 질끈 동이고 진억이에게 《서재》를 꾸려 주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옷방의 짐작들을 모두 들어내고 벽지를 바르고 장판을 하는데 꼬박 3일 품을 놓았다.

그 다음에는 넓은 벌의 구석구석 빈땅을 두저논을 일구고 《시험포전》을 만들었다.

벼시험연구는 그대로 웅군 농사일이였다.

밀거름주기로부터 시작하여 논풀기, 모내기, 물온도조절, 비료주기, 김매기, 가을수확…

손바닥 같은 《시험포전》들이었지만 여기저기 널려 있다나니 공정은 공정대로, 품은 품대로 곱절이나 더 들었다.

한씨는 진억이의 허리병이 도질가봐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힘겨운 농사일을 혼자서 도맡아 했다. 콩 튀듯 바쁜 속에서도 한씨는 나홀로 한번씩은 어김없이 도와 군도서관으로 수십리길을 오르내렸다. 이 길에서 책을 가슴에 품은채 쏟아지는 눈비도 헤아릴수 없이 맞았다.

어느 해 해토무렵.

시험포전때문에 걱정하는 아들을 보다못해 한씨는 아침부터 팔을 걷어 붙이고 집앞의 터밭을 논으로 푸는 일에 달라 붙었다.

쭉갓, 부루, 마늘을 비롯해서 철 따라 햇남새를 심어 먹으며 나들이 왔다 가는 딸들에게도 한짐씩 지워 보내군 하던 터밭이었다.

점심참에 대문을 열고 들어서던 진억이는 처음에는 놀라는듯 하더니 인차 모든것을 깨달은듯 코멘 소리를 하였다.

《어머니, 이 터밭을 없애면...》

《뭐라냐? 이게 무슨 큰거라구. 네 일만 잘될수 있다면 아까울게 아무것도 없다.》

진억이는 성큼성큼 다가와서 삽을 덩석 잡았다.

《어머니, 제가 마저 하겠어요.》

한씨는 기겁을 해서 아들의 손에서 삽을 빼앗았다.

《아이구, 놔둬라. 허리 상할라. 시간이 있으면 글이라도 한자 더 읽어라.》

《어머니두 참, 날 귀공자로 만들셈이예요?》

진억이는 다짜고짜로 거뿔해 질대로 거뿔해 지고 흙투성이가 된 한씨를 두팔로 닝큼 들어 안았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는 웃었으나 말은 울먹울먹하였다.

《원, 또 고맙단 소리. 어서 내려 내려. 간지럽구나.》

이른 아침부터 꼬바기 돌을 취내고 옷쪽 우물에서부터 오불꼬불한 도랑을 파서 물을 끌어오느라 힘에 부쳤던 몸이 병긋하는 아들의 웃음 한번에 씻은듯 가서 졌다.

힘겹고 피로운 일이 많았지만 한씨는 그런 티를 한번도 보이지 않았다.

아들이 보는 책이 천정높이 쌓이고 그가 교잡하여 뿌려 놓은 벼품종들이 시험포전에서 푸르싱싱 자라는것이 그대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다.

그해 가을 한씨는 터밭 시험포전에서 쭉정이벼들을 걷어 들었다. 다른 시험포전들도 다름바 없었다.

세해째 실패였다.

아글타글 바쳐 온 정성과 부풀었던 희망이 또 다시 재로 타버렸다.

진억이는 일어 설 기운도 없는지 쭉정이벼단을 깔고 앉은채 한식경이 되도록 일어 설줄 몰랐다.

어깨가 축 늘어진 그 모습이 측은하기 그지 없었다.

그래도 한씨가 먼저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세웠다.

가슴속 깊은 소원과 잊혀 지지 않는 남편의 간곡한 당부가 어머니로서의 의무감을 깨닫게 했다.

《진억아, 래년에 또 해보자꾸나. 준비를 잘해가지구...》

그때야야 비로소 진억이는 무겁게 떨구고 있던 고개를 서서히 쳐들었다. 눈물이 어린듯 싶은 맑은 두눈엔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짙게 어려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가 곁에 있어 난 주저않지 않아요.》

두해후에 진억이는 농장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때부터 그는 방향을 바꾸어 육종연구에 달라 붙었다.

경험을 보면 교잡으로 변이시킨 품종들은 성공한다 해도 퇴화를 막을수 없다는것이였다. 실용성과 안정성이 담보된 소출이 높은 품종을 얻자면 하나의 새로운 생물체를 만들어야 하는 육종연구를 해야 한다는것이 아들의 결심이였다.

관리위원회와 리당에서도 진억이의 연구사업에 관심을 돌려 그가 겨울에도 시험연구를 할수 있도록 실험실이 달린 자그마한 온실도 해결해 주었다.

그때부터 진억이의 《서재》는 실험실로 옮겨 졌다.

힘에 부친 육종연구의 새 걸음이 시작되였다.

그와 함께 매일 불도 때주고 밤도 날라 줘야 하는 한씨의 몸은 더욱더 바빠졌다.

눈물과 기쁨, 실패와 좌절의 엇갈림속에서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이렇게 흘러 갔다.

사람이 체험할수 있는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들을 속속들이 감수해 온 그 세월끝에 오늘의 행복이 찾아 왔다.

진억이 나이도 어느덧 서른세살, 눈이 맞아 약속한 선아라는 처녀가 있지만 성공하기전에는 장가를 가지 않는다고 고집이어서 몇년째 혼례를 미루고 있다....

문득 인기척이 났다.

차길옆 논둑길로 큰 키를 구부정하고 최덕근이 걸어 오고 있었다. 한씨가 작업반장을 하던 시절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던 사람인데 집에 들어 온지 몇년 안팎에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졌다.

《내 글썽 여기 있을줄 짐작이 가더라니.》

그는 멀리서부터 군소리인사를 하며 다가왔다.

《에그, 부위원장이 어떻게...》

한씨는 옛 그대로 부위원장이라고 불렀다.

《어떻게가 뭐요. 지금 마을에선 진억이가 연구한 벼가 평양으로 올라 간다구 소문이퍼져 굉장하우다. 허- 거 정말 볼수록 희한하다.》

최덕근은 찾아 온 목적을 잊어 버린듯 막대기 하나 들어 갈 틈 없는 시험포전을 휘- 둘러 보며 연방 고개방아를 찼었다.

《이만한 품종이면 이전에 비해 두배의 소출은 문제 없을것 같습다.》

《글쎄… 그렇게 될가요?》

《하여간 진억이가 용킨 용수다. 그렇게 독하게 달라 붙더니… 그런데 황해도로 출장 간 진억이는 언제 오슈?》

《오늘 아침차로 오겠다면데… 약속을 그렇게 했다우.》

한씨는 비로소 진억이의 출장목적이 돌이켜지면서 은근한 걱정이 갈마들어 입을 다물었다.

진억이는 도 농업대학 선생들의 도움으로 매해 대학 시험포전 한쪽 귀퉁이에 자기의 시험버를 심곤 했었다. 이번에도 그 결과를 보기 위해 이틀전에 출장을 떠났다. 그가 돌아 왔다면 여기 시험포전부터 들렸을것인데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그곳 벼시험결과도 궁금하고 아들의 눈도 걱정스러웠다.

진억이는 이태전 눈수술을 한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도수높은 안경을 끼고 다녔다.

그 안경이 없이는 열결음앞도 잘 보지 못했다. 잘못 부주의하여 그 안경을 떨어뜨릴가봐 한씨는 늘 가슴속에 근심을 안고 살았다.

《거기서두 평장할거우다.》

최덕근은 감개무량한 빛을 감추지 못한채 부시럭거리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글쎄, 어떨런지… 진억이 말이 이 벼종자가 그쪽 지방의 지대와 기후에도 적합한 품종이라긴 함디다만…》

《대단하지요. 기본곡창지대에 맞는 품종이라면서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수. 허.》

말을 할 때면 긴 팔을 자주 내젓는것이 특징인 최덕근은 손에서 담배대가 떨어 지는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논둑우에 쭈그리고 앉더니 솔뚜껑 같은 손으로 벼이삭을 한줌 쥐고 비비작거리었다.

《진억이 아버지가 살아 있어 이 벼를 볼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 하겠수. 알곡소출을 높여 보겠다구 그렇게도 애를 쓰더니…》

추연한 생각에 잠겨 든듯 최덕근의 목소리는 갈려 있었다.

한씨도 불시에 떠오르는 령감생각으로 코허리가 매와왔다.

최덕근의 옆에서 멀지 않은 논둑우에 큼직하게 찍혀진채로 굳어진 밭자욱이 눈에 얼핏 띄웠다.

보통사람의 두배는 실히 될듯 한 밭자욱이다.

남편의 발이 이렇게 컸었다.

이 벌, 이 논둑 구석구석에 저렇듯 매생이만한 남편의 밭자욱이 찍히지 않은 곳이 없을것이다.

땅을 걸구느라 노상 벌에서 산 령감…

어느해인지 남편은 해마다 열리는 농업대회에 방청으로 참가했었다.

회의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다 돌아 왔지만 남편만은 날이 어두워 지도록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누구도 사연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꼬바기 기다리다 못해 한씨는 불쑥 짚이는데가 있어 부랴부랴 차비를 하고 어둠 깔린 벌로 나갔다. 눈덮인 벌판은 바람까지 불어 몹시 추웠다. 몸이 서늘히 얼어 들무렵에야 한씨는 수로둑우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남편을 찾아 냈다.

남편은 한씨가 곁에 다가오는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곰처럼 웅크리고 앉아 담배만 뻑뻑 빨고 있었다. 남들처럼 평양상점들에서 집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줄 기념품을 사가지고 웃으며 집으로 들어설 생각도 못하고 논벌에 나와 날 저물도록 앉아있는걸 보니 남편의 마음이 편안치 않음이 분명했다. 이전에도 속이 타는 일이 있을 때면 저렇게 벌에 나와 밤늦도록 앉아 있곤 했었다.

《여보, 감기 들겠어요.》

한씨는 남편의 심중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히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남편은 목석처럼 굳어 진채 여전히 망연한 눈길을 벌에 주고 있었다. 얼굴에는 무거운 먹장구름이 실려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한씨는 슬며시 얼음처럼 찬 남편의 손을 자기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렇게라도 위로해 주고 싶었다.

그제서야 남편은 땅이 꺼지게 황소숨을 내쉬더니 한씨를 돌아 보았다.

《여보, 난… 자격두 없는 놈이 수령님을 모신 회의에 참가했댔소. 난 머리를 들수가 없었소. 부끄럽구… 가책되는바가 많아서… 정당소출을 많이 낸 사람들은 뽕뽕하게 체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글쎄… 난…》

남편은 성이 난듯 불쑥 손을 뽑더니 한씨의 웅송그린 어깨를 짖 그러 안았다.

《여보, 수령님께서 정보당 10톤수확을 내는 농장에는 자신이 힘들어도 꼭 나와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였소. 여보, 당신이나 나나 이제부터 더욱 분발해서 정당수확고를 높이자구. 응? 이젠 우리 농민의 본분이야. 그래서 우리 농장에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잔 말이요. 알겠소?》

《당신이… 그래서…》

한씨는 불길이 이글거리는 남편의 부리부리한 눈을 넋없이 바라보았다.

그때부터 그들 부부작업반장에게는 낮과 밤이 따로 없었다.

남 다 자는 깊은 밤에 등껍질이 벗겨 지도록 지나른 거름만 해도 앞벌의 운동장같은 물웅덩이를 메우고도 남을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억척스럽고 근면하던 남편은 너무도 빨리 곁을 떠났다.

마지막눈을 감으면서 그는 나무뿌리같은 껏껏한 손으로 한씨의 손을 부스러뜨릴듯 힘껏 움켜잡았다.

《어떻게 해서나 수확고를 높여… 우리 수령님

을 농장에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아, 이 몸이 죽어서라도 벼알 한알이라도 살 찌울수만 있다면... 얼마나... 미안하오. 당신에게 모든걸 말하고 가오. 당만을 위해 산... 이 농군의 인생을 옥되지 않게 하여 주오.》

땅처럼 묵묵히 산 사람이였다. 남을 속일줄도 몰랐고 한생 자기의 가식 없는 진정을 수격수격 땅속에 다 쏟아 부었다.

한씨는 고지식한 마음 그대로인 청동으로 빛은 듯 싶은 남편의 통투무례한 얼굴우에 후드득 눈물을 쏟았다.

《당신의 뭉까지... 합쳐... 진억이 아버지-》

한씨는 연약한 어깨우에 이제는 자기의 소원으로 된 남편의 그 소망을 무겁게 올려 쌓았다.

벌에서 비바람 눈바람 다 맞으며 아글타글 뛰고 또 뛰는 속에 날이 가고 달이 갔다.

흐르는 세월은 해가 다르게 그의 머리에서 검은 윤기를 몰아 내고 기력도 뺏아 갔다.

은퇴- 이것으로 가슴에 남 모르게 안고 산 모든 것은 욕망으로만 남았다.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자기의것으로 받아 안았고 오늘은 성공이라는 눈물겨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아들이 그토록 장하고 더없이 고마왔다...

문득 생각난듯 최덕근이 허리를 펴며 한씨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자, 빨리 들어 가보슈. 여긴 내가 누구두 알썬 못하게 이렇게 말쑥처럼 지키구 있으리다. 지금 마을사람들이 진억이 어머닐 얼마나 찾구 있는 줄 아시우. 축하해 주겠대구... 암, 그래야지요. 우리 농장이 생겨 언제 이런 일이 있어 봤을라구. 허허, 그리구 저 점심밥은 우리 선아가 집에 돌려 해놓았을거우다.》

《에그, 또 그런 페를...》

《무슨 소릴. 인제야 네 집일, 내 집일이 따로 있소.》

한씨는 웃음집이 흔들거렸다. 작년 초만 해도 그해중으로 혼사를 못하겠으면 선아를 다른데 주겠다고 《최후통첩》을 해왔던 그가 지금에 와선 자기 집사람이 다된듯이 행세하군 한다.

한참 가다 뒤돌아 보니 최덕근은 긴 팔을 휘휘 저으며 논밭을 돌아 보고 있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인간적으로 형님, 동생 하며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였다.

그는 한씨네 집에 와서도 4작업반장을 하는 한씨보고는 《4반》, 2작업반장을 하는 남편보고는 《2반》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밤이 느지막해서 최덕근이 한씨네 집문을 두드렸다.

《4반은 있는데 2반은 또 어딜 갔슈?》

그의 입에서 술냄새가 풍겼다.

《아직 벌에서 안 들어 왔수다.》

한씨의 말에 그는 섭섭하다는듯 쿵쿵 코소리를 냈다.

《참 고정한 형님... 오늘이 내 귀 빠진 날이라구 그만큼 일찍 들어 오겠는데... 음.》

그리고는 기어이 자기 생일술을 한잔 권한다면 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 가버렸다.

그의 억지다짐에 끌려 논밭 한가운데서 한잔 나누었는지 남편은 밤이 퍼그나 늦어 들어 왔었다.

남편이 없는 다음에도 최덕근은 제사날을 잊지 않고 꼭꼭 찾아 왔다.

그러던 그가 남편이 돌아 간지 세해째 되는 가을 한씨의 가슴에 아픈 못을 박을줄이야.

예상수확고판정때였다.

한오복이 강습 갔다가 돌아 와보니 작업반의 예상수확고가 예견보다 훨씬 높았다. 알고보니 제일 잘된 논의 평뜨기를 기준으로 잡았다는것이 다.

기술지도원은 부위원장 최덕근의 지시대로 했다고 한다. 아니 최덕근은 지시를 주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직접 작업반에 내려 와 평뜨기 전과정을 지켜 보았다고 한다.

한씨는 대뜸 그것이 자기를 위해 주려는 일임을 깨달았다. 고맙다기보다 겁이 났다.

(어쩌면... 선아 아버지가...)

한씨는 점심밥생각도 까맣게 잊은채 부위원장을 찾아 운별을 해대었다. 다행히도 인적 드문 논둑 길에서 그와 마주쳤다.

《아, 진억이 어머니, 먼 길에 수골 했수다.》 그의 반색에 한씨는 머리수건을 벗어 쥐는것으로써 다소곳이 답례를 했다.

《그런데... 얼굴색이 좋질 않수다.》

《저... 부위원장동무...》

왜서인지 공식적인 부름이 나갔다.

《우리 작업반의 예상수확고판정을 다시 하게 해주세요.》

최덕근은 처음에 놀란듯 하더니 리해가 된다는듯 말없이 천천히 담배를 붙여 물었다.

《음, 그때문에... 반장동무, 그 문젠 나한테 맡기우. 오늘은 피곤하겠는데 들어 가서 좀 쉬우다.》

한씨는 왜서인지 눈물이 나오려는것을 간신히 참았다.

《이런 일을 두고 제가 어떻게...》

고집스레 서 있는 한씨를 보다못해 최덕근이 답답한듯 입을 꾹꾹 다시며 혼자소리를 했다.

《하기야... 고지식함에서 량주가 어느 짝에도

기울지 않을 사람들이니... 자, 좀 앉읍시다.》

최덕근은 앉았으나 한씨는 여전히 서 있었다.

최덕근은 담배 한대를 갈아대고 나서 뜨직뜨직 설복조로 사연을 설명했다.

최근 농장이 알곡수확고를 높이지 못해 동네북

처럼 얻어맞는다는것, 올해에도 평양에서 농업대회가 있을것이 예견된다는것, 다른 농장들에서는 저희 대표들을 평양에 보낸다고 벽적 뚫는데 우리 농장에서 한명도 보내지 못하면 농장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농경지가 어떻소, 조건이 어떻소 하지만 어쨌든 실적으로 모든것이 계산된다는것 등등... 그러면서 이렇게 뒤를 붙였다.

《현재실적도 4작업반이 제일 높구... 또 진억이 어머니가 반장사업을 오래 해오면서 고생두 많이 했구... 그래서 난 평양회의에 올라 가는 행운이 진억이 어머니에게 차레지길 바랄뿐이요. 이젠 진억이 아버지와의 우정을 귀중히 여기는 이 최덕근이의 진심이요.》

종내 한씨는 눈물을 알각 쏟았다. 수건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땅만을 위해 산 이 농군의 한생을 욕되지 않게 해주요.》

남편이 남긴 이 마지막말이 가슴을 쿵 찢었다. 오직 량심 하나만을 바치며 산 남편과 자기의 생이 불쌍한 동정의 대상으로 된듯 한 서러움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한씨는 지금껏 최덕근이 제 집일에 이모저모 원심을 써주는것을 고맙게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한씨는 속이 떨려 나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선아 아버지, 날... 잘 알지 않나요. 다시는... 나라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한씨는 조금 더 있으면 최덕근의 가슴에 못 박힐 그런 소리가 마구 쏟아져 나올것 같아 획 몸을 돌려 논둑길을 달려 갔다.

빨리 가서 일을 바로 잡는것이 더 급했다.

마을로 돌아 온 한씨는 즉시에 온 작업반을 동원하여 이들에 걸쳐 평뜨기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그후에 최덕근은 비판도 받고 한씨를 찾아 와서 진심으로 자기를 위로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도 한씨에겐 좋지 않은 감정으로 추억되곤 한다.

그런데 생활이란 얼마나 오묘한가.

최덕근의 막내딸 선아가 진억이와 눈이 맞을줄이야

×

한씨의 집은 분주했다.

리당비서가 왔다 갔고 이웃들이 찾아 왔다.

《축하해요, 진억이 어머니.》

《에그, 얼마나 기쁘겠수. 고생한 보람이 있지.》

오는 사람마다 닭알꾸레미에 갖가지 수산물들, 닭이며 사과광주리를 들고 와서 토방우에 놓을 자리 없이 그득히 쌓였다.

온 농장의 관심속에 든 한씨는 행복감으로 안절부절 못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뜨음해 질무렵 선아의 어머니가 대문으로 들어 섰다. 령감과 반대로 몸이 절구통같이 뚱뚱한 로친은 대문도 옆으로 서서 들어왔다.

《진억이가 늦어 지누만요.》

그는 손에 들고 온 목직해 보이는 물건을 토방우에 내려 놓고 보자기를 풀었다. 큼직한 잉어가 그려져 있는 사기단지였다.

《황구렁이술이예요. 3년동안 땅에 묻어 두었던 건데 진억이 몸보신에 쓰시우.》

향긋한 술냄새가 풍겼다.

한씨는 덴갑을 해서 손을 내저었다. 모름지기 령감의 건강을 위해서 선아 어머니가 지성을 바쳤을 술일것이다.

《제발 이러지 마시우. 무슨 큰일을 했대구... 다들 이러니 정말...》

한씨의 말은 오히려 선아 어머니의 노여움을 샀다.

《어이구, 큰일날 소리. 그래 진억이가 한 일을 누가 또 할수 있겠수? 어림 없지요.》

선아 어머니는 한씨가 웅색할 정도로 진억이 칭찬을 늘어 놓고나서 한씨의 옆에 와서 토방에 걸터앉았다. 그리고는 올해 농장의 농사형편이며 날씨에 대하여 얘기를 하다가 가을걷이나 끝나면 애들의 잔치를 차려 주자는 의미가 담긴 말을 술쩍 비치고는 자리에서 움쭉 일어 났다.

《진억이가 오면 내 선아를 건너 보내겠수다.》

한씨는 대문밖으로 멀어 지는 그의 등실등실한 어깨를 바라보며 속으로 뇌이였다.

(선아 어머니, 잔치를 크게 합시다. 고마운 이웃들을 다 찾고서 말이우다.)

자연히 눈길이 큰 길쪽으로 향해졌다.

석탄을 무드기 실은 두대의 트랙토르가 먼지를 일으키며 툭툭툭 달려 갈뿐 진억이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진억이가 늦어 지니 이래저래 근심만 덧쌓여졌다. 눈앞엔 또다시 진억이의 도수 높은 안경이 얼른거렸다. 한씨가 안경공장을 세번이나 찾아가서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안경이다.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겨울, 그 안경때문에 정확한 진억이의 눈때문에 속을 썩여 온 일들이 잊혀 지지 않는다.

좁은 방안 여기저기에 마구 휘뿌려진 책들, 산산이 부서져 나간 실험기구들, 눈이 보이지 않는 다고 책상우에 엎드려 몸부림치는 아들...

한씨의 손에서 땀방울 소리를 내며 밥그릇들이 쏟아졌다. 아궁이에 군불도 때주는겸 밤참을 준비해 가지고 깊은 밤을 마다하고 실험실로 올라 왔던 한씨였다.

《진억아-》

아들을 부둥켜 안고 붙이며 이마, 눈두덩이를 마구 더듬는 한씨의 쪼들쪼들 마른 손이 뽕 만난듯 와들와들 떨렸다.



(눈이 안 보이다니? 세상에 이런 면도 있느냐.)  
쏟아 지려는 눈물을 씹어 삼키며 정신없이 쓸  
어 보고 만져 보고 쥐어 뜯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허공을 향해 굳어 진 아들의 눈은 아무 감각이  
없었다. 그처럼 영채 돌던 두눈엔 희뿌연 물기  
만이 축축히 배여 있었다.

눈앞에 무수한 별씨들이 튕겨 나면서 방안이  
빙글빙글 돌았다. 한줌으로 쫓아 든 한씨의 몸집  
이 물 먹은 흙담뱃마냥 무너졌다. 너무도 모진  
타격이었다.

애오라지 아들의 성공만을 바라며 이를 사러  
물고 버티어 오던 늙고 쇠잔해 진 육체가 아들의  
실명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앞에서 더는 견  
더 내지 못한것이다.

진억이가 손더듬으로 쓰러진 한씨를 힘껏 부축  
해 안았다.

《어머니, 일 없을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겠지요 뭐. 이제 집에 가서 한잠 푹 자고 나  
면 몸도 거뜬해 지고 눈도 회복될거예요.》

그래도 어머니앞이어서인지 진억이는 자기를  
자제하고 억지로나마 웃음까지 짓는다. 그 웃음  
이 더욱 가슴에 아프게 마쳐 왔다. 그런 가운데  
서도 한씨는 문득 제 정신을 되찾았다.

에미의 심정이 이렇게 터질 지경인데 당사자인  
아들의 마음이야 오죽하랴.

자기가 이렇게 맥을 놓으면 아들이 영영 눈을  
잃을수 있다는 가슴 찢기는 생각과 함께 지금껏  
그토록 바라왔던 모든것이 여기서 끝장나게 되리  
라는 무서운 생각이 한씨를 우뚝 일어 서게 만들  
었다.

《진억아, 이 에미가 헛나이를 먹은가부다. 주책  
머리없이 지레 겁만 앞세웠구나.》

한씨는 금시에 탄 사람이라도 된듯 팔을 걸어  
붙이고 와락와락 방안을 대충 거두었다. 그리고  
는 방 한복판에 여전히 말뚝처럼 박혀 있는 아들  
의 겨드랑이에 자기의 어깨를 들이밀었다.

《자, 집으로 내려 가자꾸나. 일이 다 잘될거  
다.》

그날 밤 한씨는 잠든 아들의 눈우에 따끈하게  
덥힌 수건을 갈아대면서 꼬박 밤을 밝혔다.

지긋게 매달리는 불안과 절망적인 생각을 애써  
밀어 버리며 새날을 맞았으나 창문으로 쏟아 저  
들어 오는 해살과 함께 행여나 하는 실오리 같  
은 한가닥 기대마저 영영 끊어 저 버리고 말았  
다.

진억이는 간신히 료박이나 알아 볼뿐 아무것도  
가려 보지 못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떻게 알았는지 관리위원  
회에서 사람들이 왔다.

진억이는 군병원으로 실려 갔다.

시신경기능장애, 원인은 상한 허리로부터 오는  
신경마비에 있다고 한다. 어려운 수술과 함께

시신경의 기능회복을 위한 각종 치료도 동반해야  
했다.

진억이는 차에서도 병원에서도 말 한마디 없었  
다. 아예 말을 하지 않기로 단념한듯 두입술을  
꼭 닫아 매놓았다.

한씨가 그의 기분을 돌려 세워 보려고 어디 아  
픈가, 먹고 싶은것이 없는가고 시끄러울 정도로  
물어 보아도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머리만 가로  
저울뿐이다.

아들의 꺼칠해 진 얼굴에는 실망과 고심의 그  
림자가 짙게 어려 있었다. 몇밤씩 자지 못하면서  
도 힘들거나 괴로운 내색은 꼬물만큼도 하지 않  
던 아들이었다. 차라리 그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가슴이 덜 아플것 같았다. 하지만 한씨는 순간  
순간 바늘끝으로 찌르는듯 한 아픔을 체험하면서  
도 한발자국도 아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1차수술이 진행되었다.

결과가 시원치 않았다.

봉대를 뜯 날 저녁 아들은 한씨의 무릎우에 옆  
드려 참아 오던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한씨는 마디진 꺼칠한 손으로 소리를 내지 않  
으려고 입을 막고 어깨를 떠는 아들의 등을 하염  
없이 쓸어 만졌다.

《애야, 맥을 놓으면 안된다. 병이란건 마음에  
달렸다고 하지 않니?》

한씨는 아들을 위해서보다 자기를 위로하느라  
더 애를 썼다.

《어머니, 전... 제 눈때문에 그러는게 아니예요.  
연구사업이... 그걸... 성공시키지 못한것이 분해  
서 그래요.》

《진억아, 생각나니? 언젠가 어떤 사람들이 널  
보구 벼에 미쳤다고 말을 해서 어머니가 참지 못  
하고 성을 돋구었던 일이... 그때 넌 오히려 웃으  
며 말했지. <어머니, 그냥 놔두세요. 그들의 말이  
나에겐 더 힘이 돼요. 그렇게 미쳤단 소릴 들을  
정도로 해야 연구사업을 성공시킬수 있어요.>  
난 네 말을 듣고 역시 사내가 생각하는품이 다르  
구나 하고 생각을 했단다. 애야, 눈을 고친 다음  
또 한번 그런 소리를 들어 보자꾸나.》

진억이는 젖은 눈을 들어 료박만 희미한 어머  
니의 얼굴을 오래도록 더듬었다.

《어머니, 그 말씀의 뜻을 알겠어요.》

진억이 침대옆에 나란히 누운 한씨는 온밤 잠  
들지 못했다.

과연 아들의 눈을 고쳐 낼수 있겠는지, 장차  
아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며 그처럼 힘들게 진척  
시켜 온 연구사업은 어떻게 되겠는지...

남편과 자기 그리고 아들의 소원이 합쳐 진 벼  
품종연구.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한씨는 눈도 감지 못  
할것 같았다.

모든것은 아들의 눈에 달려 있었다.

한씨는 자기가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

지 그 한가지 생각에 움하여 궁싯거렸다.

새벽녘에야 그는 피땀 내리치는 생각에 흠칫 놀라며 자리를 차고 일어 났다. 왜서인지 마음이 평온해 지면서 허구쁜 웃음이 나왔다.

(참 인제야 그 생각을...)

진억이한테 필요하다면 자기 눈이라도 바칠 그런 생각이 불쑥 떠올랐던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이 제대로 될수만 있다면야 오죽 좋으랴.

하지만 이것은 아들이 알아서는 안될 일이었다.

한씨는 과장이 출근하는 시간을 가슴 조이며 기다렸다.

몸집이 듬직하고 침착해 보이는 과장은 책상을 사이 두고 마주 앉은채로 한씨의 말을 한마디도 막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 주었다. 그리고는 머리를 갸웃한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켜 한씨의 곁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진억동무의 눈은 각막염과 같이 이식 수술을 해서 고칠 병이 아닙니다. 기능장애가 온 보는 신경을 살리는가 못 살리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의료일군들의 성의와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의 그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으니 걱정 말고 돌아 가십시오. 것처럼 훌륭한 뜻을 품고 있는 진억동무의 눈을 꼭 고쳐 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과장의 말은 진심이였다.

즉시로 진억이의 눈병을 고치기 위한 집중치료가 시작되였다.

각종 현대적인 치료설비들과 고려의학에 의한 수십가지의 치료로 의사, 간호원들은 잠시도 진억이의 결을 떠나지 못했다.

그 고마운 사람들의 낮과 밤이 없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진억이는 석달만에 다시 광명을 되찾았다. 하지만 떨어 진 시력만은 어쩔수 없었다. 그래서 한씨는 안경공장을 찾아 여러번 먼 걸음을 하였던것이다...

아들을 기다리기에 지친 한씨는 두서없이 자꾸 떠오르는 불안스런 생각들을 잊어 버리려고 몸을 일으켜 돌아 가며 집안밖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 일이 끝나자 다시 부엌을 들락날락하며 폐지물도 떠다주고 한마당 돌아 가는 닭들에게도 휘휘 모이를 뿌려 주었다. 그 모든 일을 걸싸게 해제끼는 속에서도 한씨의 정신과 눈은 줄곧 큰 길쪽으로만 쏠려 있었다...

한씨가 한달 맛잡이로 기다리던 아들 진억이는 저녁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질 무렵에야 집으로 들어 섰다.

《어머니!》

진억이는 대문을 열기 바쁘게 어머니룸에 와락 안겼다. 마물로 들어 서면서 얘기를 다 들었는

지 진억이는 이전의 침착성을 잃고 있었다.

《에미숙을 잔뜩 태우고야 오는구나.》

만시름이 풀리면서 가슴이 기쁨과 흥분으로 널뛰듯 하였다.

《애야, 눈은 일 없니?》

한씨는 아들의 랑볼을 싸전채 도수 높은 안경이 번뜩이는 눈을 찬찬히 들여다 보았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의 얼굴을 환히 보고 있잖나요.》

한씨의 주름 깊은 얼굴에 새겨 졌던 웃음이 서서히 가서 졌다.

아들의 눈빛이 밝지 못했다. 입가에는 빙글썩한 웃음이 비껴 있었으나 맑은 두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피로와 함께 가지지 못한 그 어떤 시름이 깔려 있었다.

《갓던 일은 잘됐나?》

《그만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아들의 웃음도 어색스럽고 주저가 느껴 졌다.

《일이 시원치 않은게구나.》

아니기를 바라며 한 말이였다. 그러나 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한씨는 손맥이 탁 풀렸다.

《아무래도 만점짜린 없잖나요.》

《애야, 어쨌다는건지 시원히 말 좀 해다우. 속이 답답하구나.》

진억이는 려행가방을 열고 부시력거리며 비닐 주머니에 싸가지고 온 한줌되는 벼이삭을 내놓았다.

《이걸 보세요. 여기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성공한셈이지요 뭐.》

한씨는 간신히 그것을 받아 쥐고 알수도 헤여 보고 무게도 가늠해 보았다. 보통벼보다는 낫다고 할수 있으나 벼알의 크기나 무게에서는 확실히 여기 시험포전의 벼보다 못했다.

한씨는 오금이 복닥해 와서 토방우에 걸터앉았다. 속이 허전해 왔다.

《영문을 모르겠구나. 거기선 어떻게, 품종두 갈구 땅이랑 기후조건도 같다면서...》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해보자구 토양시료를 떠가지고 왔어요.》

진억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듯 곁에 와서 앉으며 맥없이 처진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가만 주무르기 시작했다.

한씨는 아들에게 몸을 맡긴채 두눈을 스프르 감아 버렸다. 기연가미연가하며 애 써 생각지 말자고 했던 그 우려가 종내 엄연한 사실로서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니 올해도 또 실패가?...

한정보 되나마나한 시험포전의 성공... 한씨가 바란것은 그것이 아니였다. 이 땅 그 어느 논벌에 심어도 높은 소출을 낼수 있는 그런 벼종자가 래여 나길 바랐다.

그것이 지나친 욕심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렇

게 되어야만 한씨는 가슴속 소원이 풀릴것 같았다.

애오라지 그래서 오늘까지 자기의 모든것을 짊어지 바쳐 왔다.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꿈속에서처럼 들려 왔다.

《어머니, 걱정 마시라요. 연구사선생들은 이미 우리 포전의 벼를 보고 학술적으로나 시험단계에선 성공했다는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바라던대로 일이 잘되지 않았나요.》

한씨는 그것이 아들의 진심인지 알고 싶어 진억이의 얼굴을 빨리 건너다 보았다.

진억이는 그 눈길을 피해 슬며시 고개를 돌려 버렸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긴 그림자를 마당가에 드리웠던 우듬지 큰 대추나무밑에는 벌써 어스름이 발발발발 깃들고 있었다.

《진억아, 이 에민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만... 아무래두 마음이 편안칠 않구나. 어찌니 저찌니해두 그쪽 벼가 여기보다 못한건 사실 아니냐.》

진억이는 한동안 말없이 아직도 손에 들고 있는 벼이삭들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혼자소리처럼 나직이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그 지대의 풍토에 적응되지 못한것이 원인인것 같아요. 이제 한두해 풍토순환을 거치느라 다 제대로 되겠지요 뭐.》

한씨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바람이 빠지는것 같은 긴 숨이 새어 나왔다.

《글쎄...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완성되지 못한 벼종자가 평양으로 올라 갔다니 그게... 겁이 나서 그런다. 어떻게... 수령님께 그런 불미스러운것을 감히...》

한씨는 생각해 볼수록 가슴이 활랑거려 그것을 진정하느라 무진 애를 썼다.

아들이 오는걸 기다려 보지도 않고 기쁨에 떠서 벼이삭을 섣뚱 베여 가도록 승낙한 자신의 경솔한 처사가 가슴 아프게 후회되었다.

아들 진억이도 무엇이 생각되는듯 덤덤히 앉아 있었다.

소리 없는 어둠이 침묵속에 굳어 진 그들 두사람을 무겁게 감싸안았다.

큰 길쪽에서 벌에서 들어 오는 사람들의 말소리,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 왔다.

멀리 앞쪽 어둠속에서 아이들을 불러 들이는 녀인의 목소리가 랑랑히 울리고 저녁밥 짓는 구수한 냄새와 한데 어울려 감미로운 음식냄새가 고즈녁이 떠돌았다.

농촌마을의 조용하고 목가적인 저녁풍경을 순간에 깨버릴듯 불빛 환한 옆집의 창가에서 왈작그르한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때를 같이 하여 최덕근이 대문소리를 요란히 내며 마당으로 들어 섰다.

《허, 이 집은 불도 켜지 않았냐?》

진억이가 인사를 하고 최덕근이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해 등을 두드리며 한동안 칭찬을 늘어놓을 때까지도 한씨는 자기 생각에서 인차 헤어나지 못했다.

《자, 우리 집으로 건너들 갑시다. 우리 로친이랑 선아랑 진억이 이 사람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수다.》

최덕근은 무작정 진억이와 한씨의 등을 떠밀었다. 한씨는 흠칫 놀라 자기를 다잡았다.

《에그, 아주버니, 고맙긴 하지만 공연히 또 분주탕을 피우겠수다.》

《원, 안할소리.》

최덕근은 막무가내였다.

한씨는 전혀 내키지 않았다. 가슴속에 돌덩이를 매단듯 한 불안감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다.

한동안 밀거니 당기거니를 하였으나 종시 한씨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아주버니 성의가 그러니 우리 진억이만 데리고 가시우.》

최덕근은 이해할수 없다는듯 머리를 설레설레 지으며 《허-》 하고 노염 섞인 개탄을 하였다.

《할수 없군 그래. 진억이 이 사람, 자네까지 우리 집 마음을 무시하진 않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진억이는 머리를 떨군채 최덕근의 뒤를 따라 섰다.

멀어 지는 발자욱소리... 마당 한가운데 멍히서 있던 한씨는 방안에 들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다시금 토방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스스로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10년간의 고심참담한 노력, 진억이의 성공을 두고 제 일처럼 기뻐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것을 부정하려 하다니...

진억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귀가에 울린다.

《어머니, 한두해 풍토순환을 거치느라 다 제대로 될거예요.》

그렇다면... 성공?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또 다른 목소리, 그것은 굵고 떠엄떠엄한 남편의 목소리이다.

《평만을 위해 산... 농군의 한생을 욕되지 않게 해주오.》

(여보, 어떻게문 중수?)

진억이의 성공을 부정하기에는 너무도 가슴이 아왔다. 그러면 모든것을 잃는다. 그토록 바라왔던 소원도... 눈에 흠이 들어 가기전에 그 소원을 이를 날을 볼수 있을런지...

그렇다고 불미스러운 그 벼이삭을 어떻게 그냥 평양으로 올려 보낸단 말인가.

그것은 량심을 속이는 죄악이었다.

진억이가 돌아 온 다음 밤이 깊어 자리를 켰으나 한씨는 잠을 이룰수 없었다.

끊임없이 겹쳐 드는 번거로운 생각과 망설임속

에 새날을 맞았다. 지금껏 살아 오면서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두고 이렇게 고통을 느껴 보기는 처음이었다.

아침에 일어 난 진억이도 잠을 설쳤는지 눈에 피발이 서 있었다.

한씨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수건을 목에 걸고 마당으로 나오는 진억이를 멈춰 세웠다.

《애야, 네 생각은 어떠냐?》

진억이는 그것이 무엇을 넘두에 둔 물음인지 대뜸 짐작한듯 섣뚝 입을 열지 못하고 묵묵히 바라 보기만 하였다.

《진억아, 10년전 네가 새로운 벼품종을 연구하겠다고 나서던 때의 일이 생각나는구나. 그뻘... 그 마음이 얼마나 비단 같았니? 그 마음을 흐려 놓으면 안된다.》

진억이는 무슨 말을 할듯 입을 실룩거리다가 머리를 푹 떨구었다.

《진억아, 힘들어도 좀 더 품을 넣어서 그 벼종을 훌륭하게 완성하자꾸나. 지금은... 그 벼이삭을 우리 수령님께 올려서는 안된다. 그건 백성의 도리가 아니다. 네 아버지가 안다면 아마 땅속에서두 뛰쳐 나왔을게다.》

《어머니.》

진억이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힘껏 부여잡았다.

《잠시나마 제 생각만 한 이 아들을 용서하세요.》

한씨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 졌다.

사람은 자기를 이겨 낼 때 아름답고 그 존엄도 있는것이다.

《애야, 빨리 아침밥을 먹고 관리위원회로 가자꾸나. 평양에 알려야지.》

《예.》

갓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해가 눈 부신 빛발을 온 마당가에 뿌리고 있었다.

×

그로부터 열흘후, 리천농장은 대경사를 맞이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농장을 찾아 오신것이다.

수령님께서 자기네 모자를 부르셨다는 소식을 받은 때로부터 한씨는 몸을 다잡을수가 없었다.

수령님께서 시험포전앞에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을 맞아 주시면서 수행원들에게 진억이를 소개하시였다.

《동무들, 이 동무가 바로 이렇게 요란스런 벼품종을 연구한 연구사동무요. 자, 주인이 왔으니 함께 시험포전을 돌아 봅시다.》

간밤에 온 비로 논둑길은 아직도 미끌거렸다. 그 미끄러운 논둑우로 수령님께서 성큼 올라 서실 때 한씨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저렇게 험한 농촌길을... 우리 수령님께서...)

진억이가 곁에서 길이 나쁘다고 말씀 올렸다.

《일 없소. 동무가 힘들게 키워 낸 벼를 그만한 품값도 치르지 않고 공짜로 볼 뎃이야 없지.》

수령님께서서는 주위사람들을 둘러 보시며 유쾌하게 웃으시였다. 모두들 따라 웃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벼이삭들을 만져 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알을 헤여도 보시였다. 포전의 한복판에 이르신 수령님께서서는 허리춤까지 오는 벼이삭속에 몸을 잠그신채 뒤집을 지시고 시험포전을 빙 둘러 보시였다. 때마침 서늘러운 바람이 불어 오며 온별이 통채로 늠실거렸다.

수령님께서서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정말 멋 있소. 장쾌하구만.》

수령님께서서는 진억이를 가까이 부르시여 시험 벼의 특성과 생육조건, 연구과정에 대하여 일일이 물으시였다. 진억이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신 그이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논 머리를 천천히 거니시였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소. 그 몸을 가지고... 어디 좀 보자구.》

수령님께서서는 진억의 가까이에 다가가시여 허리에 손을 대고 가볍게 눌러 보시였다.

《어때? 아프지.》

《일 없습니다, 수령님.》

《일 없다? 그럼 어디 허리를 한번 움직여 보라구.》

진억이는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것이 죄스러워 기운차게 허리를 두번이나 굽혔다 펴는 동작을 하였다.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다.

수령님의 안색이 흐려 지시였다.

《안되겠소. 아직 시원치 않아.》

수령님께서서는 이번에는 수술한 눈이 어떤가고 하시며 진억이의 안경을 벗게 하시고 두눈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였다.

수행원들짖에 끼여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한씨는 웅색함으로 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어머니인 자기가 아들의 건강을 잘 돌봐주지 못해서 저렇듯 수령님께 근심을 끼쳐 드리고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니 자기자신이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이윽고 수령님께서서는 수행원들쪽으로 몸을 돌리시였다.

《진억동무가 영예군인의 몸으로 10년동안이나 이악스럽게 연구사업을 해왔으니 고생인들 얼마나 많았겠소.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사도 아니니 연구조건도 더 불리했을거요. 그런데도... 우리 진억이는 해냈단 말이요. 보시오. 무슨 일이나 마음이 중요한거요. 우리 인민들에게 흰쌀밥을 먹이고 싶어 하는 나의 소원을 풀어 주겠다는 그 결심 하나로 해냈단 말이요. 고맙소. 연구사동무, 그 마음이 정말 고맙소.》

수령님의 음성은 갈려 있었다.

진억이는 수령님의 그 과분한 치하에 몸둘바를

몰라 눈을 허둥거리다가 머리를 푹 떨구었다.  
《수령님, 죄송합니다. 아직 새 품종을 완성도 못하고… 이렇게 험한 길을 걸으시게 하였으니… 정말…》

수령님께서는 대견하게 진억이를 바라보시며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었다.

《신심을 잃으면 안돼. 이젠 성공의 기초를 쌓았으니 그 각오와 정열이면 앞으로 훌륭한 결실을 맺을거요.》

수령님께서는 다시금 황해도에서의 시험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으시고 나서 지대적특성이나 토양의 변화, 시비체계에 대하여 잘 따져 보아야 한대시며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도 세심히 가르쳐 주시었다.

그러느라니 따가운 해벌속에서 시간이 퍼그나 지체되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이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동행한 일꾼들에게 앞으로 진억이가 연구사업을 성공할수 있도록 그의 건강을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 주자고 그리고 실험기구도 잘 갖춰 주고 온실도 크게 지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한씨는 입을 싸친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었다.

(수령님, 제 아들이 무슨 큰일을 했대구 이토록… 저희들은 죄송스럽기만 하온데…)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참에 끼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씨의 가까이로 다가오시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수령님께서는 한씨의 손을 푹 잡으시고 마디가 울퉁불퉁한 여윈 손을 거둬 쓸어 보시었다.

《한생 땅을 걸구느라 손이… 이렇게 험해 졌구만. 년세가 많은 몸으로 아들의 연구사업을 돕느라 벌에서 살았다니 얼마나 힘에 부쳤겠습니까.》

한씨는 당황하여 황황히 머리를 가로 저었다.

《아닙니다, 수령님. 우리 백성들을 위하시는 수령님의 로고에 비하면… 정말 저희들이 구실을 못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여전히 한씨의 손을 놓지 않으신채 동행한 일꾼들쪽으로 시선을 돌리시었다.

《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동무가 바로 아들이 연구한 벼품종이 결함이 있다고 나에게 울려 보내지 못하게 한 연구사동무의 어머니입니다.》

리당비서를 통해서 진억동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생 어떻게 랑심껏 성실하게 일해 왔는지 다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진억동무의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알 한알이라도 더 내보냈다고 그렇게 애를 썼다던데… 너무도 빨리 갔습니다.》

세상 떠난지 오랜 남편, 한갓 평범한 농사군에 불과한 남편의 소박한 마음을 그토록 값높이 사주시고 애석해 하시는 수령님의 친어버리와 같은 은정에 한씨는 마음속으로 거듭거듭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었다.

(진억이 아버지, 들으시나요? 우리 수령님께서 수령님께서 글썽 당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무엇을 더듬으시는듯 푸른 하늘 멀리를 바라보시었다. 거기로는 이름 모를 철새들이 떼 지어 날아 가고 있었다. 그 새무리들은 점차 점으로 변하더니 이어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수령님의 눈길이 다시금 한씨에게 멎어 섰다. 아직도 웅송그린 몸을 퍼지 못한채 두손을 맞잡고 서 있는 어쭙은 자세, 별에 타서 이제는 철빛으로 되어 버린 주름에 패인 얼굴… 이 땅 어디를 가나 흔히 만나볼수 있는 수수하고 너무도 평범한 녀인, 그의 가슴속엔 땅처럼 변함 없는 깨끗한 랑심, 보석 같은 마음이 귀중히 간직되어 있는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런 인민들이 있어 우리의 단결이 그렇듯 든든하고 우리 나라가 강한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이토록 훌륭한 인민들속에 있는 행복감을 다시금 긍지롭게 느끼시며 좌중을 둘러 보며 말씀하시었다.

《예로부터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억동무가 거둔 성과 뒤에는 남 모르게 자기를 다 바친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동무는… 아직 미숙한 점이 있다고 벼품종을 울려 보내지 않았 습니다.》

이 한가지 일을 놓고도 나는 진억동무 어머니의 한생에 대하여 많은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훌륭함과 아름다움은 이렇게 평범한 생활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재부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땅을 받드는 길에서 조그마한 가식도 없고 솔직하고 깨끗한 이런 사람들이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이 땅의 가장 값 높은 재부입니다. 나는 오늘 새로운 벼품종을 보게 된것도 기쁘지만 이 동무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을 알게 된것이 더욱 기쁩니다.》

한씨는 몸감각이 마비된듯 주위의 모든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온몸이 어디론가 뚝뚝 떠가는 듯 한 착각만 자꾸 들었다.

나라를 위해 큰일 한번 해놓은것도 없고 한생토록 수격수격 농사일이나 해온데 불과한 몸을 그토록 높이 내세워 주시는 수령님의 과분한 말썽에 너무도 황송하여 발이 땅에 닿아 있는감도 느끼지 못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저쪽에 떨어 저 있는 진억이를 가까이 부르시여 어머니옆에 나란히 세워 주시었다.

만족한 눈길로 한동안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 《자, 이 시험포전을 배경으로 사진 한장 찍읍시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라고 하시며 한가정이런듯 한씨와 진억이를 두팔로 끼인채 사진을 찍도록 하시었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수령님께서서는 떠날 시간이 되었으나 선뜻 떠나기 아쉬운듯 다시 한번 벼이삭 우거진 시험포전을 빙 둘러 보시며 일군들에게 무엇을 더 도와 줄수 없겠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군들이 선뜻 대답을 못 드리자 그이께서는 진억동무가 영예군인의 몸으로 먼 곳에 다니면서 벼 시험연구를 하고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진억동무의 시험포전이 있는 곳들에 연구사들을 한명씩 붙여서 재배시험을 할수 있도록 해주자고, 그러면 진억동무가 몸을 혹사하지 않게 될것이라고 뜨거운 은정의 말씀을 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진억이와 한씨의 손을 다같이 잡아주시며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연구사업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힘을 주시고 차에 오르시었다.

떠나시는 순간에조차 무엇을 못다 주신듯 그렇게 마음 쓰시는 수령님을 우리러 한씨는 깊이 깊이 고개를 숙여 큰절을 드리었다.

(수령님, 더는 근심을 마십시오. 우리 진억이는 꼭 성공합니다.)

수령님께서 타신 차는 석양빛에 차창을 번쩍이

며 멀리 굽인돌이를 돌고 있었다.

## 세계성구속담

### 지혜와 총명

총명은 나이에 있지 않고 지혜는 가슴속에 있다.(몽골)

최상의 천품은 지혜, 최상의 불행은 무지.(아랍)

지혜 없는 머리는 불 없는 등잔.(로씨야)

지혜를 쌓는것이 재물을 모으는것보다 낫다.(유럽주)

총명한 배사공은 날씨가 나쁘다고 짜증을 내지 않는다.(중국)

우매성은 인간의 적이고 지혜는 인간의 친구이다.(아랍)

어리석은 사람은 평지우에서도 길을 잃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막에서도 길을 찾는다.(아프리카주)

## 전호없이 싸운 전사들 외 1 편

### 권태여

전호도 없이

참호도 없이

온 전선을 진지로 삼아

결전의 돌파구를 열어 온 공병들

어깨우엔 총만이 아니었다.

도끼와 톱, 꺾쇠와 대패, 공병가위

그리고 주먹밥과

손때 묻은 담배쌈지

차비도 든든히

공방전의 앞뒤를 열고 닫은 천리길에

피보다 뜨거운 땀을 뿌린 그들

사단의 총구에 멸적의 불벼락을 채워 주었거니

전호밖에 전호를 다져 주며

불비를 이고 싸운 공병들

수령님 높이 모신

전승의 연단도 그들이 쌓았더라

## 나는 공병대대의 로병

남으로!

남으로!

스물안팎 그 나이에

철조망과 지뢰원을 얼마나 헤쳤던가

그 한치한치를

어깨우에 들어 주며

교각이 되어 굳어 진 전사는 몇이던가

한몸 그대로 길이 되어 쓰러진 전사는 몇이던가

그 길을 닦으며

갈래 많은 전쟁의 길목마다에

전우들을 두고 온 이 마음

오늘도 그날의 도하장에

백발을 적시며 함께 서 있나니

선군의 나팔소리 높이

결전의 날 다가오면

천만대오 통일의 다리를 건네줄

나는 여전히 공병대대의 로병

# 시인은 누구나 시를 쓰고 있다. 그러나... (3)

-시의 다양성문제를 생각하며-

류만

시의 다양성문제를 생각해 본다. 기본적으로 두 측면에서 이야기될수 있을것이다. 서정의 다양성 문제가 그 하나이고 시형식의 다양성문제가 다른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여기서는 서정의 다양성문제를 생각해 본다.

서정의 다양성문제는 우리 시문학의 풍만한 개화발전과 시인의 창작적개성의 다양성과 뗄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우리 시문학전반이 다양해야 하는것은 물론 매 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정은 다양해야 한다.

시인의 개성도 서정의 다양성속에서 더잘 살아난다. 말하자면 시인은 대체로 매번 새로운 대상을 잡고 거기서 체험되고 환기된 느낌을 가지고 시를 쓰게 되는데 설사 한 시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번마다 시는 종자나 주제사상적내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구체적형상이나 미세한 정서적색깔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야 하는것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대상에서 받는 충격과 느낌, 대상에 대한 정서적감수에 맞게 자기의 독특한 정서세계를 펼치며 시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것이 준비된 시인의 자질과 능력, 개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겠는가.

레컨대 시인 조기천에게는 《조선은 싸운다》, 《불타는 거리에서》와 같은 시가 있는가 하면 《흰 바위에 앉아서》, 《휘파람》과 같은 시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작가적개성을 이야기하는데서 《조선은 싸운다》나 《불 타는 거리에서》만 넘두에 둘수 없으며 마땅히 《흰 바위에 앉아서》나 《휘파람》에도 낫을 돌려야 하는것이다.

보면 시적자질이 높고 개성이 뚜렷한 시인일수록 시적대상에 대한 정서적체험과 느낌을 심화하여 시를 다양하게 쓰지만 그렇지 못할 때 대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시가 한본새로 씌여 지거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 내게 되는 것이다.

최근의 시들을 읽으면서 우리 시인들이 시의 다양성문제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것이 이러저러하게 모색되고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지금 기억을 더듬어 이미 읽었던 편시와 시초들을 되새기며 이 글을 쓴다.

시인 오영재가 《한 비전향장기수에게》라는 주제로 편시 《아쉬워도 보람 있는 삶》을 《조선문학》잡지에 발표한것은 비전향장기수들이 분렬의 장벽을 넘어 조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반년이 더 지난 주체90(2001)년 5월이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기는 순간부터 많은 시들이 창작되었지만 그때 그가 쓴 시는 아직 찾아 볼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런 시의 《열풍》이 좀 즈믄해 진 이듬해 5월에 돌연히 8편의 시를 편시로 묶어 발표한것이다.

그 어떤 감동적인 사변들이 있으면 즉시에 반응하여 시를 쓰는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렇게 되여야 한다는것은 아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영재도 그 격동적인 사변을 놓고 제나름의 체험과 사색의 과정이 필요했던것 같다. 날자도 날자이지만 《아쉬워도 보람 있는 삶》이라는 제목이 그것을 말해 준다.

이 편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노래한 다른 시인들의 시와의 관계에서 보아도 그렇고 그의 시창작 계열에서 보아도 대상을 시화하는데서 시인이 새것을 찾아 내고 자기 몫을 살린 시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전에 창작되었던 시들을 보면 《불사조들이 조국에 돌아 왔다》(정성환), 《받으리라 이 꽃다발을》(정혜경), 《태양의 빛발엔 어둠이 없다》(박근원) 등 제목이 보여 주는바와 같이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이라는 역사적사변과 관련한 다양한 감정의 분출,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서의 그들에 대한 찬양 등 정서세계가 지배적이였다면 편시에서 시인은 보다는 혁명가의 랑심, 변심 없는 마음의 진정과 순결함, 무서운 옥고와 고독을 이겨 낸 힘, 인간의 아름다움과 참된 삶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 깊은 사색의 나래를 펼치였다.

그의 많은 시작품의 창작계열에서 두고 볼때도 이 시초는 다양성의 새 경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얼핏 떠올려 봐도 그에게는 1960년대 천리마시대의 벽찬 현실에서의 체험에 기초하여 창작한 시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와 《수도건설시초》 등 생활적정서를 다감하게 때로는 회화적화폭에 가깝게 펼치면서 후더운 열정으로 달구어진 주정을 토로한 시들이 있는가 하면 시 《복수자의 선언》과 같이 정론적격조의 분화구를 한껏 터친 시들도 있다. 그는 시창작의 첫 시기부터 주제의 다양성과 함께 다양한 서정의 세계를 펼치었는데 이러한 그의 시세계는 1970년대를 거쳐 1980년

대와 1990년대로 오면서 《인간의 도덕》, 《인간의 수양을 논함》과 같이 거기에 보다 지성적으로 사색된 새로운 양상의 시들이 보태지는 등 다양성과 풍부화 과정이 심화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그의 시들에서 두드러진것은 시대정신을 폭 넓게 안은 뜨거운 송가적열정의 분출과 그와 결합된 정론적격조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는 많은 경우에 수령, 당, 조국과 같은 보다 숭고한 대상을 노래하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리면서 서사시 《인민의 아들》과 《인민의 아버지》 등 여러편의 서정서사시들과 함께 《붓을 들어 노래하노라 위대한 우리 당을》, 《수호자의 선언》, 《조국이며 인민이며 앞으로》와 같은 송가적열정이 정론적격조와 결합되어 웅건하고 숭엄하면서도 정서적울림이 크고 높은 시들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시들에서 그는 때로 《다변적》인 모습도 보여 주었고 필요한 경우엔 시행도 길게 하는 시인이라는 인상도 남기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인상에 젖어 진 관점에서 련시를 접하였을 때 나는 그가 육체적으로는 로년기에 이르렀어도 역시 서정세계를 부단히 새롭게 탐구해 나감으로써 다양한 시세계로 자기의 개성을 보다 풍부히 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련시의 시들을 보면 그의 이전의 시들보다는 시상이 단순하고 명백하면서도 사색이 있고 사색 끝에 찾아 낸 생활의 진리가 철학적 있게 도출되어 있으며 시의 지성도가 매우 높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이전의 그의 어느 시들보다 시가 짧다.

《뜻을 같이 하는 벗/ ...깨우치고 이끌어 줄 스승이 곁에 있었다면》 한결 쉬웠을 인생길일수도 있었건만 《아픈 인생길/ 고달프고 외로운 인생길》을 《홀로 생각하고/ 홀로 말하고/ 홀로 마음 정하며...》 《감방 정해 진 한곳에/ 몸은 머물고/ 세월만이 그우에》 흐르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비전향장기수, 그는 《모든것을 다 잃었어도/ 가슴속 자물쇠만은 열어 주지 않은/ 혁명가의 량심》을 벗으로, 스승으로 삼고 인생의 머나먼 길을 홀로 걸어 왔던것이다. 《혁명가의 량심》의 귀중함을 깨우치는 이러한 서정세계는 그 어떤 절해고도에서도 량심만은 버림없이 고이 간직할 때 혁명가의 삶은 아름답고 빛난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굳이 량심을 두고 수식하면서 웨치거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강조함이 없이 혁명가의 인생길과 량심을 비례시키면서 량심을 벗과 스승에 비유하여 시상을 펼치고 량심으로 삶의 진가를 가늠한 것이 좋았다. 그 어떤 해설이나 설명이 아닌 느낌과 사색속에 사상이 자연스럽게 비끼게 하려는 시인의 형상적노력이 느껴 진다.

시인은 시 《보통사람》과 《정월보름달》에서도 비전향장기수들의 삶의 아름다움과 보람을 자

기의 느낌과 사색속에 특색 있게 노래하였다. 이 시들에서 특징적인것은 다른 시들에도 비껴 있는 랑만적색조가 보다 진하게 어리면서 그 삶의 아름다움과 보람이 간고한 인생길로 하여 더 값 높고 긍지 높은것이라는것을 밝고 락관적인 정서로 노래하고 있는것이다.

감방속 긴긴 세월의 마른 바람에  
눈물도 말라 버린줄 알았는데  
웃음도 날려 가버린줄 알았는데  
몸서리치는 악형을 견디느라  
뼈도 살도 심장도 무쇠로 굳어 버린  
남 다른 사람으로 알았는데  
...

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무서운 옥고를 이겨 낸것은  
무쇠가 아니었구나  
가장 눈물 많고 웃음도 많고  
그렇게도 다정다감한 보통사람  
평범한 인간이었구나

비전향장기수들이 《보통사람》이였음을 새삼스럽게 절감하는 시인의 느낌은 평범하나 심각하다.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어 《보통사람》, 《평범한 인간》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감방속 긴긴 세월》 눈물과 웃음을 잃지 않고 간직할수 있는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보통일》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사람》이라는 시인의 부름은 평범한 《보통사람》이면서도 아무나 할수 없는 그런 평범치 않고 보통이 아닌 신념과 의지의 높은 봉우리에 강자로 서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사상적 높이와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반증으로 뜨겁게, 의미 깊게 안겨 온다. 시인은 극력 자제하여 《보통사람》이라는 표현밖에 쓰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자들에게는 그속에 간직된 시인의 타끓는 심장의 느낌과 말을 다 받아 안게 한다. 시의 지성적높이도 이런데서 생기는것이 아니겠는가. 시인이 독자들을 앞질러 《보통사람》을 더 해설하고 그 의미를 밝히지 않은데 대하여 독자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시 《정월보름달》도 다름바 없다.  
정월보름달을 보면 장가든다는데  
간직한 30여년 세월  
단 한번도 그 보름달을 못 보았으니...

갑시다  
즐거운 저녁 산책길을 걸어  
모란봉의 울밑대에 올라 봄시다

밝게 웃으며 솟아 오르는  
조국의 둥근 달이  
맞이할 새 안해의 얼굴 같지 않습니까



《새 안해의 얼굴》 같은 정월보름달, 그것은 바로 반겨 맞는 조국의 품이고 삶의 환희이며 아름답게 펼쳐 질 태일이다. 《새 안해의 얼굴》 같은 그 《등근 달》과 더불어 비전향장기수들이여 부디 만복을 누리시라! 조국과 인민이 보내는 축복의 환희가 강산을 밝게 비치는듯 싶다. 정월보름달에 시상을 엮은 시인의 서정이 그것을 다 말해준다.

절절한 느낌과 사색으로 서정세계를 다양하게 펼쳐려는 시인의 탐구적노력은 다른 시들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시 《고독》에서 시인은 눈이 있고 입은 있어도 30여년 세월 《보지 못하는 눈… 말을 나눌 사람이 없는 입》으로 지독한 고독을 이겨 낸 그 힘의 원천을 두고 고향산천과 어머니의 다심한 정을 노래했다면 시 《빛》에서는 《희개만 간직》하고 《맑게만 살아》 온 비전향장기수들의 삶을 두고 《거짓이 낀 마음으로는/ 감히 향할수 없는 그쪽》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이 빛으로 오는 그 해빛에 어두운 감방에서도 몸을 씻으며 한생을 살아 왔다고 참삶의 비결을 밝히었다. 그리고 시 《나를 세워 보는 자리》에서는 《그대가 섰던 그 법정에… 그 감방에… 그 긴긴 세월우에》 자신을 세워 보며 참삶에 대한 지향으로 가슴 불 태우는가 하면 시 《감사하노라》에서는 《옥중의 장기수에게/ 그토록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적어 보낸/ 마음 착한 남 녀의 녀대학생들》, 《오랜 날을 변함없이/ 평치금을 넣어 주고/ 소포들을 보내온/ <민가협>의 인정 깊은 사람들》을 두고 《리념을 알기전에/ 그 리념을 위해 한생을 바쳐 온/ 그 량심을 존경하고/ 그 인간에게 반한 사람들》, 《불행한 민족이/ 반세기 바라고 바라던 통일일/ 이미 정으로, 마음으로 이룩해 준/ 그네들》이라고 하면서 뜨거운 감사의 정을 토로하였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생활과 투쟁은 우리 시인들에게 시창작의 넓은 공간을 펼치고 있다. 그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무엇을 어떻게 노래하는가 하는것은 시인 자신에게 달려 있는 문제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시인 오영재는 자기의 몫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련시는 그의 창작적개성에 새로운 보탬을 한 작품이라고 본다.

이것은 결코 모든 시들이 다 만족스럽게 되었다는것은 아니다.

느낌과 사색으로 시를 창작하면서 시의 본도를 살리려는 시인의 탐구와 노력은 좋았으나 어설피고 미흡한 점도 있다는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구태여 꼬집는다면 시 《고독》에서 《고독과 싸워서》 이긴 힘의 원천을 두고 헤여질 때 《어머니의 낮고도 조용한 목소리》를 되새긴것은 충분히 가능한것이나 그 목소리가 너무 《평범하게》 느껴 진다. 한생을 고독과 싸워 이긴 힘의 원천이 되자면 지금보다 더 뜻이 깊고 철학적인데가

있어 무게와 여운이 느껴 져야겠는데 일반적인것으로 느껴 지는감이 있다. 시 《나를 세워 보는 자리》에서 역시 비전향장기수들이 섰던 법정, 감방, 세월에 자신을 세워 보면서 자기를 그저 《작은 새》, 《그대의 제자》라고 해버린것은 관조적이라는 인상을 지울수 없게 한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섰던 법정, 감방, 세월에 오늘의 인간을 세워 보는 그 체험세계는 더 심각하고 심오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장차 비전향장기수들의 신념과 의지를 따라 배워 그들처럼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되리라고 오늘의 자기를 《작은 새》, 《그대의 제자》라고 한것은 리해되나 그들이 섰던 법정, 감방, 세월에 자신을 세워 보는 느낌으로써는 그것이 적중하지 못하며 거리가 있다.

좀더 이야기한다면 련시에 포함된 8편의 시전반의 서정세계가 지금보다는 더 《무겁》고 심각하고 절절하며 시인의 주정이 더 참신하고 철학적이었으면 하는 욕심이다.

시에 깊은 사색과 철학을 담으면서도 시를 참신 하고 감명 깊게, 짧게 쓰려는 의도와 노력은 언제나 《립체적》으로 진행되여 시의 사상정서적 심오성까지 드러내게 될 때 시인의 개성은 다양한 시형상으로 하여 보다 새롭게, 풍만하게 꽃피날 것이다.

우리 시문학의 다양성문제를 생각하면서 나는 인상깊이 새겼던 시인 김정곤의 련시 《전야의 사랑가》(《조선문학》 주체90년 1호)를 이번에 다시 펼치였다. 60나이에 이른 시인이 청년들의 발랄한 련정세계를 방불하게도 그렸다고 생각했다.

흔히 말들하기를 시인의 경우 나이 들면서 《시가 잘 안된다》는것이 통례로 되여 있다. 시는 서정의 문학, 열정의 문학이기때문에 감수가 예민하고 열정이 넘쳐 나는 젊은 시절에 더 적합한것이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시적감각이나 열정이 젊은 시절과는 같지 않다는것을 녀두에 두고 하는 말일것이다. 심본 리해가 가는 말이다.

그러나 련시 《전야의 사랑가》를 읽으면 꼭 그런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련시를 비롯한 김정곤의 최근 시들을 보면서 나는 어느 면에서 그의 시창작이 젊은 시절보다 지금 더 왕성하고 그 서정세계도 다양하고 풍부해 지고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시 《수령님께서 우리 마을에 계시다》, 《천만 사람을 부사수로 불러 세우며》를 비롯하여 시인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던 1960년대의 시들에서 감정의 꾸밈이 아니라 섬세한 생활감정의 집요한 추구로 주정을 열정적으로 토로해 나간 특성을 보여 준 그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와서 자기의 서정세계를 더욱 다양하고 풍만하게 가꾸어 나갔다. 이 시기에 그는 토지개혁의 력사적전변에서 체험세계를 새롭게 심화하면서 생활을 폭넓게 안으면서 사색을 철학적으로 심화해 간 련시 《위대한신 품에 안겨》를 썼는가 하면 당의

품속에서 새롭게 꽃 피난 인간의 운명문제를 사색적으로 추구해 간 시 《잠 못드는 밤》도 썼으며 창조적로동의 기쁨과 환희,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지열처럼 끓고 있는 충성의 열정을 절절하게 토로한 시 《아버지는 전투장에 있다》, 《기쁨》 등 다양한 주제의 많은 작품을 썼다. 이 작품들에서 그는 참신한 사상과 군소리 없는 정제된 감미로운 시어들로 시의 정서를 깊은 사색속에 다정다감하게 펼치는 특성을 보여 주면서 거기에 낭만적색조가 선명하게 비끼게 하였다.

그의 시에서의 이러한 특성은 1990년대 시작품들에서 그대로 이어 지면서 그것이 보다 자유분방하게 원숙한 경지에 이르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오면서 그의 시들에서의 다정다감성, 자유분방성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체88(1999)년에 창작된 시초 《승패에 대한 시》가 그러하며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련시 《전야의 사랑가》가 그러하다. 시인이 좀더 일찍부터 이런 시들도 많이 썼더라면 그의 시세계가 더 풍만하고 시인의 개성적면모도 더 이채롭게 되었을걸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은 여담으로 치고 련시 《전야의 사랑가》의 서정세계를 살펴 보기로 하자.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사상정신세계를 더욱 윤택하게 하며 서정의 다양성에 보탬을 준다.

그래서 지난 시기 많은 시인들이 제나름으로 다양한 사랑의 시를 써왔다.

이런 일반적인 견지에서 보면 련시 《전야의 사랑가》도 그런 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련시의 시들을 읽으면서 새롭게 받게 되는 인상은 사랑은 사랑이면서도 그것을 선군시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시대감정으로, 헌신의 로동속에서 짝 트고 자라는 마음속 애정의 자연스러운 정서로 그리고 웃음도 있고 룡담과 익살도 있으며 또 사색도 비끼는 락천적인 생활감정으로 잘 노래하였다는것이다. 제대군인총각과 그의 일본배며 사람됨됨에 저도 몰래 끌려드는 처녀와의 사이를 련정관계로 설정하고 생활정서적으로 파고 든것은 발견도 있고 착상도 좋으며 형상적으로도 잘 노래되어 있어 감미로운 시로 흐뭇이 감수 된다.

시인은 청년들의 련정세계를 그리면서 그것을 일부러 꾸미거나 과장하지도 않고 생활 그대로의 진실도 재현하였다.

노을 진 시내가에  
하얀 매바위  
염소몰이처녀 그린듯 앉아 있고  
총각은 성큼성큼 징검돌 넘어 오고

세벌김 잡고  
마을로 돌아 오는 처녀들

열두쌍 눈길 이  
살촉같이 날아 가네

어마나  
감집 제대군인총각  
그 언제  
샘집 분이와 눈이 맞았을가

...  
저것 봐 멋진 회초리  
주는척 잡은 손  
에그머니 쑥 빼며  
고개 돌린 분이...

축포의 포물선인듯  
어깨우엔 실버들 휘늘어 지네  
야- 부럽네  
하지만 아니 본듯 돌아 가자요  
(시 《돌아 가자요》에서)

한쪽의 담담한 그림을 련상시킨다. 그 그림도 더없이 감미롭지만 거기에 전야의 사랑 《장면》을 엮은 마을처녀들의 새침한 심정에서 터져 나온 《야- 부럽네/ 하지만 아니 본듯 돌아 가자요》라는 주정토로가 보태짐으로써 화폭은 한결 생활적으로 정서 깊게 락천적인 느낌을 준다.

로동의 보람, 삶의 기쁨과 환희, 아직은 숫저운 사랑의 뜨거움이 참으로 가슴 후텁게 안겨 온다.

생활을 현상 그대로 그리는듯 하면서도 거기에 깊은 의미와 뜨거운 정서를 담아 그 생활의 희열과 보람,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떠올린것은 이번 련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인의 장기인 듯 싶다.

시 《돌아 가자요》도 그렇지만 시 《비구름만 봐도》와 《사랑풍경》에서도 느껴 지는것이 그것이다.

《소낙비에 물살이 세》저 《주먹돌 썩썩 굴리는 여울앞에/ 가도오도 못하고》서 있을 때 돌연히 나타나 양들이며 자기까지 안고 《돌진하는 땅크기세》로 여울을 건네여 준 《제대군인 그 동무》를 못 잊어 《...양떼 몰다 하늘에 비구름만 보아도/ 실개천돌이 굴던 여울목 생각/ 간지럼 타면서도 가닿는 마음끝엔/ <언제 또 소낙비에 물이 불어 날가...>》고 생각하는 처녀의 마음은 얼마나 엉큼하면서도 사랑스럽고 또 미덥고 진실한가. 그런가 하면 시 《사랑풍경》에서는 보폭에 감박잡든 처녀와 소형발전소건설장의 쪽잡든 총각사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 실려 《날개 돌혀》날아 가고 날아 온 숨외투에 깃든 사연을 두고 서로들 《머쓱해》할 때 그것을 내려다 본 《동산마루/ 머리 들던 해/ 구름뒤에 숨어/ 병실 웃》는 모습을 마치도 아동영화의 멋진 한 장면처럼 익

살스럽게 그려 《사랑풍경》의 진미를 한껏 느끼게 해준다.

제대군인총각과 처녀의 생활과 사랑도 진실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생활과 사랑의 정서도 짙게 풍기게 한것도 좋았지만 그 생활과 사랑을 누리는 인간들의 자기 직업과 노동에 대한 애착과 헌신, 생활속에서 무르익는 사랑의 뜨거움 그리고 그 인간들의 정신세계의 고상함과 아름다움이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훌륭히 부각되어 더 좋았다.

제대군인총각의 사람됨됨과 일본새, 그에 대한 처녀의 매혹은 바로 선군시대를 선도하는 군인 정신과 선군시대 인간들에 대한 배찬이며 그 사상정신적품도의 높이에 대한 생동한 시적일반화가 아니겠는가.

시의 형상은 가볍고 경쾌하고 때로 웃음도 익살도 있지만 그속에서 힘 있게, 뜨겁게 느껴 지는것은 선군시대 청년들의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이다.

련시의 마지막부분에 있는 시 《이삭에게 주는 사랑가》를 더 살펴 보자.

시인은 앞에 놓인 8편의 사랑가와는 그 정서적 색채와 격조가 다르게 여기서는 《이삭에게 주는 사랑가》를 부르고 있다. 지금까지 《제대군인총각》으로밖에 달리 불리우지 않던 그의 모습은 여기서 이삭과 맺어 진 하많은 사연을 안은 제대군인- 서정적주인공으로 나타났다. 폭 넓게 주정화 되어 토로된 그의 체험과 느낌, 생각은 매우 심오하며 절절하다.

이삭아

내 이 벌에 온것은  
식성도 한창 왕성하여  
돌을 넣으면 와락와락 소화시켜  
《곱배기》란 낱말도 나온 병사들에게  
호박밥을 끓이던 그 아품만이 아니냐

온 나라가 다 아는

젓 펜 아이들도 또랑또랑 외우는  
그때문에 실농군들 죽어서도 눈 감지 못하는  
전선길에 우리 장군님 드시는  
가슴 예이는 췌기밥의 혁명일화도  
종당에는 너로 하여 생긴 이야기 아니냐

너로 하여

총 잡은 사단과 련대들이 전연을 떠나  
전투장구에 모줄을 휘감아 없고  
벌을 향해 강행군을 하고  
아이들까지 학교문을 나서서  
소랭이 밀굽에 구멍이 나도록 벌을 돕지 않느냐

...

이삭아

땀을 달라면 강그리 땀을 줄테다

살점을 달라면 살을 때줄테다

갓 서른 오르도록 입박에도 못내 본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줄테다

지어 목숨을 내라면 목숨까지도 바칠테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우리모두가 체험하고 생각했던 생활의 진실 그대로이다. 더우기 《중대식당근무의 밤이 잤던 아침 우리 취사장에 들리신 어버이장군님》께 《호박을 썰어 섞은 밥》을 보여 드려 《안색을 흐리시던 영상》을 비웁게 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 서정적주인공- 제대군인의 체험세계는 더없이 진실하고 절절하며 뜨겁게 안겨 온다.

시인은 이삭과 관련한 서정적주인공의 자유분방한 주정토로를 통하여 선군시대청년들의 시대적 자각과 사명감, 참된 삶에 대한 지향과 리상을 훌륭히 일반화하였다. 마치도 제대군인총각에 대한 처녀의 매혹이 바로 이런 높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있다는듯이-

이 시는 비교적 긴 시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거침없이 읽히우며 읽을수록 흥분도가 높게 마지막까지 열정속에 잠기게 하는것은 시인의 심오한 체험과 느낌, 진실한 주정토로가 있고 리치로 번득이는 섬세한 감정, 시어구사에서의 정확성과 독창성,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리게 하는 독특한 시적세부와 형상적표현 등의 새로운 탐구와 관련된다.

시 《나를 칭해 다오》도 그 서정세계나 격조, 양상에 있어서 《이삭에게 주는 사랑가》와 비슷하다.

시 《비구름만 봐도》, 《돌아 가자요》 등 사랑 《풍경》을 그린 시들과 《이삭에게 주는 사랑가》, 《나를 칭해 다오》는 일련의 공통성을 보여 주면서도 그 서정세계는 서로 다르다. 《전야의 사랑가》를 겪으면서 시적대상에 따라 체험과 느낌을 달리하면서 매시에서 정서적특성을 특색 있게 살려 시의 다양성을 보여 준 여기에 또한 시인의 개성이 비껴 있다.

이 련시의 시들을 보면 시인과 서정적주인공의 문제에서 생각되는것이 있다. 시가 순탄하게 읽히면서도 때로 걸리는 대목들이 있어 다시 더듬어 보면 제대군인- 서정적주인공으로 된 시 《이삭에게 주는 사랑가》나 시인- 서정적주인공으로 된 《돌아 가자요》와 같이 시점이 선명한 시도 있지만 일부 시들의 경우 한 작품에서 시인의 시점과 처녀의 시점에 의한 주정토로가 엇섞여 저 있어 시상의 통일과 감정의 진실을 보장하는데서 불합리성이 느껴 지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한 작품에서 시점의 교차가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니며 그 효과적리용이 때로 감정의 자유분방성을 가능케 하지만 실천에서 그것이 잘 고려되지 않을 때 작품에 손상을 줄수 있는것이

다.

레컨대 시 《비구름만 봐도》에는 《들꽃 한송  
인듯 사뿐 내려 놓고/ 발동 건 땅크처럼/ 버들술  
넘어 멀어 지는 저 동무》라는 시구가 있는데 시  
는 분명 서정적주인공- 처녀의 시점에서 주정이  
토로되고 있는듯 하나 《들꽃 한송인듯 사뿐 내려  
놓고》 했을 때 이것은 결코 제대군인총각에게  
안겨 물 건너 온 처녀자신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적어도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본 대상에 대한 표현이다. 물론 작  
은 것이라 할수 있지만 이런것을 굳이 지적하게  
되는것은 섬세한 정서의 문학인 시에서 이런 하  
나의 실수로 시가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놓칠수  
있기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시 《씩》이나 《씩에서 돌은 즐기》  
등 일부 작품에서도 부분적으로 느껴 지는데 이  
렇게 놓고 보면 그런 시들에서 처녀의 순진하고  
천진하면서도 정에 끓는 심정이 자연스럽게 뿜어  
져야겠는데 지금은 시인의 목소리가 섞인감이 있  
어 처녀의 순진한 심정의 토로를 흐리게 하는 주  
정이 일부 느껴 진다. 이런 현상은 시인의 주관  
과 로파심의 발로와 련결되어 있다.

련시 《전야의 사랑가》는 주제적측면에서나 생  
활정서적측면에서 그리고 양상적측면에서 특색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의의 있는 작품이  
며 우리 시문학의 다양성에 가치 있는 보탬을 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서정의 다양성문제와 관련하여 김석주의 시묵  
을 《고향과 추억》(《조선문학》 주체91년 7호)  
을 더 살펴 보기로 하자. 애초에 나는 이 글에서  
이 작품을 다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김  
석주의 시의 계열에서 볼 때 《고향과 추억》은  
있을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좋은 시도  
많이 쓰고 시를 특색 있게 쓰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시 세계에 이 시묵을 두고는 무언가 신통  
하게 보탬 할 이야기거리가 떠오르지 않기때문이  
였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가 작용했다고 볼수 있다.  
《고향과 추억》과 관련하여 주위에서 젊은이도 나  
이든 사람들도 저마끔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 그  
것을 참작하여 나로서의 생각도 이야기하는것이  
시인에게도 서정의 다양성문제에 대한 리해에도  
다소 도움이 될수 있겠다고 보았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김석주의 시세계에서  
볼 때 《고향과 추억》은 있을수 있는 작품이라  
고 생각한다.

그는 이미 우리 시문학의 성과를 주렁지우는데  
이바지한 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들길우에 날은 저무는데》, 《수평선 저기로!》  
와 함께 《묘향산기행시초》를 비롯한 많은 작  
품들에서 자기의 개성적인 면모를 보여 주었다.

이 작품들이 들어 있는 그의 시집 《들꽃》과  
그 뒤의 시작품들을 더듬어 보노라면 그는 분명

자기의 시세계를 《평범하게》가 아니라 특색 있  
게 가꾸어 가기 위해 애 써 노력하는 시인이라는  
것이 알린다.

그의 시들을 놓고 보면 그 어떤 《이야기거리》,  
《사건적인 소재》를 잡아 쥐고 그것을 시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인이 아니라 많은 경우 대상에  
서 체험된 느낌, 대상을 두고 생각과 환상을 펴  
면서 사색으로 시를 쓰는 시인이라는 생각이 든  
다. 때문에 그의 시들은 대체로 내용적인 이야기  
보다도 느낌이 두드러지며 느낌속에 다양한 체험  
이 굴절되어 시상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사상이  
여운 있게 안겨 오는것을 볼수 있다. 그리고 감  
성적인것이 더 짙게 배여 있다 할 정도로 정서의  
섬세성, 명료성이 느껴 지며 이런것으로 하여  
시행도 짧고 시련도 짧으며 시도 짧은 특성을 다  
분히 보여 주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던 그의 시에 대한 이러한 표  
상을 되새기며 나는 그 연장선우에서 시묵을 《고향  
과 추억》을 다시 읽었으며 좋게 리해하려고 하였  
다.

역시 그 어떤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느낌으  
로 시를 엮고 감성이 진한 정서로 서정을 섬세하  
게 토로하며 깊은 사색을 동반하는 그의 시세계  
의 일단을 엿볼수 있다.

파란 잔디우에 노란 민들레꽃

...

꽃줄기 조심히 꺾어 들고  
숨털열매 가볍게 불어 보는것은  
상기 못 버린 아이적마음

...

하얀 솜털 우산 쓰고 동-동-  
언덕 넘어 개울 넘어 멀리 앞산기슭까지  
아무리 멀리 멀리 날아 갔어도  
고향땅 그 어디에 내려 앉았지  
못 떠나 뿌리 내린 고향 민들레

[시 《민들레》(1)에서]

류다른 나무들도 아닌데 어째서 내 못 잇는가  
기묘한 바위들도 아닌데 어째서 내 못 잇는가  
이름난 산천도 아닌데 내 어째서

멋 있고 아름답기로 소문난것도 아닌  
그저 그런 바위, 그런 시내, 그런 벌판...  
고향은 수수한것뿐인데 내 어째서  
어째서 사람들 그 땅을 지켜 목숨도 바쳤겠는  
가  
어째서 사람들 그 땅을 가꾸 한생을 바치겠는  
가  
또 나는 어째서 머리 희도록 고향에 바칠 시를  
쓰는가

(시 《어째서인가》의 전문)

시인이 깊은 사색으로 얻어 낸 시이며 느낌을 사색으로 연소시켜 사상을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형상적으로 느껴 지게 하려는 시인의 의도가 알린다. 그래서 시를 읽고 나면 생각되는것이 있고 여운이 남는다.

《고향과 추억》에서 시인은 자기의 서정세계를 이전의 그 어느 시에서보다 더 감성적인데로 끌고 갔으며 자기의 의도를 극력 형상의 뒤에 《감추》고 독자들로 하여금 형상적느낌속에 시를 감수하게 하려고 하였다.

시인의 의도가 직선적으로 로출되어 시적사상이 생경하게 드러나거나 정서적느낌보다 표상적 주정 토로가 절제 없이 찍여 저 시로서의 고유한 서정세계를 살리지 못하는 일부 시들에 비해 볼 때 《고향과 추억》에서 보여 준 형상세계는 서정의 다양성을 위한 시인의 탐구적노력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시뭇몸 《고향과 추억》을 두고 우리가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게 되는것은 시대정신에 대한 문제이다.

시대와 시대정신을 떠나서 시가 찍여 진다는것, 서정의 다양성을 생각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더우기 우리의 주체시문학은 시대정신의 정수를 담아야 하며 시인은 시대정신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물론 시대정신은 우리 생활의 곳곳에 스며 있으며 그것은 다양하게 표현된다. 이것은 우리 시인들로 하여금 그 어떤 생활감정을 노래하든 반드시 시대정신을 놓쳐서는 안된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시 《민들레》(1)와 《어째서인가》를 포함하여 《고향과 추억》속에 들어 있는 시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시인이 도대체 시대정신을 생각하고 시를 썼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수 없다.

주위에서 하던 말이 생각한다. ...이 시들은 1940년대에 썼다고 해도 무난할것 같고 50년대, 60년대... 또 그 뒤에 썼다고 해도 통할수 있을것 같다...

물론 시대정신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 시의 감정정서가 적어도 그 시대의 감정정서와 융합되어 토로되어야 시가 진실하고 교양적가치도 가지는 것이지 시대가 비끼지 않은 《순수한》 감정만을 가지고 효과를 노린다면 그런 시는 사실상 시인의 개인적감정의 율조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고향과 추억》과 관련하여 시에 전형적인 사상감정을 담는 문제를 두고 생각되는것이 있다.

우리 시대 인간은 다 사회적집단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그의 사상감정은 이렇게나 저렇게 집단과 편결되어 있다 더우기 개인적인 감정의 토로가 아닌 시대적감정의 일반화로 되어야 하는 주체시문학에서 개인적인 느낌, 개인적인 감정의 울타리에서 벗어 못한다면 그 시는 아무런 의의

도 못 가진다.

《고향과 추억》에서 서정적주인공은 시인자신이다.

고향에 올적마다 여기 백사장에

말없이

말없이

나는 바다와 마주 앉는다

...

무척 그리웠다, 그 말도 다 아니고

무척 사랑한다, 그 말도 다 아니고

터놓을 말을 못 찾고 하많은 말 말없이 나누며

서로 마주 보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고향바다

...

(시 《고향바다》에서)

조개 죽던 바다며 알몸으로 덩굴던 백사장  
한가위날 아버지 따라 가던 사평의 패랭이꽃이며

유년시절의 시계였던 제강소 고동소리

봄날 어머니 나무단에 얹혀 오던

그 진달래꽃뭉치며...

모든것 눈에 생생하건만

어린 시절에 떠나

그 땅에 심어 가꾼 나무 한그루 없을진대

고향은 고향이라도

한갓 추억만으로는 시가 되지 않아서인가

리력서에 적을 때만 고향이었지

그 향토에 바친것 이루어 놓은것 없거니

어제를 두고 추억은 가득하나

오늘을 두고 할 말은 없구나

(시 《추억은 사랑이다》에서)

오래만에 고향바다를 찾아 왔건만 《터놓을 말을 못 찾》아 철썩이는 바다와 말없이 마주 서 있는 서정적주인공, 《어제를 두고 추억은 가득하나》 《향토에 바친것 이루어 놓은것》 하나 없어 《리력서에 적을 때만 고향》이고 《오늘을 두고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서정적주인공, 그는 어느 시대 인간인가? 우리에게 서정적주인공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기보다 시대밖에 밀려난 또는 시대를 외면한 그런 인간으로 느껴 진다. 오래간만에 고향바다를 찾아 왔어도 할 말을 못 찾고 쓸쓸히 헤어지는 인간, 고향을 위해 이루어 놓은것 하나 없이 추억만 가득한 인간, 이것은 우리 시대 인간의 참모습이 아니며 생활의 진실도 아니다. 시를 읽어 보면 서정적주인공은 황당하게만 느껴 진다.

시인은 시대에 대하여, 우리 시대 인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감정의 울타리에서 이 시를 썼다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결국 시 《고향바다》를 보면 《발가승이시절에 사귀 너와 나/ 아마 그리움이 크면 정작 할말도 못하는게지...》라는 결구를 위해서, 시 《추억은 사랑이다》를 보면 《인생은 떠다녀도 닳을 안고 다니는 배와는 달라/ 한번 내린 운명의 닳을 떠 안고 다닐수 없어/ ...고향추억은 한생토록 못 잊어 그리는 사랑》이라는 결구를 위하여 시의 전반에서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을 시대와는 동이 닿지 않게 그리고 그를 시대밖의 인간처럼 느껴 지게 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많이 느끼고 깊이 사색하는것은 좋으나 시대를 떠난 느낌과 사색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 어느 면에서 시대를 안지 않은 느낌과 사색만 추구하는것은 감정의 《자연성》, 《순수성》에 기울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더해 줄뿐이다.

서정의 다양성, 시인의 개성은 시대를 떠나서, 시대정신과는 별개로 생각할수 없다. 서정의 다양성, 시인의 개성은 시대정신속에서 이루어 저야 하며 시대정신이 나래칠 때 그 시작품의 서정은 더 다양해 지고 시인의 개성도 보다 빛을 낼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서 시묵음 《고향과 추억》을 두고 김석주의 서정세계에서 있을수 있는 작품이라고 전제하였는데 이것은 너그럽게 본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것은 있을수 있는 작품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정서생활에 필요하고 절실한 작품들이라는것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 시기 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와 같은 훌륭한 시로 독자들의 인상에 남아 있는 시인에게서 《고향과 추억》과 같은 시는 그 인상을 흐리게 할뿐이다.

시인은 비록 피로울수 있겠지만 나는 이 시묵음을 두고 주위에서 ...인생의 황혼기에 옛 시절을 돌이켜 보는 서글픈 감정, 고독이 어린 애잔하고 애상적인 정서의 로출, 정신적로쇠의 산물... 등 이러저러하게 이야기된적이 있었다는것을 상기하면서 시인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격류하는 시대에 몸을 잠그고 시대정신속에서 자기의시세계를 찾아 서정의 다양성을 펼쳐가는 길만이지인으로서의 삶을 빛내는 길이라는것을 말하고 싶다.

## 통일에 살고 싶다

리명근

통일, 통일은  
소원이기전에  
가장 강렬한 사랑이고  
그것은 갈망이기 전에  
우리의 삶이다  
운명이다

헤어져서는  
갈라 저서는  
절대로 아니될  
그 피줄  
그 땅

통일에 살고 싶다  
그것은 오늘의 웨침이 아니다  
헤여 진 그날부터  
갈라 진 그날부터  
온몸에 흐르는 피처럼  
다같이 안고 산 부르짖음이다

먼저 간 녀들이  
지금도 놓지 않고 찾는구나

땅속에 눈 감지 못한 령혼들이  
못 보고 간 못 살아 본  
그날을 불러 찾는 아 통일-

순간도 없으면 살수 없는  
공기처럼 통일이 가득찬 땅  
이름처럼 가깝게 너를 불러도  
정녕 너를 위해 목숨 바친이  
천이던가 만이던가  
통일아 통일아

살고 싶다  
백두-한나행 철길우에  
삼천리의 노래를 가득 채우고  
서로 오고 갈 그날에  
장벽이 없는 이 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세상에 펼쳐 보일 그날에 살고  
싶다

기다려서 오지 않고  
바란다고 오지 않는

그 통일은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 모두의것  
그것은 민족이 뭉친 힘  
우리 서로 잡은 손  
겨레의 한목소리...

통일에 필요하다면  
뼈와 살도 아낌 없을  
그 뜨거운 마음부터  
통일에 살자  
통일은 민족의 마음속에  
먼저 찾아 오거니-

아, 통일에 살고 싶다  
세상에 단 하나  
분렬조국의 슬픔을 끝장낼  
환희로운 그날을 앞당기자  
통일이 없으면 민족도 없을  
이 땅에 우리 살거니  
통일과 민족은 하나다!  
민족과 통일은 하나다!

## 상봉과 결별

리문성

테레제와의 사랑도 줄리엘과의 사랑도 죄다 잃어 버린 베토벤은 안면 있는 사람과 만나기를 꺼려 하여 길을 걸을 때에도 모자를 꼭 내려 쓰고 될 수만 있으면 추녀밑만을 골라 걸어 다니었다.

이날도 베토벤은 울적한 마음으로 피아노를 벗 삼아 방 안에서 지냈다. 이때 홀연 누구의 안내도 받지 않고 한 처녀가 찾아 왔다. 베토벤은 급작스레 문이 열리는 바람에 소스라치게 놀라 피아노앞에서 일어 났다. 그러자 열린 문앞에 꽃같은 처녀가 미소를 머금고 서 있는것이였다.

《다, 당신은 누구십니까?》하고 그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베토벤씨, 용서하세요. 전 베티나 부렌타노라고 합니다.》

《아! 프랑쓰 부렌타노군의 동생! 오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인 안토슈는 더 잘 알지요...》

《베토벤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 언니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꼭 뵙고 싶어서... 하지만 요즘 베토벤씨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신다기에 저 혼자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찾아 와서 반갑습니다. 매마침 방금 작곡을 끝 마친것이 있으니 그 노래를 들어 봐주겠 습니까?》

《즐거게 들겠습니다.》

베토벤은 다시 결상에 앉아서 테레제와 줄리엘을 사모하기 위해서 작곡한 《그대여 아시는가》의 곡을 치면서 사람들의 가슴속을 파고 드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고 나서 《어떻습니까?》하고 베토벤은 물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일가요! 피테씨의 시와 베토벤씨의 음악은 꼭 하나로 융해되어 결정체가 된것 같군요.》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어서. 그럼 또 하나 다른 곡을...》

이번에는 베토벤은 《구원의 사랑의 눈물》을 노래 불렀다.

노래를 다 듣고 난 베티나는 감동어린 목소리로 《베토벤씨, 전 이처럼 사람들을 황홀경으로 이끌어 가는 선율을 처음 들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도 기쁩니다.》

베토벤과 베티나는 음악과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말로 베티나는 음악에 대해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에 대해서도 정확한 파악과 풍부한 재능을 가진 녀성이였다.

시간도 퍼그나 흘러 그 녀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베토벤은 헤어지기가 섭섭하여 《덱에까지 바래다 드리지요.》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왔다.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저는 집에 돌아 가는 즉시에 피테선생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피테선생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숭배합니다. 피테선생은 어떤 왕들보다도 자기자신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피테선생이야말로 세계의 지배자입니다.》라고 베토벤은 피테를 극구 찬양하였다.

에레오노레 브로닝양이 피테의 시를 랑송해 들려 준 이후부터 베토벤은 피테의 시를 무조건 빠짐없이 읽었다. 그런 덕으로 그의 음악도 드높은 향기를 지니게 되었던것이다.

피테는 베토벤보다 21년이나 년장자이며 당시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시인이며 극작가로 인정을 받아 도이칠란드중부의 와이마르에서 살면서 와이 마르공국 추밀고문관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베티나의 어머니는 그 옛날 피테의 애인이였던 관계로 베티나는 피테를 잘 알게 되었다.

《피테선생에게 편지할 때 내가 그를 숭배하고 있으며 그의 시를 읽는것을 끝 없는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해 주시오. 그리고 내가 그와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것도 함께 써주시오.》라고 베토벤은 부탁하였다.

이들 둘은 어찌나 이야기에 열중하였던지 베토벤은 집앞까지 바래주겠다던 약속도 잊고 베티나가 기숙하고 있는 빌겐슈타트 새집의 쌀롱까지 들어 가버렸다.

그날 매마침 연회가 있어서 쌀롱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하도 뜻밖에 온 귀한 손님을 보고 놀라기도 하였다.

《부디 저희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손님들은 굳이 사양하는 베토벤의 소매자락을 끌며 식탁에 앉혔다.

식사후 베토벤은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흥이 나는대로 피아노를 쳤다.

돌아 갈 때 밖에까지 따라 나온 베티나에게 베토벤은 《베티나양, 래일도 만납시다. 내가 래일 모시러 올테니까. 함께 쉰브룬의 숲속길을 산책 합시다.》하고 속삭이듯 말하였다.

베토벤과 베티나는 이날부터 매일 만나 함께 담소를 하면서 지내었다.

《베토벤씨, 전 당신때문에 원구경이나 사교계에 나서야 할 일도 모두 그만 두었어요.》

《시내구경이나 사교계에 출입해서 뭘 합니까?

미술박물관이나 극장 혹은 스텐판탑과 같은것을 구경한다는것은 부질 없는 일입니다. 그보다도 나와 함께 산책하면서 지내는것이 당신에게 유익할 것이고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것입니다.》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할수 있으리만치 베토벤은 그 녀자와 친숙해 졌다.

며칠후 베틀나는 베토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피테선생에게서 회답이 왔어요. 한번 꼭 만나 보고 싶대요. 절 보고 당신을 갈스파르나 데푸리츠에 오시도록 권고해 달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소? 나도 가고 싶소. 고명하신 피테선생을 만날수 있다는것은 얼마나 행복이요! 피테선생을 만나뵐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소. 아! 피테선생, 시성 피테! 선생의 시는 그 내용과 사상뿐아니라 운률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음악이요.》

《피테선생도 당신을, 당신의 음악을 존경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먼저 저에게 들려 주셨던 두개의 가요의 악보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선물에 실은 자기의 옛날 시를 새로운 기분으로 듣고 싶대요.》

《곧 보내드리시오. 그리고 피테선생의 극 <에그몬드>에 곡을 붙여 이미 무대에 올려 놓았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 주시오.》

《에그몬드》는 네델란드의 전설에 기초한 비극이다. 16세기 네델란드의 장군 에그몬드가 국왕에게 반항하여 인민을 위해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사로잡혔다.

그의 애인 구레르헨은 자기의 에그몬드장군을 구출하려다가 실패하자 자살한다. 에그몬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것을 단념하고 미래의 승리를 믿으면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비극이다.

특히 민중의 슬픔을 표현하는 서곡의 구슬픈 선율은 못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였다. 어느날 베틀나도 그 무대를 보고 감격한 나머지 홀로 베토벤을 찾아 왔던것이다.

하지만 베토벤과 베틀나와의 관계는 오래동안 계속될수 없었다. 베틀나는 아루니즈나라는 사나이와 약혼한 사이므로 결혼하려고 원을 떠나 베를린으로 돌아 갔기때문이다.

허나 베틀나의 중개자 열매를 맺게 되어 그로부터 이태후인 1812년 여름 어느 날 이 두 천재 - 악성 베토벤과 시성 피테는 마침내 데푸리츠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피테선생, 베틀나 부렌타노를 통하여 종종 친절히 편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베토벤은 정중히 머리 숙여 이 숭배하는 시성에게 인사를 하였다.

《원, 천만의 말씀을. 나야말로 나의 시나 극에 훌륭한 곡을 붙여 준 군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것이요.》 하고 피테가 말하였다.

그러나 슬프게도 벌써 60이 넘은 피테의 말소

리는 베토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귀병은 가까이에서 하는 말소리조차 잘 듣지 못하리만큼 악화되어 있었다.

피테는 하는수 없이 종이에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적어 가면서 베토벤과 이야기할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루드비히 베토벤군, 음악에 무식한 나이지만 나는 자네의 명성을 벌써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소. 나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쟈르라고 하는 음악가가 당신을 그다지 좋게 여기지 않았던 관계로 만나려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것이 참말로 유감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노상 많은 사람들로 부터 오해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틀나를 통해서 자네를 다시 알게 되어 나의 생각은 달라 졌소. 보낸 악보를 되풀이하여 듣고 그만 감탄했소. 나는 것처럼 힘 있고 것처럼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것처럼 풍부하고 고상한 내용을 가진 예술은 일찌기 몰랐소.》

《피테선생,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뭐라고...》

피테는 정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베토벤군, 자네의 예술처럼 아름답고 고상한 예술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것이요. 자네야말로 세기의 예술가란 말일세. 자네와 같은 예술의 천재, 음악의 거성을 가진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영광이요. 음악의 힘, 예술의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자네의 음악을 통해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소.》

피테가 일생을 통하여 이렇게 찬사의 말을 한 것은 전에도 후에도 오로지 한사람 베토벤에게밖에 없었다.

두 거장의 교제는 약 두주일동안 계속되었다.

베토벤은 매일 피테의 숙소로 찾아 가 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피테도 그의 숙소로 찾아 와서 피아노를 들었으며 또 때로는 그들은 산책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두사람이 교외를 산책하고 있는데 왕후를 비롯하여 왕족들이 저쪽편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피테는 베토벤의 한쪽 팔을 잡으며 《왕후와 왕족들이 행차하고 계시오. 길을 비켜 드려야겠소.》 하고 말했으나 베토벤은 그의 팔을 뿌리치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길을 비켜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 저분들이 길을 비켜 주는게 모당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모자애 손을 대었을뿐 왕족들이 행차하는 길 한가운데를 유유히 지나쳐 갔다. 왕족들이 길을 비켜 주지 않을수 없었다.

한편 피테는 길을 비켜 주면서 경건하게 모자를 벗고 머리를 깊숙이 수그리면서 인사를 하였다. 베토벤은 이러한 모양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피테를 기다리다가 《피테선생, 나는 선생을 기다렸습니다. 선생은 존경할만 한 어른이기때문입니다. 헌데 선생은 왕족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정



중합니다. 것처럼 예술가가 비굴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레의법절이 단정한 피테는 베토벤의 레의를 무시한 언행에 그만 어안이 병병하였다.

이런 일이 마침내는 그들의 우정을 지속시킬수 없는 원인이 되어 그들의 교제도 이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피테는 이때의 이 사실을 두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베토벤의 천재적인 음악적재능에는 참말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마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는 좀 란쪽한데가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까닭으로 더욱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리해는 가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호감을 살수 없습니다. 왕족들에게 길을 비켜 주었다고 하여 예술가의 자존심이 꺾이고 체면이 꺾이는것은 아닐것입니다.》

## 총이여 너와 나

김춘호

총이여 너와 나  
그 무슨 인연 있길래  
태어나 오늘토록 맺은 정 많아도  
내 너와 맺은 정 노래하고 싶은거나

인연도 깊어라 나의 총이여  
위훈을 청춘의 희망 삼고서  
내 군기앞에 선서한 날부터  
함께 복무의 길 걸어 온 너

높은 산밭도 같이 넘었고  
허리치는 강도 같이 건넜더라  
전호가 차디찬 눈비에  
너와 나 우린 함께 젖었더라

그 나날 이 병사가 흘린 구슬땀  
네 총가목, 네 총신에 고이 스몄고  
너의 유정한 총기름냄새  
내 군복 내 살결에 어느새 배였고...

아마도 우린 헤어 못질 사이  
다른 길을 모르더라 너와 나  
한길우에 빛나더라 너와 나  
그래서 이 병사가 꿈결에도 못 놓는  
다정한 동무더라 총이여 너와 나

귀 기울이면 살뜰한 속삭임이 있어  
불에 대이면 후더운 숨결이 있어  
내 너와 정겹게 나눈 말 얼마  
내 너와 따뜻이 나눈 정 얼마

조용히 네 총번호 외워만 봐도  
대오속의 내 번호 같아 생각이 깊더라  
야무진 네 총성 들어만 봐도  
내 심장의 메아리같이 담이 커지더라

그렇듯 사무치게 정이 든 너와 나

그 누가 가르랴 가를수 있으랴  
너 없인 병사라 말할수 없고  
너 있어 수호자의 긍지 높은 이 마음

정녕 나에게  
심장처럼 귀한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  
조국처럼 사랑하는것이 있다면  
그 또한 너

이 몸에서 심장을 떼어 낼수 없듯  
내 넋에서 조국을 떼어 낼수 없듯  
따로 존재 못하더라 너와 나  
서로 배신 모르더라 너와 나  
나에게 너를 맡긴 그 품을 지켜  
불바다도 함께 헤칠 운명의 동지여

내 만약 적후의 길 홀로 간대도  
너를 벗 삼아 외롭지 않고  
내 만약 전장에 쓰러진대도  
너를 기둥 삼아 다시 일어 서려니

휘여 들줄 모르는 네 총창과 같이  
에돌줄을 모르는 네 총알과 같이  
번개를 치며 우뢰를 치며  
너와 함께 지키리 조국보위선서를!

그 언제나 이 심장  
장군님과 한숨결로 높뛰게 하는  
총이여 너와 함께 위훈 떨치고  
이 가슴에 금별 빛날 그날이 오면

아 그날에도 우린 나누리라  
오늘날 깊은 정 서로 나눴듯이  
금별의 그 영예도 함께 나누리라  
총이여 너와 나  
한목숨인 너와 나

## 문학의 선도자는 작가를 알아야 한다

홍현양

### 이야기의 첫 시작점

그날은 늦가을 저녁이었다.

찬 기운이 섞인 바람이 호수우에 불어 치며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리가 올라 선 제방우에는 물우에 실실이 가지가지를 드리운 버드나무들과 누렇게 황이 들어한잎두잎 잎사귀를 떨구고 있는 방울나무들이 줄지어 늘어 서 있었다.

달아 오른 머리를 식히려고 산책의 길에 나선 우리 일행은 시인들인 차영도, 김은숙, 박경심 그리고 나였다.

그해 주체87(1998)년 백두산해돋이를 부감하고 수천리 길을 자동차와 열차행군으로 돌아 와 석암창작실에서 서정시와 가사창작전투를 진행하고 있던 때였다.

다른 시인들은 그날 저녁 자기들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사색의 세계에 빠져 있었으리라고 생각 되지만 어쩐지 그날 저녁 나에게서는 씨앗을 품고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방울나무의 열매들을 보는 순간 잊지 못할 사람들이 눈물겹게 떠올랐다.

석암창작실이 자리 잡고 있는 건륭호기슭은 내가 그토록 철부지시절부터 바라마지 않던 문학의 세계로 첫 걸음을 들여 놓게 한 잊지 못할 고장이다.

방울나무는 마지막 잎사귀까지 다 털어 버리면서도 씨앗을 품은 열매만은 봄날이 올 때까지 맵짠 겨울의 차거운 추위속에서도 자기 가지에서 버리지 않는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이름 모를 씨앗처럼 생활속에 묻혀 있던 애어린 문학의 싹을 찾아 내어 애지중지 품어 주고 봄날의 대지에 움 트도록 이끌어 준 스승의 모습으로 안겨 왔다.

세월은 가도 추억은 그렇게 불쑥 오는것인가?

박봉옥- 어디서나 흔히 들을수 있는 우리 나라 보통 녀인의 이름이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소년시절, 아직 더벅머리로 뛰여 놀던 철 없던 그 시절 생활의 법칙을 배워준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한 학원시절의 우리 교양원이었다.

호수의 물결위로 몇마리의 새들이 날아서 지나갔다.

20대 나이의 젊은 녀류시인들은 제나름에 겨워 웃고 떠들었지만 나의 눈앞에는 옛 교양원의 모습이 어머니처럼 제방우로 마주 걸어 오는것이 보여 왔다.

주체50(1961)년 여름 우리들은 건륭호에서 야

영을 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봉옥교양원이 대학입학통지서를 가지고 야영지에 있는 나를 찾아 왔던것이다.

《홍동무, 대학입학통지서가 왔길래 이렇게 찾아 왔어. 야영이 끝나면 빨리 준비해 가지고 대학으로 가야 할것 같애.》

내 희망의 씨앗을 안고 온 우리 박봉옥교양원이었다.

《이게 정말입니까?!》

《그럼, 아버지도 얼마나 좋아 하는지 몰라!》

박봉옥교양원이 말하던 그 아버지란 바로 평론가 엄호석이었다.

어느 해인가 박봉옥교양원이 내가 시공부를 하면서 습작을 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그중 몇편을 달라고 하기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주었던 일이었다.

지금 내 시집에 들어 있는 서정시들인 《꿈》, 《달밤에》와 아직 미발표작인 《그 땅 그곳이 그리워》 등 5편을 보였던것 같다.

며칠후 박봉옥교양원이 밝은 얼굴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방에 들어 와서 나를 찾더니 가지고 갔던 작품들을 돌려 주면서 아버지가 작품들을 보았는데 천성적으로 시적인 정서가 있는것이 좋다고, 이 애를 키워 주는것이 무리가 아닐것이라고 했다는것을 전해 주었다.

그날에야 비로소 나는 우리 박봉옥교양원이 평론가 엄호석의 부인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의 인연은 한번 맺어 진 다음 나무줄기가 뻗어 오르는것처럼 끊임없이 지식과 정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어 져야 한다고 본다.

나는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좀 어렵지만 자주 평론가 엄호석을 찾아 가곤 하였다.

그가 나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여 준 것은 작가는 죽을 때까지 읽고 쓰고 사색하는것을 놓쳐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이것이 작가의 3대좌우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글을 쓰는 사람은 다독, 다습, 다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평론가 엄호석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사상을 나의 어린 가슴속에 그때 벌써 심어 주었고 또 생활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늘 알아 보곤 하였다.

이제는 나의 머리에도 흰 오리가 섞이기 시작한지 오래 되었지만 문학의 세계에 첫발을 들여놓던 그 시절에 교훈적인 말을 하여 주던 평론가

엄호석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른다.

작가와의 인연은 문학과와 인연을 맺는 첫 과정이며 배워 주고 배우는 생활로 아지를 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 철창속에서 키운 꿈

평론가 엄호석이 창작한 많은 평론도서들 가운데 어느 한 책에는 그의 경력이 간단히 서술되어 있다.

《저자 엄호석은 1912년 2월 22일 함남도 홍원에서 출생.

함흥 고등보통학교 재학중 광주학생사건으로 말미암아 출학되고 그후 홍원농민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약 4년간 감옥생활.

해방후 그는 창작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는 함남도 문예총기판지 <예술>의 편집책임, 함남도 문예총 부위원장, 문예총 <문화전선>사 부주필로 일하였으며 내각 서적출판지도국 문학예술부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거쳐 전후에는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필로 일하다가 현재 평양문학대학에서 후대양성에 전력, 중요 저서로는 <문학소론>(1950), <문예의 기본>(1952), <조명회연구>(1956), <김소월론>(1958) 등이 있음.》

내가 알건대는 그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도서 《시대와 시인》, 《문학과 현대정신》을 또 세상에 내놓았다.

이것만 보아도 한 문학평론가의 높은 창작정신과 불 타는 열정, 지칠줄 모르는 탐구의 한생이 가슴 뜨겁게 안겨 온다.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민족의 불우한 운명을 안고 태어나 열혈의 심장이 뛰던 학생시절에 광주학생사건에 뛰어들어 탄압으로 배움의 길이 막혔을뿐 아니라 일제를 반대하는 농민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감옥의 철창속에 갇히지 않으면 안되었던 피눈물의 체험자였다.

일제교형리들이 그의 항거정신을 꺾어 보려고 모진 고문과 갖은 악형을 다 들이대는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문학의 바다》, 창파우에 희망의 뜻을 올리였다.

동무들과 친척들이 들어 보내주는 책을 벗 삼아 외국어학습을 중단없이 하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프랑스문학을 전공하였기때문에 프랑스어를 직심하게 파고 들었다.

매일 사전 한두장씩 통달하고는 그 내용을 다시 보지 않기 위하여 뜯어 내는 방법으로 교형리들의 눈을 피해 가며 외국어를 독파해 나갔다.

리정표가 있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 법이다.

일제와의 간고한 싸움속에서도 자기 삶의 참다운 목표를 가지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지식의 탐을 한치 두치 쏘아 올렸기때문에 해방된 조국,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작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창공에 날아 오를수가 있었던 것이다.

주체38(1949)년 6월 평론가 엄호석은 이전 쓰련 장편소설 《제일보》(베르지제르 바비예브작)를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프랑스어만 알고 있을줄 알았는데 로어도 역시 잘 알고 있을뿐아니라 번역작가로서도 문학계에 알려 져 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는 로어, 일본어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에스페란도어(국제속기문자)도 전문가들과 어깨 나란히 하고 있었다.

지식은 건국의 밑거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해방된 조국땅에서 높이 받들고 지식으로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을 창조하는 제일선에 선 작가들속에서 평론가 엄호석의 얼굴도 찾아 볼수 있다.

철창속에서 문학의 맛을 올린 평론가 엄호석의 인생관은 인간정신의 기사, 애국애민의 넋을 지키는 작가로서의 자기 모습을 찾는 길이였으며 작가를 아는 길이였다.

## 시간을 한생 초불처럼 태우라

누구는 시간이 없어 글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

또 누구는 글을 지도하기때문에 쓰지 못한다고 한다.

문학출판행정사업을 오래동안 하여 온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고 또 그렇게 말하여 왔다.

그렇다면 평론가 엄호석은 어느 시간에 글을 썼고 또 어느 시간에 사색을 하였겠는가?

나는 이 글을 쓰는 이 시각에도 그것을 알고 싶어 자신에게 물어 보고 스스로 대답을 찾곤 한다.

평론가 엄호석은 자기의 한생을 평범한 리론가, 평범한 작가로 보내지 않았다.

그는 당, 정권기관, 교육 및 출판기관, 작가동맹의 창작지도일군으로서 매우 분주한 하루, 분주한 시간과 분초를 혁명에 바치였다.

그렇다면 어느 시간에 그 많은 글들을 창작하였겠는가?

나는 평론가 엄호석과 알게 된 다음 그에게서 몇마디 얻어 들은 말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시간속에 사색하고 앓을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써야 한다》는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붓을 들고 철창속에서 버리고 지킨 그 뜻을 주체37(1948)년 12월 잡지 《문화전선》에 실린 《오늘의 문학은 어떠한 타이프를 요구하는가》라는 글에서 명백히 밝히였다.

해방된 우리 조국의 문학은 명실공히 당의 뜻을 따르는 문학으로 되여야 한다고 밝히였다. 당의 뜻을 따르는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령도를 따르는 길인 것이다.

평론가 엄호석이 창작한 평론작품들을 다시 살펴 보면 그의 문학의 세계를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형상과정에 있어서의 예술적우점과 단점》  
 [잡지 《문학예술》 주체38(1949)년 2호]  
 《현대성의 주제와 주인공》 [잡지 《문학예술》 주체38(1949)년 8호]  
 《조선문학과 애국주의사상》 [잡지 《문학예술》 주체39(1950)년 6호]  
 론설 《조국해방전쟁과 문학의 양양》 [주체41(1952)년 5월]  
 《인간은 사실주의 문학의 심장》 [주체43(1954)년 잡지 《조선문학》 5호]  
 《문학과 창작에 있어서 전형성의 문제》 [주체43(1954)년]  
 《생활체험과 작가》 [주체43(1954)년 잡지 《조선문학》 7호]  
 《생활의 진실과 사실주의를 위하여》 [주체43(1954)년 잡지 《조선문학》 9호]  
 ...

이외에도 적지 않은 평론들을 지상에 남기었다.

한 인간의 생은 시간과 정비례한다.  
 그렇다면 자기의 한생에 문학평론으로서 7권과 수많은 평론들을 전투적으로 창작한 평론가 엄호석의 심장은 무엇으로 불 탔는가.

이 물음을 놓고 나는 오늘도 창작가로서 생각이 많다.

그는 시간속에 사색하고 또 하였으며 앓을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붓을 들었다.

부인 박봉옥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아도 집에 퇴근해 돌아 온 시간은 다음날 새벽까지 무엇인가 쓰고 또 쓰는 전투로 이어진 시간이였다고 한다.

참말로 평론가 엄호석은 자기의 생을 시간과 정비례시킬줄 알았다.

이러한 작가의 생은 시간을 초월처럼 태우며 살았다고 말할수 있다.

초월은 자기의 몸을 깡그리 마지막까지 녹여 태우며 시간속에 사는 인간에게 광명을 준다.

이렇듯 작가는 인류에게 지식을 주며 역사발전 법칙과 투쟁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할수 있다.

시간을 한생 초월처럼 태우며 산 작가만이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 평론가-문학의 선도자

작가마다 자기의 창작실천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미학관이 있다.

평론가 엄호석에게도 문학리론가로서의 오랜 경험과 갖추고 있는 풍부한 지적능력에 기초한 자기의 미학적견해가 있었다.

그가 창작한 조명희, 김소월, 리상화에 대한 작가론들과 수많은 평론, 론설, 문학원론들을 보면 평론가의 미학관을 충분히 알수가 있다.

평론가는 문학을 선도하는 역사적사명을 지니

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론가들은 작품창작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정주의,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본질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여 창작가, 예술인들과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며 우리 문학예술에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절대로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평론가는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반혁명적인 본질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여 창작가들은 물론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우리 문학예술에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절대로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문학작품의 사상적경향과 형상적색깔을 똑바로 꿰뚫어 보자면 그 담당자인 작가를 잘 알아야 한다고 본다.

글이자 그 사람이라고 매 작품마다에 작가의 사상과 미학적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작가들의 사상미학적견해를 바로 잡아 주고 작품에 나타난 이색적인 요소도 제때에 폭로비판하여 옳은 창작의 길로 이끌어 주는것도 역시 평론가들이다.

이러한 사명을 옳게 수행하자면 작품과 함께 작가를 연구하여야 하는것이다.

평론가 엄호석은 바로 이러한 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일생을 깡그리 바치였으며 탐구로 이어진 피 타는 길을 걸었다.

작가를 안다는것은 그의 생활경력만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고 본다.

물론 자라난 경력을 파악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의 작품의 세계가 뿌리내리게 된 토양 즉 시대와 결부시켜 보아야 하며 인간으로서 형성시킨 사상감정의 색깔과 형상적사유능력을 가늠해 볼수 있는 정책적안목을 가졌을 때 작가를 안다고 볼수 있다.

작가는 당정책적안목을 가지고 모든 사물현상과 생활의 본질적측면들을 《색》과 《맛》으로 감수하는 지성의 소유자이다.

평론가도 같은 작가이지만 종합, 분석, 추리하는 논리적사유를 보다 기본으로 하는것이다.

작가로서 작가를 알아야 한다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제기되며 형상적실천을 놓고 해부하는 논리적실천을 가깝게 접근시키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인이 《길이 아직 멀다》는 뜻을 은유적인 말로 썼는데 평론가는 표현 그대로 직선적으로 풀이 하며 분석한다면 이것은 작가가 작가를 알았다고 이야기할수 없다. 문학평론은 작품해제도 아니며 론설은 더욱 아닌것이다.

불은 불로써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형

상은 형상적론리로 분석하고 해부해야 작가 자신도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귀신같이 잘 아는가?》하고 깜짝 놀라게 할수 있으며 작가의 눈을 띄워주고 자신도 미처 보지 못한 창작에서 나타난 경향성도 바로 잡아 줄수 있는것이다.

평론가 엄호석의 모든 작가론적인 글들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이 작가와 작품들을 형상적론리로 분석하였기때문에 우리 작가들에게 주는것이 있다.

서정시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것을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서정시는 그자체의 본성에 있어서 현대성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다. 그것은 시인이 자기 시대의 높이에 서서 현실에서 일으켜 진 자신의 체험, 감정, 정서를 통하여 바로 자기 시대에 대하여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곳에서만 탄생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정시란 시인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기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서정시의 두가지 성분, 그것은 시인 자신과 그 시대라고 말할수 있다.》

서정시에 대한 문제를 원리적으로 밝히면서 동시에 표상을 가질수 있도록 생활적인 언어들을 결합하여 쓰고 있기때문에 형상적인 론리로 안겨 온다.

평론가 엄호석은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해체식으로 내용을 그대로 반복풀이하면서 전개하지 않았다.

《환련의 시 그것으로

새로운 세계 하나를 낳아야 할줄 깨칠 그때라야

시인이 너의 존재가

비로소 우주에게 없지 못할 너로 알려 질것이다

가뭇든 논고에는 청개구리의 울음이 있어야 하듯

이와 같이 리상화가 1925년에 쓴 시 <시인에게>에서 시인의 사명에 대하여 선포하였을 때 그것은 시인이 우주에 없지 못할 존재로서의 시인으로 되기 위하여 새로운 세기의 창조에 대한 혁명적가수가 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시인의 창조가 다만 시의 창작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새 세기의 창조,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결코 수사학적과장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리상화는 정당하게도 문학창작을 생활 그자체를 떠나서 생각하지 않았는바 이 경우에 문제가 다만 문학이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다는 사실주의적원칙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문학을 창작하는 창조자로서의 작가의 생활태도에도 있다.

다시말하여 문학창조에서 중요한것- 그것은 리

상화에게 있어서 우선 무엇보다 작가 자신의 생활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서정시의 한개 련에 대한 분석평가가 인용한 내용에 대한 반복풀이가 아니라 평론가 자신이 도출해 낸 사상과 문제점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기때문에 문학과 생활, 시인의 사명과 운명문제에 대한 철학적해명을 주는데로까지 지향하고 있는것이다.

작가가 미처 하지 못한 말을 평론가가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더 깊이 펼쳐 보여 주는데 문학평론의 매력이 있다고 본다.

평론가가 작가와 작품을 잘 알아야 이러한 매력을 낼수 있는것이다.

평론가 엄호석은 항상 이런 원칙에서 창작을 하였으며 안일하게 붓을 들지 않았다.

언젠가 그와 평론분과 사무실에서 만나 조명희, 김소월, 리상화에 대한 작가론적인 글들을 그렇게 심도 있게 쓸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고 물은 적이 있었다. 물론 외란된 물음이었다.

그때 평론가는 겸손하게 《그게 무슨 심도 있는 글들이겠소. 다만 작가를 아직한 다 알았다고 말 할수 없는것이 안타깝소. 문제는 여기에 있소. 평론가는 작가를 알고 써야 한다고 보오.》라고 하였다.

때문에 그는 리상화에 대한 글을 쓸 때에도 박팔양을 비롯한 여러 작가들을 만나 취재를 파고 들었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시 국립도서관은 물론 먼 자강도땅에까지 오갔던것이다.

평론가로서 그가 일단 파악한 작가인 경우에는 자기의 주견을 굽히지 않고 작가와 작품을 끝까지 옹호해 나서는것이 또한 특징이었다.

우리 문학평론계에서 한때 김소월의 창작경향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논의가 된적이 있었다.

이때 《김소월론》을 쓴 저자인 평론가 엄호석을 호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한두명이 아니었다.

이런 속에서도 김소월을 우리 문학사에 올려야 할 작가라고 하면서 자기의 립장을 명백히 밝힌 사람이 바로 평론가 엄호석이었다.

이와 같이 문학을 선도해 주는 사명을 지닌 평론가로서 작가와 작품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진보성과 제약성을 객관적으로 진리의 기준으로 채워 볼줄 아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진리의 기준은 우리 수령님의 사상과 당정책이다.

평론가 엄호석은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이 진리의 기준을 놓지 않고 탐구의 길을 헤쳐 갔다.

## 과묵한 성격속에 잠겨 있는 정

얼음장밑에도 물이 흐른다는 말이 있다.

얼핏 보면 성격이 너무 과묵하여 마음속에 어떤 정이 간직되어 있는지 가늠하기 힘든 그런 사

람들이 있다.

평론가 엄호석의 초상을 그린다면 바로 이런 과묵한 형의 성격이 특징적으로 형상될것이다.

오래동안 그와 생활해 보고 사귀어 사람들도 하루 종일 같이 일하면서도 좀해서 입을 여는것을 많이 보지 못했다고들 이야기 한다.

나 역시 그러한 체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가질런 한 흰 이를 드러내보이면서 그가 한번 웃어보일 때면 그것이 기쁨의 표시, 그 어떤 대견함과 속깊이 간직되어 있는 뜨거운 정이 흘러 넘치는 순간 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그가 쓴 평론들의 한 대목을 읽어 보고 넘어 가는것이 좋을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독자들이여! 당신은 여기서 잠시 리상화가 이 에베그라프(제명, 명구)밑에 자기의 정신적탐구의 흔적을 기록하기 위하여 <출가자의 유서>를 쓰는 동안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잠시 이 자리를 떠나 <출가자의 유서>를 쓰기까지의 그의 생애를 알기 위하여 그의 집을 저자와 함께 찾아 갈것을 허락하라.》

일반적으로 딱딱하다고 하는 평론글에서 이처럼 랑만과 시인에 대한 말 못할 뜨거운 애정이 풍겨 나오는 호소가 한편의 서정시에서처럼 터져 나올수 있는것은 그 어떤 멋도 아니며 평론가 엄호석의 심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평론가 엄호석의 심장은 동지들과 집단, 부인과 자식들앞에 가식을 물렸으며 글을 사랑한것처럼 생활을 사랑했고 부정에 대해서는 타협을 물렸다.

많은 원고료가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동지들과 집단을 위해 조용히 내놓을줄 아는 손이 큰 사람이였다.

말은 뜨직뜨직하게 천천히 하였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장탄되는 총알처럼 명백히 자기의 서열을 짓고 목표를 명중시킬줄 알았다.

때문에 꾸지람을 듣는 경우에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으며 마음이 개운해 지는것을어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매 말마디에는 부잡스러운것들이 쓸데없이 묻어 있지 않았을뿐아니라 개인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기때문이다.

그는 동지들이 생활에서 아픔을 안고 있거나 걸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 주기 위하여 제 한 몸을 서슴없이 내대였으며 자기 집의 살림방도 주저하지 않고 내주었다.

전후 우리 나라가 전쟁의 재더미를 털고 일어설 때 외국류학의 길에서 돌아 온 평론가 강성만에게 몸을 붙이고 살만 한 번변한 거처지가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평론가 엄호석은 앞뒤를 돌아 볼 사이도 없이 그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한 가족처럼 여러해동안 같이 살았고 또 결혼도 시켜 주었던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벗이 사람을 안다고 머나먼 길의 벗은 동지인것이다.

평론가 엄호석은 이렇게 자기 가까이에 두고 관심을 돌려 준 강성만이 일을 잘못하여 평양을 떠나 지방에 내려 가 생활하고 있을 때 현지에 내려 가서도 똑똑히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 가슴에 맺힌것이 내려 가지 않아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다.

강성만 본인은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과 사랑은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며 자식은 어머니의 아픈 매가 있어 곧바른 길을 걸어 자랄수 있는것이다.

이 자그마한 일화속에 평론가 엄호석의 과묵한 성격과 인정의 세계가 진하게 비껴 있다.

집에 들어 와서는 책속에 묻혀 살고 원고지우에 정열을 다 쏟아 부으며 결눈질 한번 할새가 없던 그가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과 공화국 창건 기념일이 오면 새옷을 갈아 입고 부인과 함께 극장관람을 가는것을 관례화했다고 한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었으며 그만큼 평론가의 가슴속에는 다정다감한 정서가 짙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평론가의 맏아들(엄휘조, 화가)은 또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다.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당시 작가동맹청사(지금 옥류약수청량음료점)가 있던 대동강계선장으로 데리고 나가곤 했습니다. 말이 없는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그 곳으로 가서 배를 기다리던 때가 잊혀 지지 않습니다.》

아득히 흘러 간 시절의 이야기이다.

엄휘조는 지금도 아버지가 자기를 대동강계선장으로 데리고 나가곤 하던 일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

거기 계선장에서 배를 타고 내려 가면 얼마 안걸리어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에 가 닿게 된다.

아마도 아버지로서 평론가 엄호석은 귀여운 자기 자식을 그곳으로 손목 잡고 가서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싶었을것이다.

만경봉에 올라 푸른 물이 흘러 가는 대동강을 바라보며 만경대일가분들의 숭고한 뜻과 애국, 애민의 씨앗을 심어 주고 싶었던것이 그의 소원이었을것이다.

웅심 깊은 아버지의 사랑은 몸에 쉽게 감수되지 않을 때도 있다.

엄휘조는 후날 군사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받고 집에 돌아 왔을 때 자기 아버지가 하던 말이 잊혀 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를 이으신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고 문학예술의 천재이신 또 한분의 영명한 지도자께서 우리 인민을 령도하고 계시니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준철히 타일러 주었다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평론가 엄호석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훈시한것 처럼 자기자신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 문예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하였다.

그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 위원장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널리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앞장에서 집행해 나가다가 주체64(1975)년 위절제수술을 받는 수술대우에서 뇌출혈이 갑자기 겹치여 아까운 생, 아까운 두뇌의 활동이 멈추어 섰다.

그러나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시도 쉬임없이 심장속에 끓어 번지던 뜨거운 피는 식지 않는 법이다.

## 다시 이야기의 첫 시작점에서

이 글이 좀 길어 진감이 있지만 하여야 할 말은 아직 많기때문에 다시 이야기의 첫 시작점에서 끝을 맺으려고 한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더욱더 자기 생각의 갈피속에서 추억으로 불러 내는것은 옛 스승의 모습이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과의 가렬한 결전장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잃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준엄한 길에서 귀여운 동생을 등에 업은채로 원썩들의 총창에 찔리우며 생매장 당하던 어머니와 누나들의 최후를 철부지시절에 목격한 나의 동무들은 혁명학원이 어떤 사랑의 품인가 하는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들의 정상을 놓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잠 못 이루시였다는 그 사랑의 이야기는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전설로 되었다.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던 혁명학원에 찾아 오시여 찬바람에 튼 작은 손을 잡으시고 안색을 흐리시던 자애로운 수령님의 그 영상이 살아 있는 나의 망막속에서 지워 지지 않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의 해빛을 젖줄기처럼 곁에서 물려 주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교양원들이였다.

그중의 한사람이 평론가 엄호석의 부인인 박봉옥이였다.

우리가 10대나이때 보살펴 주던 옛 교양원이 이제는 80고개를 넘겼고 나는 60고개를 바라보

는 시절에 들어 섰다.

봄은 오고 또 가고 꽃들은 그 몇십번을 피고 지었는지 그것은 세월만이 기억하고 있을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주체80(1991)년 4월 우리 박봉옥교양원이 생일 70돛을 맞다는 소식을 듣고 옛 스승에게 무엇을 선물할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스승은 인생의 어머니》라고 쓴 족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찾아 가 올리였다.

나와 우리 학원시절 동무들의 한결 같은 마음이 담겨 진 그야말로 소박한 기념품이였다.

그렇게도 상냥스럽고 현숙하게 생겼던 옛 교양원이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다.

어쩐지 가슴에 허전한감이 스며 드는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박봉옥교양원의 속마음씨는 예전 그대로 살뜰한 어머니 그대로였다.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 평론가 엄호석이 생존 해 있을 때 즐겨 들던 음식을 특별히 나에게 권할 때 왜 그런지 나의 두눈에는 뜨거운것이 소리없이 고여 올랐다.

다시 그때의 그 나이로 돌아 가고 싶었다.

수십년 세월속에 무명시인으로 자라났지만 그래도 그것이 대견해서 《홍동무, 나는 동무의 시집을 읽으면서 동무가 열여덟살나던 그 시절을 자주 생각하군 해! 그러면 나도 왜 그런지 행복에 잠기군 하지!...》

어머니처럼 사랑을 준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다.

나의 대학입학통지서를 가지고 건릉호기슭에 찾아 왔던 옛 교양원이 오늘은 나의 변변치 못한 시집을 읽으면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나라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어떻게 키워 주시고 내세워 주시였는가 하는것을 감회 깊게 돌이켜 보는것 이상 더 행복한것이 어데 있겠는가!

시간은 가지만 지난 날의 추억은 자꾸 오늘에로만 온다.

인생의 쓰고 단 모든 맛들가운데서 추억속에 고여있는 아름다운 정보다 더 달디 단것은 없다.

옛 스승은 헤어지며 그날 문밖에까지 나와 앞으로 계속 좋은 시들만 읽게 해달라고 진정을 담아 당부하였다.

그의 뒤에 평론가 엄호석이도 함께 서 있는것을 보면서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떨어 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였다.

옛 스승의 상냥한 웃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건릉호기슭에서 첫 자욱을 떼던 그 시절처럼 봄비가 조용히 내리는 평양의 밤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 단편소설에서 성격형상과 창작적기교

김해월

단편소설은 작은 용적속에서 사회적으로 절실한 문제를 감동 깊게 형상하여 사람들을 격동시킨다.

그러므로 단편소설은 대체로 복잡하지 않는 단순한 사건속에서 생활의 본질을 드러내는 한 단면을 묘사하는것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다.

하지만 단편소설 《까툴골사람》(안동춘, 《조선문학》 주체91년 4호)은 한 인간의 일생운명문제를 재치 있게 형상한 특색 있는 작품이다.

소설은 류랑고아인 엄한규의 형상을 통하여 겨레와 동지, 부모처자와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하는가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물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워 나가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려야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심화시키고 예술성을 높여 그 인식교양적기능을 강화할수 있다.》**

소설은 주인공이 우여곡절에 찬 생활체험속에서 점차 계급적각성이 높아 저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1인칭 소설인 이 단편소설은 《나》의 시점에서 시공간적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펼치면서 까툴골의 유래와 류랑고아인 엄한규가 까툴골에서 생활하게 된 경위, 그의 해방전 생활과 해방후 생활, 조국해방전쟁시기 빨찌산투쟁을 하다가 놈들에게 붙잡혀 비전향장기수로 깨긋한 생을 마친 생활을 몇몇 형상적계기를 통하여 그려 내고 있다.

그 형상적계기들은 류랑고아인 한규를 무척 동정하고 사랑한 《나》의 그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계기인 동시에 주인공의 성격발전을 보여 주는 생활의 계기이기도 하다.

작품은 《나》의 한규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극적견인력을 보장하고 있다. 지주집에서 소처럼 일하면서 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장주사의 물에 빠진 맥고모자를 건지려 돌개소에 들어 가 죽을뻔한 한규의 행동은 《나》에게 바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고열이 나서 쓰러진 한규를 치료해 주고 그에게 자기 같으면 인력거채를 뒤집어 엮고 도망쳤을것이라고 뽀풀이를 해대는 《나》, 《나》의 한규에 대한 오해는 자기가 울고 다니면 마을사람들이 가슴 아파 할것 같아 울지 못하고 자기를 혈육처럼 키워 준 이 고장사람을 두고 떠날수 없어 떠나지 못한다는 그의 말에서 이 마을사람들의 사랑을 잊지 못해하는 웅심 깊은 마음을 느끼고 다소 풀리게 된다.

한규를 마감지 않게 생각했던 《나》의 오해가 풀리게 된 중요한 계기는 장주사가 끌어 온 쫓새령감의 옹노에 걸린 메돼지를 돌려주려고 하는 자기에게 총을 쏘는 지주놈을 때려 눕히는 극적정황에서였다.

쫓새령감이 아들잔치준비를 하려고 놓은 옹노에 걸린 메돼지를 끌어 오고도 오히려 허가없이 옹노를 놓은것도 패썹한데 잡은 짐승까지 가지려 든다고 하면서 여기 산판은 다 내것이라고 올렸다는 장주사, 한규가 그놈의 말은 들은척도 하지 않고 그 메돼지를 쫓새령감에게 돌려 주려고 하는 자기에게 총을 쏘대는 장주사를 때려 눕히는 행동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짐승처럼 여기는 지주놈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증오심의 폭발이었다.

《나》는 그날 잔등에 박힌 그 많은 산탄알을 다 파낼 때도 꿈쩍하지 않던 한규가 동리어튼들과 나의 부모들에게 무릎절을 하고 노전바닥에 이마를 대인채 한참 서럽게 울다가 마을을 떠나 동구밖을 벗어 날 때는 험한 장부의 태도를 보면서 그를 뼈대도 없는 삽살개 같은 자식이라고 비난했던 일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해방된 해 가을에 한규가 골덴양복차림에 비단저고리를 입은 색시를 데리고 까툴골에 나타났을 때 그가 장주사집에서 뛰쳐 나간후 강도질하고 술집녀자를 꺾치고 도망쳤다는 헛소문을 그대로 믿는다. 때문에 공산당 조직을 못도록 선도한 한규를 입당시키지도 않는다.

나라에 애국미를 바치는 문제를 토의할 때 공산당에 자기를 받아 주지 않는것이 억울하여 엇드레질하는 한규에게서 기막힌 과거지사를 듣고서 《나》는 또다시 그를 오해했던 자신을 질책하며 그를 입당시키도록 도와 나선다.

종파분자들과도 대담하게 맞서 싸우던 한규는 자기 군에 모신 백두산3대위인들을 만나뵈려 가는 세포위원장일행을 때를 써서 끝내 따라 나선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와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접견은 한규의 혁명적세계관형성의 절정이였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군의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만나시여 담화도 하시고 사업토의를 하시느라 밤을 꼬박 새우고 병치료를 받는 항일투사들을 위해 약초를 캐려 몇십리를 다녀 왔지만 까툴골사람들을 만나시고 무척 반가와 하신다.

그이께서는 독립군을 하던 로인님들도 많으시다는데 제가 먼저 가뵐것이지 옳은데 가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시며 방으로 손 잡아 이끄신다.

그리고 엄한규의 두서없는 눈물겨운 과거지사로 부터 종파놈에게 책벌 받은 경위까지도 다 들어주신 백두산너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고 혁명은 투쟁인 동시에 거래와 동지, 부모처자들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깨우쳐 주신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한규가 지닌 고향에 대한 사랑이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되는 과정이었으며 혁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생활의 계기이기도 했다.

엄한규의 장판지에 피 터진 자그마한 상처를 보시고 약병을 들고 밖으로 따라까지 오시여 의사선생님들도 자그마한 상처라도 꼭꼭 발라야 한다고 하셨다고, 그래야 우리 어머님도 마음을 놓을것이라고 하시며 약을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백두산너장군 김정숙동지의 동지관, 백두산3대장군들의 사랑은 한규를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키워 준 사상적기둥이었다. 하기에 한규는 그 뜨거운 사랑에 오염을 더뜨리었다. 그러나 《나》는 한규가 재진격당시 놈들에게 끌려 간 안해를 따라 남으로 간 다음 소식이 없게 되자 또다시 그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

남에서 빨찌산지대장으로 용감히 싸우다가 체포되어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백두산3대위인들에 대한 숭배심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까툴골사람들의 근본을 지켜 비전향장기수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보위하다 값 높은 생을 마친 엄한규의 투쟁소식을 보고 들으며 동지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던 자신을 원망하며 자책하는 《나》.

백두산너장군 김정숙동지와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보온 반시간도 채 못되는 짧은 시간에 받아안은 사랑을 잊지 않고 의리를 지켜 반세기를 바친 비전향장기수, 카툴골사람이었던 엄한규의 높은 정신세계를 소설에 담으려고 엄한규와 함께 올랐던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판모봉에 오르곤 하는 《나》.

실로 《나》의 오해가 풀리는 과정은 평범한 인간이 영웅으로, 새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인 동시에 아름다운 인간이 더 아름다와 지는 인간성장의 과정이었다. 바로 여기에 작품의 극성이 있고 예술적흥미를 끄는 극적전인력이 있다.

단편소설이 특색 있는 작품으로 될수 있는것은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체험하고 느낀 생활에 대한 깊은 탐구로 향토미가 짙게 풍기게 이야기를 구수하게 펼쳐 간 형상적기교와도 관련된다.

소설에서는 까툴골의 유래와 생활풍속, 사랑과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이 고향사람들의 미의 세계를 뜨겁게 받아 안게 한다.

이처럼 작가는 재치 있는 형상적기교로 엄한규가 백두산3대장군의 사랑을 의리로 지켜 신념의 강자, 시대의 영웅으로 영생의 삶을 간직하게 한 정신력을 진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단편소설에서 아쉬운 점은 주인공이 비전향장기수로 될수 있는 생활적바탕을 더 섬세하게 그려 주었으면 하는것이다.

작품에서 해방전에 주인공의 사상의식발전과정은 인상 깊게 잘 그려 져 있다. 때문에 순박하면서도 의리가 있고 정의감도 강한 한규의 모습이 생동하게 안겨 온다.

그런데 백두산3대위인을 만난후 조국해방전쟁시기 그의 정신적변화과정을 그려 주지 않았기때문에 비전향장기수로 될수 있는 사상적바탕이 약해 진감이 있다.

또한 작품에서 엄한규의 안해 세월이가 조국해방전쟁시기 남으로 끌려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생활경위를 명백히 해주었으면 좋았을것이다.

하지만 단편소설은 작가의 깊은 생활체험, 재치 있는 형상적기교와 독특한 정서적색갈로 하여 특색 있고 여운이 깊은 작품으로 되었다.

단편소설 《까툴골사람》은 우리 인민들에게 그 어떤 엄혹한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한생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값 있게 살려는 숭고한 지향과 열정을 더욱 뜨겁게 불태워 줄것이다.

## 가사

# 나는 병사가 되였네

류성렬

희망이 나래치는 귀중한 청춘시절  
이 맘속엔 병사가 될 꿈만이 움 텔네  
장군님의 총대로 한생을 살고파  
혁명의 군복 입고 초소에 섰다네

천만가지 포부도 총대에서 꽃 피기에  
조국을 지켜 가는 병사가 되였네

장군님 빛내시는 내 조국 지키려  
청춘의 푸른 꿈 초소에 세웠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초가에 있어도  
인민의 안녕속에 내 삶은 빛나네  
우리는 행복보다 지켜 가는 공지 있어  
장군님병사로 영원히 살리라

#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악부시의 발전에서 찾아 보는 몇가지 특성

(중국)조양

조선고전문학에서 악부시는 민요를 비롯한 인문학을 한자로 서사화하는 과정에 창작된 작품들을 말한다.

현재까지 전해 지는 문헌자료에 의하면 조선에서 《악부》라는 표제를 직접 달고 나온 악부시는 고려시기 리제현(1287~1367)의 《소악부》에 실려 있는 악부시 11수가 처음이다.

악부시는 조선봉건왕조전반기에 들어 와서도 조선인민의 훌륭한 민족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면면히 계승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고려시기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드러내며 활발히 창작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족고전문학예술유산에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의 참다운 가치와 생명력은 해당시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그들의 사상감정과 정서를 풍만하게 담고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데 있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악부시는 새로운 시대적변천과 높아진 인민들의 민족적자각 그리고 풍부한 민족생활의 각이한 측면들을 폭 넓고 진실하게 반영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악부시의 발전에서 찾아 보는 중요한 특성은 첫째로 작품들의 소재가 보다 풍부해 지고 폭 넓어 진데서 찾아 볼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악부시들은 선행시기 악부시창작경험을 계승하면서도 생활자료선택에서 전시기 악부시들에 비해 보다 확대되었다.

고려시기 악부시들은 주로 조선인민들의 생활과정에 창조되고 불리워진 민요를 소재로 하여 창작된 민요적성격이 강한 작품들이라고 볼수 있다.

고려 광종때(950~975) 장진공에 의하여 창작된 《한송정》이라든가 리제현에 의하여 창작된 《소악부》에 실려 있는 악부시들은 전래하던 민요들을 한자로 서사화하는 과정에 창작된 작품들이다. 때문에 이러한 작품들은 한자시형식으로 씌여 졌다 하더라도 민요적인 색채가 짙으며 또 실제로 당시 불리우던 민요를 번역해 놓은데 불과한 작품들이라고 할수 있다.

실례로 《악학궤범》에 실려 있는 《삼진작》(정과정)과 리제현의 악부시 《정과정》을 대조해 보면 잘 알수 있다.

내 님을 그리아와 우니다니  
산곶동새 난 이숫하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달 아으  
잔월효성이 아라시리이다  
...

《악학궤범》의 민요 《삼진작》(정과정)

님 그려 날마다 눈물로 옷 적시니  
봄동산의 곶동새 비슷도 하지요  
옳다고 그르다고 사람아 묻지 마오  
지는 달 새벽별이 이 마음 알아 주리  
리제현의 악부시 《정과정》

우의 작품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리제현은 본래의 《삼진작》(정과정)을 한시로 번역해 놓았지만 님을 그리워 하는 원 민요의 사상정서적내용을 조그마한 꾸밈도 없이 충분하게 반영하였다.

리제현의 《소악부》에 실려 있는 《서경별곡》, 《장암》, 《사리화》, 《거사련》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작품들이 다 당시 불리우던 민요원작의 내용에 충실히 의거하면서 한자로 서사화해 놓은 작품들이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악부시의 소재탐구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물론 조선봉건왕조전반기에도 당시 인민들속에서 불리워 지던 민요에서 소재를 받아 들여 악부시로 창작하는 민요의 한자서사화가 계속 진행되었다.

강희맹(1422~1483)의 《금양잡록》에 실려 있는 《농부가》라든가 김종직(1431~1492)의 《동도잡영》에 실려 있는 《회소곡》, 《방아타령》, 《슬픔의 노래》, 《양산노래》와 같은 작품들은 당시나 그 이전시기부터 인민들속에서 불리워 오던 민요들에서 소재를 받아 들여 악부시로 창작된 작품들이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은 소재를 민요에서 받아 들였을뿐 개인창작과정을 거치면서 민요 원작의 내용보다는 창작가의 사상정서적지향이 보다 강화된 작품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동도잡영》중의 《회소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소. 아소》  
길쌈노래여  
넓은 뜰엔 가을바람 불어 예고  
화려한 집안에 밝은 달 가득한데  
공주는 앉아서 물레를 갖고  
여섯마을 처녀들 모두 모였네  
《네 바구니 찾다 내 바구니 비었다》

술 마시고 놀려 대며 서로를 떠드네  
한 너인의 탄식에 천여집 수고하며  
사방 어디서나 길쌈질에 여념 없네  
가배놀이 방자하여 규중법도 어겼으나  
아귀다툼 줄당기기 이에 비할소나

《회소곡》은 원래 동도지방의 유명한 길쌈놀이와 관련된 민간풍속에서 소재를 취한 작품으로 전해 지고 있다. 작품의 내용과 그 유래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이 《회소곡》은 당시 민간에서 불리우던 노래가 아니다. 다만 《길쌈노래》(회소곡)에서 상을 받아 들어 당시 민간풍속에 대한 역사적사실을 시화한것이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악부시의 소재선택에서 중요한것은 전통적인 민속놀이나 민족적풍습과 같은 조선인민의 훌륭한 민족생활의 다양한 측면들, 역사적사실이나 역사적인물들과 관련된 전설들에서 소재를 취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이다.

《동도잡영》의 악부시 작품들이나 심광세(1571~1624)의 《해동악부》에 실려 있는 44편의 작품들은 많은 경우 민요뿐아니라 고대로부터 당시까지의 조선인민의 민족세태생활이나 역사적사실 그리고 인물과 관련된 전설들에서 작품의 소재를 취함으로써 전시기 악부시들에 비해 생활반영의 폭을 훨씬 넓히고 있다.

《해동악부》에 실려 있는 악부시 《옛 장성》은 고려 덕종때(1031-1033) 나라방비를 목적으로 국내성으로부터 동해의 도련포까지 장성을 수축한 역사적사실을 노래하고 있다면 악부시 《락화암》, 《조선의 신화》는 잘 알려 진 백제 3,000 궁녀와 관련된 락화암전설이나 백제상전설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작품들이며 《광군사》는 고려 초엽(947년)에 거란침략자들의 침략에 대처하여 《광군사》를 설치한 역사적사실을 그리고 《림종의 한탄》은 세조반정(1455)때 신의를 저버린 신숙주와 관련한 역사적사실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악부시 소재탐구에서의 이러한 특성은 진보적문인들이 당시의 시대적지향과 높아 진 인민들의 민족적자각에 고무되면서 조선의 민족문화유산인 시문학적으로 고착시켜 후세에 전해주려는 애국적립장으로부터 창작적탐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루어 진 새로운 측면이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악부시의 발전에서 찾아 보는 특성은 둘째로 주제사상적내용이 다양해 지고 애국적경향이 강화된것이다.

고려시기 악부시들의 주제사상적내용은 주로 당시 인민들의 농경생활이나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성, 님에 대한 사랑과 같은 윤리도덕적문제 다 시말하여 인정세태문제를 반영하는데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악부시들은 고려시기에 비해 주제사상적내용이 다양할뿐아니라 특히 애국적경향이 강화된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강희맹의 《농부가》는 농민들의 농경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흥취나는 민요적색채로 노래하고 있다면 김중직의 《동도잡영》에 실려 있는 악부시들은 그 주제범위가 사회적문제들을 반영하는데로 지향되면서 훨씬 다양해 졌다.

이러한 경향은 심광세의 《해동악부》에 실려 있는 악부시작품들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심광세는 《해동악부》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 나라 역사를 읽으면서 그속에서 찬양할수 있거나 경계로 삼을수 있는것들을 얼마간 골라서 노래할수 있는 시가형태로 만들고 이름을 <해동악부>로 달아서 아들에게 가르치고저 하였다.》

심광세의 이 글에는 악부시창작의 목적과 소재선택, 주제사상적내용들의 지향성과 악부시에 대한 그의 견해들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해동악부》에 실려 있는 악부시들은 그의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조선민족의 민족생활에서 의의 있는 역사적사실이나 사건, 인물들 그리고 전설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주제사상적내용들이 《찬양할수 있거나》 《경계로 삼을수》 있는데로 지향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많은 경우 소재적특성으로부터 사회적문제들을 반영하는데로 지향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해동악부》에 실려 있는 작품들을 주제별로 보며는 봉건통치배들의 추악한 권력다툼을 반영한 《귀인이 죽네》, 《아야마》, 《아지의 문안》, 봉건통치배들의 도덕적부패성을 반영한 《첩을 얻네》, 《세가지를 미리 알았네》, 《성씨를 숨기다》, 《락화암》, 불교교리의 허황성과 위선성을 폭로한 《까마귀 족지 전하네》, 《피 심은 밭》, 《팔관회》, 조선인민의 반침략애국적감정을 노래한 《성루에서의 인사》, 《옛 장성》, 《광군사》, 《조선의 신화》, 굳은 지조와 절개를 찬양한 《산에 들어가 통곡하네》, 《원천석》, 의리와 지조를 저버린 자들을 폭로비판한 《수진방》, 《림종의 한탄》, 아름다운 풍속을 노래한 《금궐의 노래》, 당쟁의 폐단을 폭로한 《남쪽사람 등용하자》 등을 비롯하여 실로 다양 하다.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옛 장성》과 《림종의 한탄》을 들수 있다.

옛성의 터전은 상기도 완연하여  
국내성에서 도련포에 이르렀도다  
성의 높이는 스물다섯자  
성의 길이는 일천삼백리

외적을 막자고 이 성 쌓을제  
백성들 피땀을 얼마나 흘렸으랴  
조선봉건왕조에 와서는 자연의 요새마다  
관문을 거듭하고령마루를 더 높여

지리는 옛날보다 굳건해졌건만

나라가 어찌하여 외세에 흔들리나  
조상들이 쌓은 성 굳게만 지킨다면  
감히 어느 적이 우리 땅을 엿보라  
시 《옛 장성》

사람이란 백년안에  
한번은 죽는 법  
살아 생전엔 부귀가 좋다지만  
죽은후엔 절개와 의리만 남는다네

죽어야 할 자리를 피해 나와서  
림종때 한탄한들 소용 있으랴  
그대여 천고의 력사 살펴 보라  
그대처럼 잘못 산 자 적지 않으리  
시 《림종의 한탄》

우의 작품들에서 시 《옛 장성》은 고려 덕종때 나라방비를 목적으로 국내성으로부터 동해의 도련포까지 긴 성을 쌓은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백성들의 피와 땀이 습배인 성새마저 지키지 못하고 나라방비에 무관심한 통치배들을 폭로비판하고 있다면 시 《림종의 한탄》은 세조반정(1455년)때 신숙주의 불우한 운명을 통하여 사람은 지조와 신의를 지켜야 인간적인 삶을 빛낼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보는바와 같이 《해동악부》에 실려 있는 작품들에는 지나간 력사적시대의 사실이라도 거기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을수 있는 문제들이 위주로 되고 있으며 특히는 애국적주제의 작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해동악부》에 실려 있는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의 근처에는 한결같이 나라와 겨레에 대한 시인의 열렬한 애국심이 력력히 습배여 있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악부시발전에서 찾아 보는 특성은 셋째로 고려시기 악부시들에 비해 보다 자유롭고 전개된 시형식을 취하고 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악부시라고 할 때 그것은 시형식보다는 내용에 의하여 설정된 개념이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악부시들은 고려시기 악부시 창작경험을 계승하면서도 소재적특성과 창작자의 개인적지향에 의하여 전시기 악부시형식들에 비해 전개된 시형식으로 창작되었다.

고려시기 악부시들은 해당민요의 성격으로부터 많은 경우 짧은 절구형식을 취하고 있다.

리제현의 《소악부》에 실려 있는 9편의 시들은 전형적인것은 아니라도 거의다 짧은 7언절구형식으로 창작된 악부시작품들이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악부시들은 절구형식의 개별적인 작품보다는 많은 경우 절구나 룰시형식의 묶음 또는 절구, 룰시, 고시형식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전개된 형식의 작품들이다.

실례로 강희맹의 악부시 《농부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대체로 짧은 고시형식의 작품 14편으로 이루어진 룰시형식의 작품으로서 매 시편마다 독자적인 제목을 가지고 시간적인 순차와 농경생활의 특성에 맞게 시적구성을 이루면서도 총

체적으로는 《농부가》라는 작품의 주제에 이바지하도록 구성형식을 취하고 있다.

실례로 《농부가》중의 《이슬받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른 새벽 호미 메고  
앞들에라 일 나가니  
방울방울 맺힌 이슬  
상기 아니 개였어라

어즈버 금년 년사  
시절도 좋을세라  
아침이슬 찬 이슬에  
옷이 젖다 걱정하랴

보는바와 같이 작품은 이른 새벽에 농쟁기를 메고 일터로 나가는 농민들의 량만적인 모습에 대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로동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희열에 넘쳐 구가하고 있다. 또한 작품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해당 민요의 성격으로부터 짧은 고시장단구형식을 취하고 있다.

《농부가》중의 《이슬받이》, 《해맞이》, 《김매기》, 《긴 사례》, 《지는 해 서산에 걸렸네》와 같은 작품들은 그 제목에서도 말해 주는바와 같이 시간적인 순차와 농경생활의 특성에 맞게 시적구성을 이루면서도 총체적으로는 농부들의 노래라는 작품의 기본주제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구성을 이루고 있는 룰시형식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김종직의 악부시 《동도잡영》은 고시장단구형식의 작품 7편으로 구성된 시조형식의 작품이다.

구성을 보려는 《회소곡》, 《근심이 없어 졌네》, 《치술령》, 《슬픔의 노래》, 《양산노래》, 《방아타령》, 《황창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동도잡영》의 악부시들은 동도(경주)지방의 민요나 세태풍속, 력사적사실이나 전설들에서 소재를 취하여 창작된 다양한 주제(즉 로동생활, 애국적주제, 현실비판, 애정룰리 등)의 작품묶음으로 이루어진 시조형식의 작품들이다. 또한 개별적인 작품들의 경우에도 소재적특성에 따라 비교적 긴 고시장단구형식을 취하고 있다.

심광세의 악부시 《해동악부》에 실려 있는 44편의 작품들은 시형식에서 볼 때 김종직의 《동도잡영》의 시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작품들의 시형식에서 보다 특색을 보여 주고 있다.

《해동악부》에 실려 있는 44편의 악부시들은 전개된 고시형식이나 고시장단구형식의 작품으로 구성을 이루고 있다.

레하면 《락화암》은 한자 원문으로 17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정이 망했도다》는 22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시형식의 작품들이며 《조선의 신하》는 10행으로 이루어진 장단구형식의 작품이다.

여기에서 특히 악부시 《조선의 신하》는 시형식에서 특별히 이채를 띠는 작품인데 고시의 독

특한 형태인 장단구형식을 리용하면서도 내용의 특성에 맞게 행구성을 비교적 자유롭게 하고 있다.

시는 모두 10개행으로 구성된 장단구형식의 작품이다. 시행구성을 보면 한자로 첫행은 3언, 둘째 행 3언, 셋째 행 3언, 넷째 행 3언, 다섯째 행 5언, 여섯째 행 5언, 일곱째 행 5언, 여덟째 행 5언, 아홉째 행 4언, 열째 행 3언으로 되어 있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작품은 전반적인 구와 려구성이 다른 장단구들에 비하여 일정한 규정성이 없이 3언, 4언, 5언으로 된 구들이 각이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압운도 일률적인 규정성이 없이 임의로 하고 있다. 즉 첫째 려에서는 행마다 압운하고 있으며 [첫행은 인(사람인), 둘째 행은 신(신하 신)] 다음련부러는 려의 마지막구에만 [둘째 려에 서는 사(일사), 셋째 려에서는 사(죽을 상식

사), 넷째 려에서는 피 (피할피), 다섯째 려에서는 의(어조사의)] 압운하고 있다.

이처럼 악부시 《조선의 신하》는 장단구형식을 취하면서도 구 및 려구성이 매우 불규칙적이며 압운의 방법도 규정성을 떠난 과격적인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악부시들이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반영하는 내용에 더욱 철저히 의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악부시발전에서 찾아 보는 이러한 특성들은 다같이 당시 진보적문인들이 인민들의 높아 진 민족적자각과 애국심에 고무되면서 조선민족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시문학적으로 고 착시키고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창작적 탐구과정에 이룩된 혁신적인 면모이다.

## 첨단과학기술의 특징

여러 나라들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을 지식과 기술이 밀착된것이며 현대자연과학리론들과 기술에 기초하여 확립된 효과적인 과학적방법과 기술수단의 종합체로 보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의 특징은 우선 창조성이 높은것이다. 첨단과학기술은 지적자원밀집형기술로서 이미 발전하여 온 기술을 혁신하고 축적하며 지금의 과학기술성공에 토대하여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다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축적할뿐 아니라 기술발전방향과 방도를 새롭게 제시한다.

또한 높은 전략성을 가지는것이다. 첨단과학기술은 현 시기 과학기술의 형태로 표현되는 하나의 전략적인 자원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경쟁에서 개별적나라나 지역의 정치, 경제, 군사적지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되고 있다.

다음으로 수익성이 높은것이다. 첨단과학기술은 새로운 과학기술성공에 토대하여 이룩되는 선진적인 기술로서 제품의 질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노동생산능률과 자원리용률을 현저하게 높임으로써 막대한 경제적리익을 가져 오게 한다.

다음으로 침투성이 강한것이다. 첨단과학기술은 학문들사이의 종합과 교차가 비교적 강한 과학기술령역이므로 이미 이룩된 산업부문들에 널리 침투전과되어 기술적진보를 비상히 촉진시킨다.

다음으로 실패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것이다. 첨단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은 착상, 설계, 제작단계에서는 성공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며 첨단과학기술제품생산과 판매시장사이의 대립으로 인한 엄중한 실패의 위험성도 안고 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은 지적력량의 집중도가 높고 투자가 많이 들며 잠재력이 크고 경쟁이 치열하며 모험을 동반하는 특성들을 가진다.

첨단과학기술은 생물기술령역(유전자공학과 단

백질공학), 전자정보기술령역(지능컴퓨터와 지능로봇), 새 재료기술령역(분자설계와 초전도체), 새 에너지기술령역(핵에너지와 태양에너지), 공간기술령역(우주기술과 영구우주정류소), 해양기술령역(해저채굴과 바다물담수화) 등 6개의 과학기술령역을 포괄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령역은 생물의료기구산업, 생물공학산업, 빛전자정보산업, 지능기계산업, 프로그램산업, 초전도산업, 태양에너지산업, 공간산업, 해양산업부문들을 포괄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연구사업과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기초한 새로운 과학기술성공이 급속히 늘어 나고 있다. 과학적발견과 발명이 생산에 실현되는 기간이 훨씬 줄어들고 있다. 새 기술, 새 제품에 의한 낡은것의 교체속도가 빨라 지고 있다.

과학연구방법에서도 혁신을 가져 오게 한다.

최근 년간 컴퓨터가 정보분석처리분야에 도입되면서 과학연구과정을 대폭 줄이고 사람의 두뇌로는 풀수 없다고 하던 문제들을 풀수 있게 되었으며 수학적모의에 의해 최적설계, 최적실험을 할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정확히 찾아 볼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로력과 자금, 자재, 시간이 절약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은 현대사회를 개변시킨다.

첨단과학기술에 의하여 전반적인 생산방식과 조직형식이 달라 지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 자금의 역할보다 사람의 지적능력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첨단과학기술은 과학, 기술, 생산을 일체화한 체계로서 과학연구사업에서뿐아니라 산업구조와 사람들의 생활방식에서까지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 우리 나라에서 군담과 군담소설의 창작

슬기롭고 재능 있는 우리 인민이 창조한 귀중한 문학예술유산중에는 민족의 애국적슬기와 용맹을 반영한 군담과 군담소설도 있다.

군담은 전쟁이나 군사와 관련되는 내용을 주되는 이야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어의 구전문학들과 구별되는 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 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군담은 오랜 창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왔으며 이 과정에 우수한 군담을 수많은 남기였다.

우리 나라에서 군담은 오랜 고대시기부터 창작되어 왔으며 중세에 이르러 보다 활발히 창작되었다. 《해모수신화》, 《고주몽전설》과 같은 작품들의 내용을 보아도 벌써 그 시기 군담이 높은 수준에서 창조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작품들에서는 높은 기개와 담력으로 주변소국들을 통합해 나가던 우리 민족의 씩씩한 기상을 엿 볼수 있다.

현재 전해 지는 유산가운데서 초기의 군담으로 알려 지고 있는것은 《명림답부》, 《밀우와 누우》, 《을지문덕이야기》, 《석우로이야기》 등이다. 작품들에서는 전 시기 군담의 창작경험에 기초하여 삼국시기 애국적인물들의 위훈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고려시기에도 《왕건이야기》, 《견훤이야기》, 《강감찬이야기》, 《서희이야기》, 《설죽화》 등 많은 군담이 창조되었으며 임진조국전쟁시기에는 《박재우와 리씨부인》, 《김응서와 계월향》, 《리순신장군》, 《행주산성》을 비롯하여 애국명장들과 의병장들, 애국적인민들의 위훈을 반영한 군담들이 많이 창조되어 우리 인민의 애국적 위훈을 길이 전해 주고 있다.

대표적인 군담의 하나인 《김응서와 계월향》은 애국명장 김응서와 평양기생이었던 계월향의 위훈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작품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굳게 지닌 김응서가 계월향의 도움속에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 가 왜장의 목을 쳐버리는 애국적위훈을 생동히 반영하고 있다.

창조된 모든 군담들에서는 우리 인민의 견결한 반침략투쟁정신과 애국적슬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간악무도한 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

의 죄행에 대한 저주와 규탄, 끝 없는 증오와 멸적의 기상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군담은 이처럼 오랜 역사적과정에 계속 창조발전하여 오면서 반침략조국방위의 애국투쟁을 주제로 한 소설의 중요한 원천으로 되었으며 그를 생활적바탕으로 한 군담소설발전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삼국시기인 고구려시기에 활발하던 군담의 창작적경험을 이어 받아 《은달전》과 같은 군담소설이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군담소설은 고려시기를 거쳐 17~19세기에 더욱 활발히 창작되었다.

군담소설이 이 시기에 이르러 활발히 창작되게 된것은 임진, 병자전쟁을 계기로 인민들속에서 민족적자각이 더욱 높아 지게 된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하여 17세기부터 《임진록》, 《박재우전》, 《리순신전》, 《사명당전》, 《림경업전》, 《박씨부인전》과 같은 반침략애국주제의 군담소설들이 련이어 나오게 되었다. 군담소설의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반침략투쟁을 반영한것이다. 국토지배야망과 종족분쟁, 무사도의 기질과 끝 없는 탐욕으로 일관된 다른 나라의 군사물소설들과는 달리 우리 나라 군담소설은 처음부터 반침략애국정신을 중요한 내용으로 반영하면서 창작되었다. 우리 나라 군담소설은 소설발전의 새로운 영향밑에서 군담을 소재로 리용한 작품들뿐아니라 반침략투쟁의 직접적인 현실을 소재로 하는 여러 형태의 작품들도 창작된 특성을 보여 준다. 이런 소설들로서는 《박씨부인전》, 《배시황전》, 《류충렬전》, 《진장군전》, 《홍계월전》, 《백학선전》 등이 있다.

군담소설들은 소재에 있어서뿐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주로 반침략애국투쟁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반동적지배계급에 대한 항거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도 창작하였다.

《류문성전》과 같은 작품들이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역사적과정에 우리 나라의 군사적인 활동과 투쟁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군담과 군담소설들을 창작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은 더욱 빛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선조들이 창조한 이 귀중한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함정남

## 가사

# 설날풍경

## 안정기

설날이라 새 아침 조선옷이 황홀한데  
향기로운 민족음식 상에 넘쳐 더욱 좋네  
할아버지 할머니 백년장수 하라고  
손자손녀 두손 모아 설세배 드린다네

흥이로다 어깨춤 열두발상모춤  
청춘들의 민속춤에 로인들도 젊어 지네  
웃음 많고 일 잘하는 제대군인 그 총각이

노래춤도 제일이라 목마 태워 축하하세  
집안에선 옷놀이 편을 무어 승벽인데  
밖에서는 아이들의 연피우기 신이 났네  
기쁨속에 웃음속에 우리 풍속 제일 좋아  
행복 넘친 우리 설날 세상에서 제일일세  
선군의 총대로 민속전통 지켜 주신  
장군님사랑으로 복 받은 설날일세

## 민속명절

# 설명절

설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명절이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해 설명절을 즐겨 맞았다.

설은 옛 기록들에 의하면 《세수》, 《년수》,  
《원단》, 《원일》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한  
해의 첫날이라는 뜻이다.

우리 인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설날에 조상과  
웃어른들에게 례의를 표시하고 흥미 있는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기었다.

우리 인민들은 우선 설날을 앞두고 명절맞이준  
비를 착실히 하였다.

설날이 가까와 오면 녀인들은 식구들의 설옷  
(설빔 또는 세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설을 깨끗한 환경에서 쇠기 위하여 집안  
밖을 청소하고 손질도 하였다.

설맞이준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설음식을 마  
련하는 일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또한 설달 그믐  
날에 묵은 해의 빛을 깨끗이 청산하거나 새해에  
는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념원에서 일부 도구를  
새로 장만해 놓았다. 설달 그믐날 밤에 쌀을 이  
는 조리를 새로 마련하여 복조리라고 하면서 붉  
은 실을 꿰어 매서 부엌에 걸어 두는 풍습이 있  
었다. 여기에는 한해동안 많은 쌀을 일수 있을만

큼 풍년이 들라는 뜻이 담겨 저 있다. 갈퀴도 새  
로 마련하여 부엌에 걸어 두었는데 한해동안 많  
은것을 긁어 들일수 있게 해달라는 념원에서였  
다.

곳에 따라서는 설달 그믐날 《묵은세배》라고  
하여 세배를 다니기도 하였다. 묵은 해를 잘 보  
내라는 뜻으로 웃어른들이 있는 집에 찾아 가  
《과세 안녕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큰 절을 하였  
다. 물론 묵은 세배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설  
이 되면 또 새해 세배를 하였다.

설달 그믐날은 여러가지 설맞이준비를 하느라  
고 밤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일하였다. 아이들과  
늙은이들은 한옆에서 옷놀이를 하며 유쾌한 시  
간을 보내었다. 옛날부터 설달 그믐날 밤에 잠을  
자면 눈섭이 희어 진다고 한것은 설맞이준비가  
바쁘니 이 한밤은 잠자지 말고 일해야 한다는데  
서 생긴 말이였다.

설맞이행사는 새해 정월 초하루날 새벽부터 진  
행되였다.

설날 이른아침에는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였  
다. 세배풍습은 우리 인민이 웃사람을 존경하고  
례의를 귀중히 여겨 온데서 생겨 난 풍습이다.

설날이 되면 우선 집안의 웃사람순서로 차례차

레 큰 절로 세배를 드렸으며 다음에는 마을안의 웃어른들을 찾아 다니며 세배를 하였다. 가까운 친척집의 웃사람들, 마을의 나이 많은 어른들, 훈장(선생)들에게 의례히 세배를 드리였다.

집안의 세배는 남자 웃어른들에게 먼저 하고 다음으로 녀자 웃어른들에게 하였다. 세배는 나이와 향렬을 따져서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향렬이 낮은 사람이 향렬이 높은 사람에게 하였다.

이웃마을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웃어른들에게도 세배를 다니였는데 그때의 세배는 보름전에 하면례를 지키는것으로 되였다.

설날 로인들이 있는 집에서는 간단한례물을 준비하여 놓았다가 세배를 받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에게는 콩강정이나 잔돈을 쥐여 주었고 어른들에게는 간단한 음식을 내놓았다. 친구들사이에는 새해를 총화하는 의미에서 《덕담(앞으로 잘되기를 축복하는 말)》을 주고 받았다.

설날에 하는 즐거운 일은 다음으로 설음식을 잘 차리어 집안식구들과 친척들이 한곳에 모여 나누어 먹거나 찾아 오는 이웃들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

설날음식은 세찬이라고 하였다. 세찬으로는 찰떡, 설기떡, 절편과 같은 떡과 여러가지 지짐류, 당과류, 수정과, 식혜, 고기구이, 과실, 술들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떡국과 만두국은 설날음식으로 빠저서는 안되는것이였다.

떡국은 흰쌀가루를 찌서 긴 가래떡(떡국대)을 만들어 그것을 돈잎만 하게 썰어서 고기국에 넣어 끓인것이였다. 예로부터 설을 설 때 반드시 떡국을 먹는것으로 여겼기때문에 사람들은 떡국에 《첨세병(나이를 더 먹는 떡)》이라는 별명까지 붙이 었다.

만두국은 서북조선일대에서 흔히 설음식으로 만들어 먹었다.

설날에 술을 마실 때 《세주불온(설술은 데우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여 찬 술을 한잔씩 마시

었다. 이것은 옛 사람들이 정초부터 봄이 든다고 보았기때문에 봄을 맞으며 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 생긴 풍습이였다.

설날에 마시는 술을 도소주라고 하였는데 이 술은 오랜 옛날부터 전하여 오는 이름 있는 술로서 설명절에 마시기 위하여 특별히 고운 술이였다. 도소주는 육계, 산초, 흰삽주뿌리, 도라지, 방풍 등 여러가지 고려약재를 넣어서 만든것으로서 이 술을 마시면 한해동안 아무런 병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설명절을 특별히 장식하고 즐겁게 한것은 민속놀이였다. 설날의 민속놀이로는 대중적인 놀이인 윷놀이와 녀성들이 좋아 하는 널뛰기, 어린이들이 노는 연피우기, 썰매타기, 바람개비놀이 등이 있었다.

윷놀이는 남녀로소에 가림없이 모든 사람이 즐겨 노는 놀이였다. 윷가락을 울리 던져 나오는 수를 가지고 29발을 가진 판을 말 4개가 먼저 돌아 나오는 편이 이기는것으로 하였다. 윷놀이는 남녀가 함께 놀수도 있고 또 남자들끼리나 녀자들끼리도 놀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놀이였으므로 설대목에 많이 놀았다.

널뛰기는 녀성들의 놀이로서 설날과 정월대보름날에 성황을 이루던 놀이였다. 멍석을 둘둘 말아서 뽕묵으로 하고 그우에 긴 널판을 가로 놓은 다음 두사람이 판자 랑끝에 마주 올라 서서 구르며 놀았다.

설날에 아이들은 연피우기를 하며 즐겁게 놀았다. 연을 높이 띄우고 여러가지 채주를 부리기도 하였으며 연줄끊기내기도 하였다. 연피우기는 대체로 전해 초겨울부터 시작하여 정초를 거쳐 정월대보름명절까지 성황을 이루던 놀이였다.

아이들은 얼음판에서 썰매타기도 하고 팽이치기도 하면서 즐기었다.

설날에 아이들은 바람개비놀이도 하였다.

설명절은 새해에 들어 와 첫번째로 맞는 명절로서 가장 즐겨 맞는 명절의 하나였다.